

---

# 한일관계사학회

## 제221회 열례발표회

---

일시 : 2025년 11월 8일(토) 오후 2~6시  
장소 : 한성백제박물관 B1 회의실

# 차례

사회 : 이훈(한림대학교)

## 제1발표

정종1년 (1399년) 오우치 요시히로의  
'백제후예' 확인 문서 및 토전(土田) 하사  
요구에 관한 고찰

발표 : 이헌섭(방송통신대학교)  
토론 : 윤성익(경희대학교)

## 제2발표

무진년 조선통조선 세조(世祖) 대의  
상서(祥瑞) 축하사 연구사 귀로에서의 갈등과  
해법

발표 : 김동우(부경대학교)  
토론 : 송중호(방송통신대학교)

제1발표

정종1년 (1399년) 오우치 요시히로의  
'백제후예' 확인 문서 및 토전(土田) 하사  
요구에 관한 고찰

발표 : 이헌섭(방송통신대학교)

토론 : 윤성익(경희대학교)

# 정종1년 (1399년) 오우치 요시히로의 ‘백제후예’ 확인 문서 및 토전(土田) 하사 요구에 관한 고찰

이 헌 섭

## I. 머리말

## II. 오우치씨의 ‘백제후예설’

1. 오우치가(家)의 가계전승과 임성태자(琳聖太子)
2. 임성태자의 ‘백제후예설’ vs ‘가야후예설’
3. 임성태자 선착지 다타라와 다라국(多羅國)
4. 조선에 대한 오우치씨의 ‘백제후예설’ 제기 사례

## III. 오우치씨의 세계(世系)확인 요구 경과

1. 조선 전기의 조일관계와 거추사(巨酋使) 오우치씨
2. 1453년 노리히로의 ‘임성태자 후예설’ 주장
3. 1485년 마사히로의 임성태자 선조 ‘國史’ 확인 요청
4. 오우치씨 가계 분식(粉飾) 과정

## IV. 1399년 요시히로의 세계(世系)확인 요구의 배경과 목적

1. 시대적 배경 개관
2. 요시히로의 토전 하사 요구와 오에이의 난의 관련성
3. 요시히로의 ‘이미지메이킹’ 전략
4. 요시히로의 ‘이미지메이킹’ 대상에 관한 고찰

## V. 맺음말

## I. 머리말

14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는 크게 소용돌이쳤다. 중국 대륙에서는 1368년 주원장(朱元璋)이 명을 건국하였고 1387년 (홍무20년)에 명이 요동을 자국 세력 하에 넣음으로써 중국 대륙을 통일했으며 뒤이어 원의 잔존 세력인 북원(北元)도 멸망시켰다.<sup>1)</sup> 이로써 북방 민족의 중원 지배가 끝나고 한족(漢族)에 의한 중국 지배 시대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있어서도 큰 변화요인이 되었다.

서기 1392년은 동북아시아 정세에 있어 특기할 만한 해였다. 1392년 7월 17일 (양력 8월 2일) 이성계가 고려의 공양왕으로부터 선위받는 형식으로 왕위에 오름으로써 조선을 개국하고 태조(太祖)가 되었다. 그리고 이 1392년은 일본에서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를 끝내고 남조와 북조 양쪽 세력이 합일을 이룬 해이기도 하다.<sup>2)</sup>

한·중·일 삼국에서 각각 새로운 정치체제가 성립하면서 이 삼국간의 외교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새로운 당면문제로 부상했다. 중국을 위시한 동아시아 국가간의 전통적인 외교관계의 특징은 한 마디로 조공책봉(朝貢冊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우연히도 비슷한 시기에 정치체제의 급전환을 경험한 동아시아 삼국에 있어, 외교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하는 것은, 환언하면 명을 중심으로 둔 조공책봉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sup>3)</sup>

명은 그 성립 초기부터 해금정책(海禁政策), 즉 민간인에 의한 해외무역을 금하는 정책을 채용했다. 원래 이 해금정책은 연해지방의 반란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엄격해지고, 그것과 표리관계를 이루며 적극적인 조공책봉 체제 수립이 뒤따르게 되었다. 명은 전국을 통일하고 인국과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주변 국가에 입공을 촉구하는 사신을 적극적으로 파견하면서 조공책봉 체제로의 편입을 요구했다.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많은 나라가 이에 응하면서 명을 중심으로 하는 조공책봉 체제가 점차 확립되어 갔다.

명이 건국됨에 따라 고려는 그간 이어져 온 원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점차 친명노선으로 바뀌어 가게 되었으며, 이 친명외교 노선은 조선으로 계승되었다. 조선 왕조가 성립하던 당시에는 명과의 관계가 원활하지만은 않았는데, 영락제 대에 조선의 제3대 국왕인 태종의 왕위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고명(誥命)을 내림으로써 양국 사이의 조공

1) 명나라의 홍무제가 대도(大都)를 점령하고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토곤 테무르(혜종)가 몽골 고원으로 피신하면서 1368년 원나라의 중원 지배가 끝났다. 북원은 원나라가 멸망한 후 북쪽으로 쫓겨난 후에도 지속되었으나, 명나라의 계속된 공격에 시달리다가 15세기 초 내부의 권력 다툼과 이를 틈탄 오이라트 세력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2) 1392년 봄에 남조군의 본거지 중 하나인 치하야성(千早城)이 함락되면서, 쇠퇴해 가던 남조 측은 북조에 대항할 방도를 거의 잃게 되었다. 결국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의 알선에 의해 남조의 고카메야마 천황(後龜山天皇)이 북조의 고코마쓰 천황(後小松天皇)에게 소위 삼종의 신기를 넘겨줌으로써, 남북조의 합일이 성립했다.

3) 조공책봉 체제는 애초 당나라 시대에 동아시아 세계의 국제질서로 확립되었으나, 당의 쇠퇴와 함께 그 기능이 퇴색했다. 송, 원 시대에는 국가간 관계보다는 민간 상인에 의한 교역이 번성했다. 특히 유라시아의 광대한 영역을 지배한 몽골제국은 적극적인 무역장려책을 썼기 때문에 대륙 규모의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국에서 명 왕조가 성립하면서 활발한 해외 교역은 엄격한 제약을 받게 된다. 명은 그 성립 초기부터 해금정책(海禁政策), 즉 민간인에 의한 해외무역을 금하는 정책을 채용하고 이와 함께 조공책봉 체제의 재구축을 추진했다.

책봉 관계가 확립되었다. 일본 무로마치 막부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명과의 조공책봉 체제의 틀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한 대명, 대조선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렇듯 14세기 후반, 조선, 명, 일본 세 나라의 외교적인 과제는 신정권 간의 상호 승인과 조공관계 설정이었으나, 그에 앞서 해결해야 할 외교 현안은 왜구 문제였다. 13세기 이래 한반도 해안 각지를 침구해 온 왜구 문제는 신생국 조선에 있어서 뿌리깊은 골치거리였다. 조선의 대일정책의 목표는 남쪽 변경의 평화였고, 기본방식은 왜구를 정상적인 통교자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명으로서도 동부 해안을 노략질하는 왜구 세력이 원 말기의 한인 군웅과 결탁하여 반란 세력을 형성한 경험도 있어, 왜구 금압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였다. 명의 대일교섭은 왜구 금압이 일차적인 목적이었으며 외교와 통상은 그것을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14세기 말 이후 조선과 명이 대일외교에 적극성을 띤 이유는 왜구의 금압과 피로인(被擄人)의 송환 문제가 그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14세기 말 동북아 삼국의 국제관계를 설정하는 데에 있어, 오우치 요시히로(大内義弘)는 매우 독특한 위치를 점하는 인물이다. 요시히로는 일본의 정국을 공식적으로 주도하던 무로마치 막부의 대표가 아니었다. 그리고 당시 무로마치 막부의 공식기관으로서 규슈 지역을 통치하고 대외 교섭과 통교를 담당하는 창구로서 규슈탄다이(九州探題)가 있었는데, 요시히로는 그 규슈탄다이에 속해 있지도 않았다. 오우치 요시히로는 서일본 지역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었지만, 여러 슈고다이묘 중의 한 명에 불과했다.

그런 요시히로가 특히 조·일 통교 관계 수립과 왜구 금압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와중에서 특이한 주장을 했다. 정종1년(1399년) 여름, 요시히로는 자신이 백제 왕손의 후손인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 확인 문서를 만들어 주고, 선조의 고향 지역 토지를 하사해 달라는 요구를 조선에 해 온 것이다. 오우치씨 측에서 스스로를 백제의 후예라고 주장하면서 관련된 문서와 정보를 조선 조정에게 요청하는 사례는 그 이후에도 수차례 더 반복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요시히로가 정종1년(1399년)에 조선에 대하여 ‘백제후예’ 확인 문서 및 토전 하사를 요구한 일을 중심으로, 그 배경과 맥락, 목적 등을 살펴봄으로써 해당 시기의 양국 관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했다. 먼저 검토할 그 첫 번째는 오우치씨의 ‘백제후예’ 주장에 대해 그 전후 사정과 함의에 대해 개괄하는 것이다. ‘백제후예설’이 역사적 사실에 얼마나 부합하며 신빙성이 있는가 하는 진위 판정의 문제는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아니지만, 금번 연구 과정에서 주목되는 몇가지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이 점에 대해서는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오우치 가문이 서기 6-7 세기 경에 한반도를 떠나 일본에 도래한 선조에 의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는 고대 한일관계사 영역의 일화는 오히려, 후일 14세기 이후에 오우치씨가 자신의 선조관을 어떻게 형성하고 인식했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더욱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

오우치 가문에서 조선 조정에 자신들의 선조에 관한 주장을 전하고 조치를 요구한

것은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였다. ① 정종1년 (1399년) 요시히로가 가계와 출자(出自)를 표기한 문서와 땅(土田)을 요구한 것, ② 단종1년 (1453년)에 노리히로(大内教弘)가 ‘임성태자입일본지기(琳聖太子入日本之記)’를 요구한 것, ③ 성종16년 (1485년) 마사히로(大内政弘)가 임성태자 앞 선조들의 이름 확인을 요구한 것이 그것이다.<sup>4)</sup> 두 번째로 검토할 사항은 이 세 차례의 대 조선 접촉과 요청 내용을 일련의 흐름으로 보고 그 경향성을 살핌으로써, 본 연구의 주내용으로 삼는 정종1년 (1399년)의 사례를 통시적,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검토할 사항은 정종1년 (1399년)에 오우치 요시히로가 조선 조정에 사신을 보내, 오우치 가문의 한반도 출자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 및 토전 지급을 요청한 궁극적 목적을 밝히는 것이다. 요시히로의 사신이 조선 조정에 내조한 것은 그해 (오에이6년) 여름이었다.<sup>5)</sup> 오우치 요시히로가 무로마치 막부의 제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의 대군과 충돌한 소위 오에의 난에서 전사하기 불과 몇 개월 전이었다.<sup>6)</sup> 오우치 요시히로가 조선에 요구한 문서와 토전은 오에이의 난 상황과 밀접히 관련지어 검토해야 한다. 오우치 요시히로 말년의 동향은 또한 조선-명-일본이 각각 정치적 격동을 겪은 직후에 새로운 조공책봉 관계를 수립해 가던 시기의 동북아관계사의 영역이기도 하다. 요시히로가 제기한 당시의 외교 사안은 오에이의 난을 치르고 있던 일본 내의 권력 구조뿐 아니라, 조일 양국의 통교 문제와도 직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시야 속에서, 요시히로가 정종1년 (1399년) 당시에 제기한 오우치씨의 ‘백제유래설’ 주장을 ‘이미지메이킹(image-making)’이라는 틀을 통해 논증하고자 한다.

오우치씨가 자신 가문의 출자와 관련한 문서 등을 요구한 이 사안에 대한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 일본 연구자의 다수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 즉 요시히로의 출자관련 문서와 토전의 하사 요구 사실을 언급하는 사례는 많으나,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 있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정종1년 (1399년) 요시히로의 대 조선 요청을 다루는 경우에도 대부분 그해 후반에 발생한 오에이의 난과 관련한 한 때의 해프닝 정도로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sup>7)</sup> 한국 연구자의 논문 중에서 오우치씨가 요시히로 이후 후대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선조 출자 관련 문서

4) 오우치씨 측에서 조선 조정에 대해 1399년, 1453년, 1485년, 세 차례에 걸쳐 ‘백제후예설’ 확인 문서를 요구하였다고 하는 부분은 스다 마키코의 의 내용에 따랐다.

5) 오우치 요시히로의 사자가 조선을 방문하여 가계와 출자(出自)를 표기한 문서와 땅(土田)을 요구한 데 대해 정종 1년 (1399년) 7월 10일에 어전 회의가 열렸으며 그 내용이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7월 10일 무인 6번째 기사로 실려 있다.

6) 오우치 요시히로는 오에이 6년(1399년) 10월 중순경 군세를 이끌고 사카이를 향해 진군하였으며, 상경을 재촉하는 쇼군 요시미쓰에 대항해 사카이에서 농성하다가 12월 21일 막부군에 의해 토벌되어 전사했다.

7) 송종호, 강상운, 사토 신이치(佐藤進一), 한윤희, 나가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 마쓰오카 히사토(松岡久人) 등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송종호는 “1399년 7월 10일, 그는 아시카가 요시미쓰에 대한 모반을 염두에 두고 조선 조정에 본관과 토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 토전을 요구했던 것은, 오우치 요시히로가 막부에 대한 모반이 실패했을 때 퇴각하여 머물 근거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정종 원년(1399) 등시라로 왜구 집단의 투항과 오에이의 난』, 『한일관계사연구』 84, 한일관계사학회, 2024) 라고 하였고, 나가무라 히데타카는 “아시카가 요시미쓰에 대하여 반기를 든 것과 관련하여 생각하면 무척 흥미가 있는 일이다.”(『日鮮關係史の研究(上)』, 吉川弘文館, 1965, 152쪽) 라고 언급하였다. 마쓰오카 히사토(松岡久人)는 그의 저서 『오우치 요시히로』(戎光祥出版, 2013, 初出은 1966년)에서 오우치씨가 백제 연고지의 토지를 요구한 내용과 조선 내에서의 논의 과정을 상세히 전하면서도, 오우치씨의 세계를 적은 문서를 요구한 일에 대해서는 그 사실만 언급하고 있을 뿐, 그 의의와 목적 등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를 요구한 사안 전체에 대하여 통시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우치씨 가문에서 요시히로-노리히로-마사히로로 이어지면서 누대에 걸쳐 선조의 출자 관련 자료와 정보를 요청한 일련의 사안 전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분석을 한 대표적인 선행 연구로는 스다 마키코(須田牧子)<sup>8)</sup>와 이토 고지(伊藤幸司)<sup>9)</sup>를 들 수 있다. 두 사람의 연구에서 공통되는 점은 1399년 요시히로의 사례조차도 오에이의 난 전황과는 깊이 관련짓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일본 ‘국내’를 향한 목적으로 조선 조정에 대해 일종의 ‘퍼포먼스’<sup>10)</sup> 내지는 ‘선전 공세’<sup>11)</sup>를 했다고 본다는 점이다. 그 당시 15세기에, 국내적 필요성 때문에 이웃나라 조정에 외교적 공작을 했다는 설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일본 국내를 향한 모종의 효과를 기대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만으로 당시 사안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까?

어느 한 점(點)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점이 놓인 선(線)에 대해 알아야 한다. 본고에서는 1399년의 한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그 연원이 되는 설화를 살피고, 그 후손이 제기한 연장선상의 동향을 함께 분석해 보고자 한다. 어느 한 선(線)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선 하나만을 ‘단선적’ 보아서 안 된다. 그 선과 교차하고 있는 다른 관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본고는 그래서 당시의 일본 내 상황, 조선내 상황과 함께 양국간의 관계사를 함께 시야에 넣어 검토하고 있다. 정종1년(1399년) 오우치 요시히로가 자기 선조의 ‘백제후예’ 확인 문서와 연고지 토전 하사를 요구한 사실(史實)에 대해 가능한 한 통시적,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지향하는 바이다.

## II. 오우치씨의 ‘백제후예설’

### 1. 오우치가(家)의 가계전승과 임성태자(琳聖太子)

#### (1) 오우치씨 가계전승

오우치씨의 시조로 거론되는 인물은 백자의 왕자인 임성태자라고 한다. 소위 오우치씨의 ‘백제후예설’이다. 오우치씨 가문에 전해지는 족보(「多多良姓大内氏家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琳聖太子

百濟國馬韓皇帝齊王第二子

8) 스다 마키코, 「室町期における大内氏の対朝関係と先祖観の形成」, 『歴史学研究』, 2002 및 「大内氏の対朝関係の展開と琳聖太子伝説」, 『中世の対外交流』, 2006. 스다 마키코는 이 두 논문을 통합하여 「大内氏 先祖観の形成とその意義」 『中世日朝関係と大内氏』, 도쿄대학출판회, 2011로 발표했다.

9) 이토 고지, 「中世西国諸氏の系譜認識」, 『경계의 아이덴티티』, 규슈사학회 편, 岩田書院, 2008년

10) 스다 마키코는 위 각주의 논문에서 “조선 왕조를 향해서 한 퍼포먼스가... 실은 국내적 필요성 때문에 행해지고 국내를 향해 주장된 것이기도 했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11) 이토 고지는 2004년 11월 5일 야마구치현립대학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15세기 오우치씨가 스스로의 뿌리를 백제국의 임성태자에서 찾은 일련의 동향은 본래의 사실과는 다른 뿌리의 환전(喧伝)이었다.”고 했다.

本朝推古帝十九年春三月二日來朝到於防州佐渡郡多多良濱  
奉詔命假營館舍於長州大內縣移居島  
齊明帝三年冬十一月朔薨春秋八十一歲

즉 백제국 마한황제 제왕(齊王)의 제2자(第二子)인 임성태자가 611년에 일본에 도래하여 스오(周防) 사도군 다타라하마에 자리를 잡았다가 오우치현(大內縣)으로 이거하여 오우치씨의 시조가 되었으며 657년에 81세로 사망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스다 마키코의 저서인 『중세 조일관계와 오우치씨』 (도쿄대학출판회, 2011)에 보면 오우치씨 선조의 출자와 관련하여, 백제 성명왕(聖明王)의 제3왕자인 임성태자(琳聖太子)의 자손이라는 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조선 왕조 내에서의 의론에서는 (중략) 오우치씨는 ‘우리나라’=조선으로부터 나온 일족이므로, 라고 하는 것이 많이 보인다. 실제로 오우치씨가 백제 성명왕의 제3왕자인 임성태자의 자손을 칭했던 것은 근세 초두에 성립한 『大內義隆記』, 『大友記』와 같은 합전기(合戰記) 등에도 여기저기 나타나 일본에서도 유명한 사실이었다.

이처럼 오우치씨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임성태자에 대해서는 그 출전에 따라 기술이 일정하지가 않다. 앞에서 본 오우치씨 가내 문서에서는 임성태자를 백제국 마한황제 제왕(齊王)의 제2왕자라 한 데 반해, 스다 마키코의 저서에서 전하는 바로는 일본으로 온 임성태자는 백제 성명왕의 제3왕자이다.<sup>12)</sup> 또 다른 자료에서는 위덕왕(威德王)의 왕자인 것으로 표시되기도 한다. 만약 임성태자가 81세에 사망했다는 기록이 사실이라면, 사망 년도 (사이메이 천황 3년, 657년)로부터 역산하여 서기 576년경에 태어난 셈이 되므로 위덕왕의 아들로 보는 게 더 타당할 것이다.<sup>13)</sup>

## (2) 임성태자와 아좌태자

『일본서기』 기록에 따르면 스이코 천황 5년(597년)에 백제의 아좌태자(阿佐太子)가 일본에 도래하여 쇼토쿠태자(聖德太子, 574~662)의 초상을 그렸다고 한다.<sup>14)</sup> 아좌태자의 도래 시기로 볼 때 당시 백제의 왕은 위덕왕이었다.<sup>15)</sup> 그러나 일설에는 아좌태자를 성명왕의 아들이라고도 한다. 성명왕은 성왕(聖王) 또는 명왕(明王)이라고도 하는데 일본에 불교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는 백제의 제 26대 임금이었다.

임성태자가 일본으로 건너왔다고 하는 시기는 611년 (스이코 천황 19년)으로 아좌태자의 경우와는 14년의 차이가 있지만, 스이코 천황 치세에 백제 성왕 또는 위덕왕

12) 예를 들어 이토 코지(伊藤幸司)도 「오우치씨의 국제전개 - 14세기 후반 ~ 16세기 전반의 야마구치 지역과 동아시아 세계 -」에서, 『大内氏實錄』 등을 근거로 임성태자가 성명왕의 제3왕자라는 설을 전하며, 제철기술을 가지고 한반도로부터 귀환한 씨족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13) 백제 성명왕의 사망년도는 서기 554년이므로, 임성태자의 사망 추정 사망년도 576년보다 이르기 때문이다.

14) “推古5年渡來於日本而写描於聖德太子之聖像”(『일본서기』)

15) 위덕왕(威德王, 525년~598년)은 백제의 제27대 국왕으로서 재위기간은 554년~598년이다. 성은 부여(扶餘), 휘는 창(昌)으로, 성왕의 맏아들이다.

의 아들로 추정되는 백제의 왕자가 일본에 도래했다는 점에서 서로 일치한다. 아좌태자와 임성태자에 대한 내용은 한국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아좌태자는 『일본서기』에, 임성태자는 오우치씨가 족보 관련 문서에 등장한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두 사람은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아좌태자는 위덕왕의 아들로 알려져 있다. 아좌태자가 일본으로 건너간 다음 해 (598년)에 위덕왕이 사망하는데, 그 왕위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좌태자가 아닌 위덕왕의 동생(혜왕)으로 승계되었다. 그래서 아좌태자가 위덕왕의 아들이 아닌 동생인 듯하다고 해서, 성명왕의 아들이라는 설도 생겼을 것이다.

○ 임성태자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다. ‘성명왕의 제3왕자’로 알려졌지만, 실은 위덕왕의 아들이 맞을 것이다. 임성태자의 추정 출생년도에 성왕은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좌태자와 임성태자는 그 소생에 관한 기술(=‘성명왕 또는 위덕왕의 아들’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실은 위덕왕의 아들인 것으로 보임)에서 동일하다.

○ 아좌태자가 일본 성덕태자 초상화를 그렸고 그의 불교 진흥정책을 도와 일본에 불교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했으므로 그 공적을 인정받고 ‘聖德’의 ‘聖’ 자를 받아, 일본에서 임성태자(琳聖太子)로 불렸을 가능성이 있다. 아좌태자는 일본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던 도중 갑자기 모습을 감추었는데, 이후 ‘611년 일본에 귀부한 임성태자’로 대치된 것으로 보인다.

○ 오우치 가에서 임성태자의 후손으로 내세우는 인물 중에 阿部, 世阿, 阿津 등 ‘阿’ 자를 세습해 쓰는 경우가 많은 것도 임성태자가 아좌태자(阿佐太子)와 동일인일 것이라는 추론을 보강한다. (이상 <그림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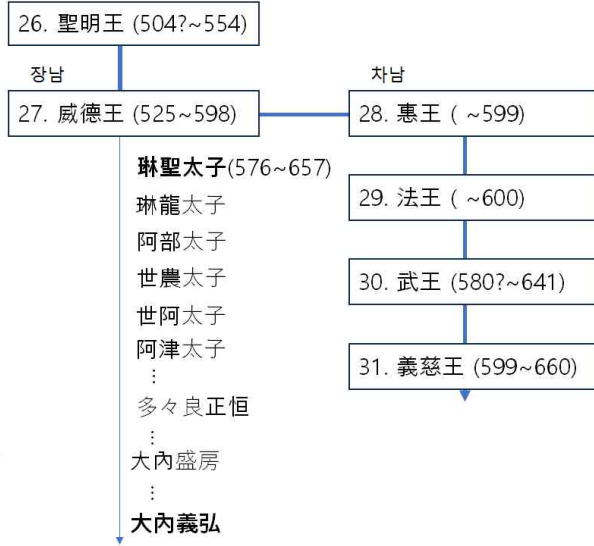
이상을 종합하면, 오우치 가에서 도래인 선조로 내세우는 임성태자는 성왕이 아닌 위덕왕의 아들이며, 『일본서기』에서 보이는 아좌태자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 일설에는 임성태자가 일본 쇼토쿠태자가 여래의 화신이라는 소문을 듣고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하고 있어<sup>16)</sup>, ‘임성태자=아좌태자 설’을 뒷받침한다.

16) 단종 1년 (1453년)에 오우치 노리히로가 보낸 사자가 조선에 와서 이 설을 언급했다. “다다랑씨(多多良氏)가 일본국(日本國)에 들어갔는데, 그 까닭은 일본에서 일찍이 대련(大連) 등이 군사를 일으켜 불법(佛法)을 멸(滅)하고자 하였고, 우리 나라 왕자 성덕 태자(聖德太子)는 불법(佛法)을 높히고 공경하였기 때문에 교전(交戰)하였으므로 이때 백제국왕(百濟國王)이 태자 임성(琳聖)에게 명하여, 대련(大連) 등을 치게 하였으니, 임성(琳聖)은 대내공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성덕 태자(聖德太子)께서 그 공을 가상히 여겨서 주군(州郡)을 하사한 이래로 그 거주(居住)하는 땅은 ‘대내공 조선(大內公朝鮮)’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대내 후손(後孫)의 부정(否定)이 있지만 기로(耆老)542) 가운데 박식하고 통달한 군자가 있어서 그 계보(系譜)가 상세합니다.” (단종실록6권, 단종 1년 6월 24일 기유 1번째 기사)

<그림1> 오우치씨 가계도  
(多多良姓大内氏家譜)

大内義弘 (제25대, 제18대, 제10대 당주)

- 사료로 확인되지 않는琳聖太子를 제1대 시조로 하는 경우 大内義弘는 제25대에 해당함
- 琳聖太子 및 이어지는 미확인 제2~7대를 제외하고 多々良正恒을 제1대로 하여 계산하는 경우 大内義弘는 제18대에 해당함
- 琳聖太子로부터 제16대인 盛房 때(12세기 후반)부터 본거지로 삼은 大内를 성으로 삼았으며, 그를 제1대로 하는 경우 大内義弘는 제10대에 해당함



(source) : 오우치씨 가계전승 및 백제왕가 계통도 등을 참고하여 필자 작성

## 2. 임성태자의 ‘가야후예설’

오우치씨 가계의 기록에 따르면, ‘임성태자’로 대표되는 한반도 도래인들이 일본에 불교와 함께 제철 기술을 전해 주었다고 하고 그 근거지가 된 곳이 다타라하마였다고 한다. 도일한 임성태자는 다타라하마에 자리를 잡아 다타라(多々良)씨를 하사받았으며, 제철기술을 전파하고, 불교, 칠성신 신앙을 확산시켰다고 한다. 고대 한반도의 제철 기술은 가야가 가장 앞섰고 그 중심지는 김해다. 고대 가야의 강역이었던 김해 지역의 기술이 일본으로 전래되어 다타라 제철 방식<sup>17)</sup>이 자리잡았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그럼 혹시 수수께끼의 인물인 임성태자가 혹시 백제가 아닌 가야의 인물이었다는 것은 아닐까?

오우치 가문 족보에 임성태자를 ‘百濟國馬韓皇帝齊王第二子’라고 표기한 대목이 있다. 이 문구에서 보이는 ‘백제국’과 ‘마한’의 관계에 대해 우선 검토해 보고자 한다. 신라말의 학자인 최치원(857~ ?)은 처음으로 마한-고구려, 진한-신라, 변한-백제로 파악하여 삼한을 삼국과 연계시켰다. 조선 초기에 와서 권근(1352-1409)은 『동국사략』에서 최치원과 달리, 마한-백제, 변한-고구려, 진한-신라로 비정했다.

삼한에 대한 인식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 한백겸(1552-1615)이 『동국지리지』에서, 삼한은 모두 한강 이남에 있으며 마한은 백제로, 진한은 신라로, 변한은 가야로 이어진다고 파악한 이래, 오늘날까지 정설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백겸 이래의 정설에 따르면 ‘百濟國馬韓’이라는 표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총 31대를 거친 백제의 왕 중에 ‘제왕(齊王)’으로 보이는 인물은 없기 때문에, 임성태자의 아버지인 ‘제

17) ‘다타라(多々良)’는 多々羅, 鑪, 鈿, 鎗, 踏鞴, 踏鞴라고도 표기하는데, ‘다타라제철(たたら製鉄)’이라는 고대 제철 방식을 말한다. 용철작업(融鉄作業) 시 송풍을 위해 풍로(鞴, 후이고)를 밟는 동작(踏鞴)을 다타라라고 한다. 일본 성씨 중의 다타라(鑪, 多田良, 多々羅, 多田羅, 田多羅, 太田良)씨가 이 제철 기술자들의 후예라고 일컬어진다.

왕'이 후일 백제에 복속된 가야의 어느 소왕국 군주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하겠다.

임성태자의 '가야출신설'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가야의 영역 중에 '다타라'의 연고가 될 만한 나라나 지역이 있어야 한다. 신라는 지증왕대(재위 500-514)부터 가야 방면으로 군사 활동을 활발히 했고 드디어 529년 법흥왕(재위 514-540) 시기에 신라 장군 이사부(異斯夫)가 3,000 여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다라원(多多羅原)에서 3개월간 주둔하며 가야를 공략했다.<sup>18)</sup> 그 결과 금관가야의 4개 촌을 침략하여 사람들과 재물을 빼앗아 신라로 가져갔다고 하는데 이 4개 촌이란 다다라(多多羅), 수나라(須那羅), 화다(和多), 비지(費知)라고 한다.<sup>19)</sup>

결국 금관가야의 구형왕(仇衡王)<sup>20)</sup>은 532년 신라에 항복하였다.<sup>21)</sup> 가야의 여러 나라 중 금관가야가 가장 먼저 신라에 복속한 것이다. 금관가야의 멸망을 전후하여 가야인의 대부분은 신라인이 되었으나, 일부는 백제나 왜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다다라원에 연고를 가진 가야인 일부가 왜국으로 건너가 정착하고 그 정착지를 다타라라고 부르는 연유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확인할 수는 없다. 신라에 자진 복속한 구형왕이 오우치가 문서에 나오는 '제왕(帝王)'인지의 여부도 알 수 없다.

임성태자 도래지 다타라와 연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야 지역명으로 다라(多羅)를 들 수 있다. 삼한시대 때 대가야 연맹에 속한 나라 중에 다라국(多羅國)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하는 사료가 있다. 이 다라국의 유래는 명확하지 않은데, 중국 양나라의 「양직공도」와 일본의 『일본서기』에 그 국명이 등장함으로써 존재가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양직공도」는 중국 양나라의 황제 소역(蕭繹, 508~555)이 백제 사신의 행차를 그린 문서로서, 521년부터 524년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그린 것이다. 양나라에 파견된 외국인 사절이 양 황제에게 공물을 드리는 장면을 묘사하고, 제기(題記)를 부가하고 있다. 현전하는 양직공도는 소역의 작품을 송나라때 모사한 것이라고 한다. 양직공도의 '백제국사(百濟國使)' 제기에, 백제에 부속된 나라로 반파(叛波), 탁(卓), 다라(多羅), 전라(前羅), 사라(斯羅), 지미(止迷), 마련(麻連), 상사문(上巳文), 하침라(下枕羅) 9개의 국가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일본서기』에는 “562년 봄 정월 신라가 임나관가(任那官家)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통틀어 말하면 임나이고 개별적으로 말하면 가라국(加羅國), 안라국(安羅國), 사이기국(斯二岐國), 다라국(多羅國), 졸마국(卒麻國), 고차국(古嗟國), 자타국(子他國), 산반하국(散半下國), 걸손국(乞淦國), 임례국(稔禮國) 등 모두 10 나라이다.”라고 하여, 소위 임나(미마나)를 구성하는 소국 중의 하나로 다라국(多羅國)을 들고 있다.

562년에 대가야 연맹이 신라에 복속되면서 가야는 한반도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여러 소국이 연합하였을 때 합천을 중심으로 한 다

18) 『우리시대의 가야사』, 한국고대사학회 편, 주류성, 2024

19) 신라의 공격을 받은 금관가야의 4개 촌에 대해, 금관(金官), 배벌(背伐), 안다(安多), 위타(委陀)라고 지칭하는 내용도 있다.

20) 구충왕(仇衡王) 또는 구해왕(仇亥王), 구차휴(仇次休)라고도 표기한다.

21) 『삼국유사』의 「가락국기」는 금관가야의 멸망 연대를 562년(진흥왕 23)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가야국 가운데 마지막으로 신라에 병합된 대가야의 멸망 연대가 562년임으로 해서 생긴 착오로 보인다.

라국도 그 대가야 연맹체의 일원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것이다.

### 3. 임성태자의 선착지 다타라와 다라국(多羅國)

스오(周防)의 다타라하마(多々良浜)에 정착해 다타라(多々良)라는 성씨를 하사받고 나중에 오우치(大内)씨의 선조가 된 임성태자가 백제의 왕자인지, 가야 다라국의 왕자인지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확정적인 정설은 없다.

일본 중세사 연구자인 후지이 다카시(藤井崇)는 그의 저서 『오우치 요시타카(大内義隆)』(2019)에서 임성태자가 “백제인이 아닌 금관인(金官人)의 후예일지도 모르나 지금 확인할 길은 없다.”고 하면서도, “고대 한반도의 남부에 있었던 금관국(金官國, 『일본서기』에서 말하는 임나제국)의 판도에 다라(多羅)라는 지역이 있다. 그리고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에 의하면 스오국 사바군에 達良郷(중세의 多々良莊, 야마구치현 호후시)가 있고, 거기에 사는 주민인 임나의 왕족이 긴메이(欽明) 천황 시대에 공적을 세워 ‘다타라노기미(多々良公)’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하여, 임성태자의 ‘가야출신설’을 옹호하고 있다.

한편 마쓰오카 히사토(松岡久人, 전 히로시마대학 교수)는 그의 저서 『오우치 요시히로(大内義弘)』(2013)에서, 『大内多々良氏譜牒』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오우치씨의 선조는 백제국 성명왕의 셋째 아들 임성태자로서, 스이코 천황 19년(611년) 스오(周防)국 사바(佐波)군 다타라하마(多々良浜)에 도착했으며, 세쓰(摂津)국 아라하카(荒陵, 오사카시 덴노지구 차우스산)에서 쇼토쿠 태자를 알현했다. 태자로부터 스오국 오우치 아가타(県)를 채읍으로 받고 다타라(多々良)라는 성을 하사받아 그곳으로 내려가 본거지로 삼았다.

마쓰오카는 이 기록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며, 애초 요시히로 대에는 자신의 “선조가 백제의 시조 고씨(高氏)의 후예로서 난을 피해 일본에 건너왔다.”는 정도의 전승만 가지고 있었으나, 그 후대로 가면서 임성태자 도래설, 쇼토쿠 태자와의 연관설 등으로 윤색되고,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한반도로부터 도래한 자가 다타라노기미(多々良公)이라는 성을 하사받고 야마시로에 살았다고 하는 것은 오우치씨의 선조에 대해 상고할 때 주목할만한 사실이라고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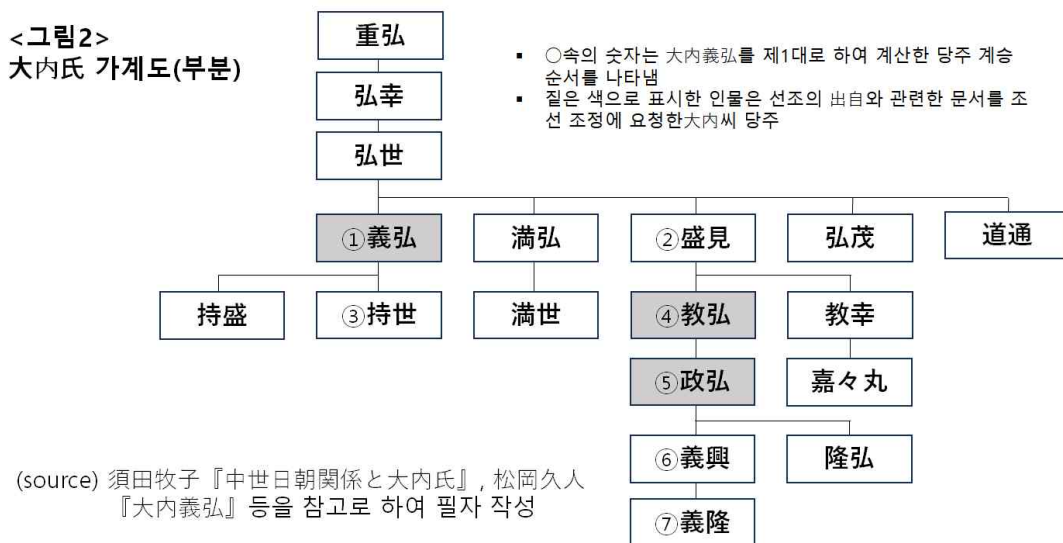
경상남도 합천군(陝川郡) 쌍책면에 다라리(多羅里)라는 마을이 있다. 또한 인근의 성산리(城山里) 옥전(玉田)골의 구릉지대에는 다수의 고분군이 있는데 그 발굴 결과 각종 중요한 유물 2,000여 점이 수습되었다. 이를 근거로 학계에서는 다라국을 합천군 쌍책면으로 비정한다. 이동희(인제대 교수)는 「다라국 위치의 재검토」라는 논문에서, 『日本書紀』에서 제3위로 거명된 다라국의 위세로 볼 때 옥전 고분군보다는 합천삼가고분군(합천군 삼가면) 지역이 더 걸맞다고 하여, 이견을 보이기도 한다.

최재석 전 고려대 교수는 일본 규슈에 위치한 아리아케우미 연안의 다량촌(多良

村, 타라무라)과 인근의 다량산(多良山, 다라산) 일대를 다라국으로 비정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규슈의 다라국과 경상남도 합천의 다라국을 동일한 권력층이 다스렸다는 것이다. 이는 곧 한반도 사람의 일본 도래설 혹은 왜의 한반도 지배설로 해석될 수 있다. 가야 제국과 왜, 혹은 임나와의 정치적 관계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4. 조선에 대한 오우치씨의 ‘백제후예설’ 제기 사례

오우치씨 가문에서 조선 조정에 대하여 자신들의 선조에 관한 주장을 전하고 조치를 요청한 것은 크게 세 차례였다. 그 내용을 시대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종1년 (1399년) 요시히로가 선조 관련 기록과 토전 하사를 요구한 것, ② 단종1년 (1453년)에 노리히로(大内教弘)가 ‘琳聖太子入日本之記’를 요구한 것, ③ 성종16년 (1485년) 마사히로(大内政弘)가 임성태자 앞 선조들의 이름 확인을 요구한 것이 그것이다. (<그림2> 참조)



본 연구의 목적은 물론 오우치 요시히로가 조선 조정에 자신의 선조가 백제 왕족 출신의 일본 도래인이라는 사실을 공식 문서로 확인하고 연고지의 땅을 하사해 달라고 요구한 정종1년 (1399년)의 사실(史實)에 대하여 그 배경과 목적을 밝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전제사항을 밝혀둘 필요가 있다. 하나는 오우치씨 가문의 세계확인 문서 하사 요청과 연고지의 토전 하사 요청은 분리해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우치씨의 세계 확인 요청과는 달리, 토전 하사의 요청은 1399년 단 한 차례에 그치고 다시 재론되지 않았다. 요시히로의 이 토전 하사 요청은 오에이의 난과 관련한 전투 수행상의 필요에 의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조선 전기 오우치씨 측의 선조 출자(出自) 및 세계(世系) 확인 요구는 요시히로 때를 포함하여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차이를 고려하여 호적 관련 문서와 토전의 요

구는 별도의 시각에서 검토해야 한다.

두 번째 전제사항은 ①정종1년 (1399년(에 요시히로가 요구한 ‘백제후예설’ 확인 문서 관련 사항은 ②단종1년 (1453년) 및 ③성종16년 (1485년)에도 점차 발전되어 가는 형태로 재론된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되는 일련의 사안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그 실체에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이다. ①에 대한 본격 검토는 후속하는 제 VI 절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이어지는 제III절에서는 주로 ② 단종1년 (1453년) 및 ③ 성종16년 (1485년)의 대 조선 요청과 관련한 당시 배경과 목적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오우치씨의 ‘세계(世系)확인’ 요구 경과

#### 1. 조선 전기의 조일관계와 거추사(巨酋使) 오우치씨

조선 전기의 조일관계는 조선의 해안을 노략질하는 왜구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하는 왜구금압 문제와 근린국 일본과의 공식적인 통교관계를 어떻게 제어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로 축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왜구금압 문제와 왜인 통제정책은 서로 밀접히 연관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일본의 대조선 관계는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이 독점한 것이 아니라 유력 슈고다이묘가 각각 독자적인 통교를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조선에 통교를 요구해 오는 슈고다이묘 등 호족 세력은 왜구 문제와 관련하여 무로마치 막부와 서로 협력하거나 또는 대치하는 관계에 있기도 했다. 그리고 그 호족 세력 스스로가 왜구 무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결된 경우도 있었다.

당시의 이런 복잡한 조일 관계에서 오우치씨는 매우 특수한 위치에 있었다. 규슈 및 서부 일본 지역에서 구축하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하여 오우치씨는 일본 내에서 왜구 세력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힘은 때로는 막부에 필적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수준이었다. 조선은 오우치씨가 보유하고 있는 왜구 금압 능력에 주목하고 이용하면서 그를 우호적으로 특별 대우했다.

오우치씨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힘의 원천 중 하나는 조선 조정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대 조선 교역 이권이였다. 오우치씨는 조선과의 특별한 관계에서 오는 이익과 영향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며, 이를 둘러싸고 주변 경쟁 호족이나 막부, 또는 막부의 서일본 내 통치기관인 규슈탄다이와 경쟁했다. 오우치씨가 스스로의 가문에 대해 ‘백제후예’임을 주장하고 이의 공식 확인을 조선에 문서로 요청한 일련의 사례는 이와 같은 역학관계와 배경을 염두에 두고 고찰해야 한다.

조선 전기의 통교 왜인의 대표적인 예가 거추사(巨酋使)였다. 거추사는 오우치, 쇼니(少弐) 등 일본 서부 지역의 대호족과, 하타케야마(畠山), 호소카와(細川), 시바(斯波) 등 3관령(三管領), 교고쿠(京極), 야마나(山名) 등 유력 슈고다이묘의 사절을 말한다. 조선 성종 2년(1471년)에 신숙주가 간행한 『해동제국기』에 이 7개 씨족이 거추사로 지정되어 있다. 이 7개 씨족 중에서 오우치씨는 단연 두드러진다. 오우치와 쇼니를

제외한 다섯 개의 재경 슈고 세력은 처음부터 거의 실체가 없는 통교 주체였으며, 실제 통교 건수도 오우치씨와는 비교가 되지 못했다. 또 쇼니씨는 1429년 치쿠젠국이 막부료국화(幕府料國化)하면서부터는 점차 세력을 잃어, 15세기 후반에는 오우치에 압도되었다. 오우치씨는 사실상 일본 국왕에 이은 유력 정치 권력으로서 대조선 교섭을 행했고, 그 통교의 밀접도에서는 일본 국왕을 오히려 능가할 정도였다. 거추사가 왕래하던 조선 초기에 조선 조정이 취한 왜인 통제책의 추이를 간략히 살펴보자.

### (1) 서계제(書契制)

일본 각지로부터 도항하는 왜인의 증가는 조선 정부의 치안상 우려와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조선 정부는 확대하는 왜인의 통상요구를 억제하기 위해 1419년 기해동정(세종 1년 이종무가 이끈 제3차 대마도정벌) 이후 서계제(書契制)를 도입했다. 서계는 일본인 통교자가 조선 정부 앞으로 발송하는 일종의 외교문서이다. 조선에서 이 서계를 입국 증명으로 간주하여 사송선에 대한 통제 방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규슈 사람이 통교하고자 할 때는 규슈탄다이의 서계를, 대마도 사람이 통교할 때는 대마도주의 서계를 휴대하도록 했다.<sup>22)</sup>

### (2) 수도서제(受圖書制)와 문인제(文引制)

그러나 서계제가 일본 통교요구자의 쇄도 제한과 통상 질서 개선에는 그다지 실효적으로 기능하지 못했다. 대마도주의 정치적 불안정과 규슈탄다이의 지배력 약화 때문이었다. 조선에서는 서계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도서제(受圖書制)를 실시했다. 수도서제란 통교상 공로자나 조선에 복속하기를 희망하는 자를 회유하기 위한 제도이다. 도서는 그들에게 통교 증명 용도로 만들어준 구리 인감(銅印)으로서 1418년(세종 원년) 미마사카(美作)의 태수 정존(淨存)에게 준 것이 최초의 사례이다. 도서를 받은 일본인을 수도서인(受圖書人)이라고 하는데, 조선에 내조할 때 서계에 이 도장을 찍어 증거로 삼았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문인제(文引制)가 있다. 문인은 조선시대에 사용된 통행증이나 입국증 같은 것으로서, 통교무역자에게는 문인을, 국내통행시에는 노인(路引)을 발급했다. 노인은 행장(行狀)이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1426년(세종 8년) 대마도주인 소사다모리(宗貞盛)의 요청에 의해 검토되었으며, 1438년(세종 20년) 대마도주와 문인제도를 정약하면서 본격 실시되었다. 조약의 주 내용은 종래 여러 호족에게 허용되었던 문인 발행권을 대마도주에게만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상아부(象牙符)나 통신부(通信符)를 가진 일본국왕사(日本國王使)와 일부 거추사를 제외한 모든 통교자는 대마도주가 발급하는 문인을 가져야만 접대를 받고 교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문인이란 대마도의 소씨(宗氏)가 발행하는 도항증명서

22) 1420년(세종 2년) 예조판서 허조(許稠)는 규슈탄다이 시부카와 요시토시(渋川義俊)에게 보내는 답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구주 경내 여러 주의 태수가 사사로이 각자 사람을 보낸 체통이 없는 것 같으므로, 만일에 사람을 보내어 예를 행하려는 이가 있으면, 반드시 총관공의 서신을 받아 가지고 와야만 비로소 예로써 대할 것이니, 금후에 행례하고자 하는 이가 있거든, 공이 마땅히 전번 편지에 말한 대로 시행하여 체통을 엄하게 하시오.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7월 6일 임신)

이다. 도항왜인에 대한 이런 통제책은 기본적으로 통교무역 희망자에 대한 제어 권리를 대마도주에게 위임한다는 형식이었다. 조선으로서는 대마도를 활용하여 일반 왜인의 통교요구를 제한하고자 했지만, 대마도주는 이를 이용하여 대마도내의 지배력을 장악하려 하였고, 문인발행 수수료, 교역물품에 대한 과세 등을 통해 대조선 통교의권익과 교역상의 이익을 향유했다. 따라서 문인제 또한 통상확대의 방지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 (3) 세견선정약

조선으로서는 통교자의 도항 회수, 세견선척수, 교역량 등을 직접 통제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세견선정약과 접대 규정 정리로 나타났다. 우선 1441년 (세종 23년)에는 조선과 대마도주가 고초도조어금약(孤草島釣魚禁約)을 체결하여, 어로 왜인들에게 대마도주로부터 조어문인(釣魚文引)을 받도록 했다. 세견선의 시초는 1424년 (세종 6년) 규슈탄다이에게 봄 가을 2회의 세견선 파견을 허용한 것이었는데, 본격적으로 운용된 시기는 1443년 (세종25년) 계해약조에 의해 대마도주와 세견선의 척수를 확정하면서부터이다.

계해약조는 대마도체찰사 이예(李藝)가 소 사다모리와 맺은 조일간 최초의 성문약조이다. 세견선의 척수를 50척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었고, 그 대신 쌀과 콩을 하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특송선을 허락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계해약조는 조선 초기 대일본 통교체제의 기본 약조가 되어, 이를 계기로 세조대에는 소씨, 수도서인, 수직인 및 기타 여러 호족들과 사송선에 대한 정약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일본국왕사 6척, 거추사 20척, 규슈탄다이 30척, 수직인 27척, 수도서인 15척이라는 세견선 상한이 정해졌다. 문인제는 대마도주를 통해 통교왜인을 통제할 목적으로 도입된 반면, 계해약조는 대마도주의 통교를 제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 2. 1453년 노리히로의 ‘임성태자 후예설’ 주장

이상에서 1419년 (세종 2년) 서계에 관한 약조, 1438년 (세종 20년) 문인제도 정약, 1441년 (세종 23년) 고초도조어금약, 1443년 (세종 25년) 계해약조와 같은 통교질서 정비 조치가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대략 삼포왜란(1510년) 전까지 서계, 도서, 행장, 노인, 문인 같은 수단들이 순차적으로 사용되거나 혼용되면서 활용되었고, 1438년 이후에는 대부분 문인으로 일원화되어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위사(僞使)라고 불리는 통교위반자의 문제는 근절되지 않았다. 15세기 후반에는 가짜 거추사가 횡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로마치 막부 제8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마사(足利義政)의 제안에 따라 아부제(牙符制)를 도입하여 1474년부터 시행했다. 아부제란 통교를 할 때 통상 소지하는 서계, 문인 등 도서(圖書) 이외에 조선측이 지급한 통교증명 표식으로서, 상아로 만든 아부(牙符)를 휴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조선은 요시마사가 아부를 장악하고 각 거추(巨酋)들에게 제한적으로 분배함으로써

통교의 질서를 확립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요시마사는 이 아부를 틀어쥐고 신청자들에게 순번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쇼군이 아부의 분배권을 장악한다는 것은 당시 거추사의 필두 위치에 있던 오우치씨에게는 위협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우치씨는 이에 앞선 1453년 조선 측으로부터 통신부(通信符)라 불리는 동인(銅印)을 하사받았기 때문에 이 아부제의 규제를 벗어나 존재할 수 있었다. 오우치씨가 독자의 통교증명을 받은 것은 제13대 당주인 오우치 노리히로(大内教弘) 때의 일이었다.

오우치 노리히로(大内教弘)는 스오, 나가토, 치쿠젠, 부젠의 4개 구니를 영지로 다스린 오우치가의 제13대 당주였으며 대외 교역 확대에 힘을 쏟았다. 당주로 취임한 1442년에는 막부의 명에 따라 규슈단다이 시부카와 노리나오(渋川教直)와 함께 쇼니 노리요리(少弐教頼)와 교전했는데, 쇼니가 소씨(宗氏)의 쓰시마로 도망하자, 그를 토벌하기 위해 조선에 대해 쓰시마의 일부 할양을 제안한 것으로 유명하다. 노리히로가 이끄는 오우치씨는 조선과의 교역 이익을 둘러싸고 호소카와씨(細川氏)와 싸워 승리한 바도 있다.

노리히로는 명과의 교역에도 적극 참여한 인물로 알려진다. 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가 화재로 소실된 덴류지(天龍寺)의 재건 비용을 조달하고자 명과의 교역을 희망하는 제세력에게 일명감합(日明勘合)을 팔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견명선 파견을 기획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 노리히로는 견명선 사업 참여를 위해 하카타의 상인들과 결탁했다. 이처럼 15세기 후반 이후에 오우치씨는 종전의 대조선 무역에 추가하여 명과의 교역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조선의 우대를 받는 거추사 오우치씨의 이름을 사칭한 가짜 사절이 횡행하자 진위를 판별하기 위해 1453년(단종1년) 7월 조선 국왕으로부터 통신부(通信符)를 수여받았다. 오우치씨가 받은 통신부는 다른 일본인들이 받았던 도서와는 전혀 다른 특수한 것이었다. 바로 그 1달 전에 노리히로는 사자 유영(有榮)을 조선에 보내, “백제국왕이 태자 임성(琳聖)에게 명하여, 오무라지(大連) 등을 치게 하였으니, 임성은 대내공(大内公)입니다.” 라며 오우치씨의 ‘임성태자 후예설’을 조선에 알리며 이의 확인을 요청했던 것이다. 54년 전인 1399년에 요시히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오우치씨의 ‘백제 온조왕 후예설’을 제기하고 확인 문서를 요청한 것과 매우 유사한 상황인 것이다.

### 3. 1485년 마사히로의 임성태자 선조 ‘國史’ 확인 요청

1485년 오우치 마사히로의 사신 파견은 1399년의 요시히로, 1453년의 노리히로에 이어, 오우치씨 측이 자신들 선조의 ‘백제후예설’을 공식 제기하고 조치를 요청한 세 번째 사례이다. 오우치 마사히로(大内政弘)는 노리히로의 뒤를 이어 제14대 오우치씨 당주가 된 인물이다. 선대 때와 마찬가지로 조일무역, 명일 감합무역을 둘러싸고 간레이인 호소카와 가쓰모토(細川勝元)와 대립했다.

뿐만 아니라, 1465년 아버지 노리히로가 사망한 후에는 자신의 백부에 해당하는 오우치 노리유키(大内教幸, 법명은 道頓)와 가독 계승 분쟁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화평이 성립하여 1477년 노리유키의 뒤를 이어 가독을 계승했다. 그 후에도 노리유키는 막부의 뒷배를 이용하여 조선과 독자적인 세견선 약정을 맺고 1년에 1척 꼴로 통교를 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위사(오우치 명의의 가짜 통교자)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던 거추사 마사히로는 노리유키의 대 조선 독자통교를 제압하고 자신의 위상과 정통성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었다.

1485년 (성종 16년)은 조선시대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을사본)이 완성되어 처음 시행된 해이다. 이 『경국대전』은 조선 세조 대에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 대에 들어 완성, 반포된 것이다. 『경국대전』의 시행과 함께 거추사에 관한 규정이 달라졌다. 1471년 (성종 2) 신숙주가 왕명을 받아 편찬한 『해동제국기』에서 확인되는 사송인 등급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본으로부터 오는 사신은 크게 일본국왕사(日本國王使), 거추사(巨酋使), 구주절도사(九州節度使) 및 대마도특송사(對馬島特送使), 제추사(諸酋使)의 네 등급으로 나뉘어 있었다. 제추사란 소호족(小豪族), 수직인(受職人), 수도서인(受圖書人)의 사절을 말한다.

1485년부터 적용되는 신규 『경국대전』에는 일본국왕사와 거추사 사이에 일본국제대신사(日本國諸大臣使)가 새로 생겨났다. 사송인의 접대 규정을 기존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일본국제대신사는 과거의 거추사에 준하는 대접을, 그리고 새로운 규정에서의 거추사는 과거의 구주절도사 및 대마도특송사에 준하는 대접을 받는 것으로 격하되었다. (<표1> 참조)

<표1> 『경국대전』 시행에 따른 거추사의 지위 변화

『해동제국기』	『경국대전』
日本國王使	日本國王使
巨酋使	日本國諸大臣使
九州節度使 및 對馬島特送使	巨酋使
諸酋使	九州節度使 및 對馬島特送使
	諸酋使

(source) 필자 작성

거추사의 응대를 받는 씨족의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1485년 (성종16년)부터 시행되는 규정에서는 거추사에서 쇼니씨가 빠지고 시부카와(渋川), 이세(伊勢), 가이(甲

斐)씨가 포함되어 9개 씨족이 되었다. 성종 중기 이후로는 기존의 거추사 중에서 오우치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모습이 사라진다. 이들 세력이 오닌의 난(1467년) 이후 몰락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의 거추사 관련 규정이 바뀌고 사신 응대 방식이 달라지는 변동기에 거추사의 필두 지위에 있던 오우치씨의 초조감은 가히 짐작할 만하다. 일본 내에서의 마사히로의 통솔력이 흔들리며 영국 지배가 여의치 않은 상태로, 조선과의 통교에서도 거추사로서의 위상이 추락해 가던 바로 이런 시점에 마사히로는 조선에 사자로서 원숙(元肅)을 파견하여, 임성태자보다 앞선 선조들의 이름을 비롯한 역사적 사실들(‘國史’)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백제의 왕자가 일본에 내조한 후 900년이 되도록 면면히 이어져 지금의 오우치씨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했다.

위사 문제가 여전한 데다가 조선의 거추사관련 규정이 바뀌고 사신 응대 방식이 달라지는 변동기에 거추사의 필두 지위에 있던 오우치씨 측에서 일종의 초조감을 가지고 있었으리라는 것은 가히 짐작할 만하다. 그와 같은 상황 타개책의 일환으로 마사히로는 조선에 자신 가문의 특별한 연고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마사히로의 요청을 받은 조선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주몽의 고구려 건국설화, 온조의 백제 건국설화와 성명왕에 이르기까지의 약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은 오우치씨 가문의 「가보(家譜)」에 전제되었다.

1485년에 오우치 마사히로가 조선에 임성태자 이전 선조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한 ‘국사’ 요구는 그 이듬해인 1486년에 오우치씨의 우지데라(氏寺)인 고류지(興隆寺)를 칙원사(勅願寺)화 하면서 가문의 족보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다. 무로마치 막부의 제8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足利義政)의 명을 받은 도톤과 가독 계승 전투까지 치르며 분열했던 마사히로는 가문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약화된 권력을 보강하기 위해 고류지의 칙원사 지정, 가보 정리 등을 추진했고 그 ‘재료’를 조선에서 구했던 것이다. 즉 그의 가계 정보 정비작업은 조선 조정과 국내 영국(領國) 모두를 위한 양동작전이었다.

#### 4. 오우치씨 가계 분식(粉飾) 과정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되는 오우치씨의 대 조선 요구 내용을 보면, 적어도 오우치씨 측에서는 자신의 선조를 백제계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조선 조정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절박하게 노력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고 요청하는 내용의 추이를 보면, 시기에 따라 미묘한 변화와 경향성이 감지된다. 오우치씨 측이 조선 조정에 사전 정보로 전하는 내용이 점차 세세해지면서 조선에 요구하는 사항도 점차 구체적인 내용으로 파고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① 정종 1년의 경우에는 요시히로 측에서 자신들의 시조가 백제 온조왕의 후손인 고(高)씨인데, 난(難)을 피하여 일본으로 도래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니 가르쳐 달라는 어조로 확인 요구를 했다. ② 단종 1년에 찾아온 노리히로의 사자는 오우치가의 선조가 임성태자임을 밝히면서, 백제 국왕의 명에 따라 일본 성덕

태자의 불교 관련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되었다고 상세 정보를 전하며 이의 확인을 요청했다. ③ 성종 16년에 마사히로의 사절이 왔을 때는 조선 조정에게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전한다. 즉 임성태자의 선대 조상들 이름(휘)을 열거하며 그들보다 앞선 임금들의 명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특히 ③의 마사히로 사절은 오우치씨 측에서 임성태자보다 앞선 조상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를 백제 왕가 계통에서 찾아보면,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지만 유사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실제의 백제 왕의 세계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오우치씨 측은 “임성(琳聖)의 아버지는 여장(餘璋)이라 하고, 장(璋)의 아버지는 여창(餘瑒)이라 하고, 창(瑒)의 아버지는 여경(餘慶)이라 하는데” 그 위로는 알지 못하니 가르쳐 달라고 요구했다. 임성의 아버지를 장(璋)이라고 했으나, 장이라는 이름은 30대 무왕의 경우에 가서야 나타난다. 임성태자에 관한 오우치가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임성이 일본에서 활동하던 시기(611년 도일, 657년 사망)에 무왕(재위기간 : 600-641)이 백제의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생긴 오해일 수도 있겠다. 장(璋)의 아버지를 창(瑒)이라고 했는데, 창(瑒)은 백제 세계의 기록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위덕왕의 이름이 창(昌)이다. 위덕왕은 임성의 아버지로 추정되기도 하는데, 무왕이 또한 위덕왕의 서자라는 설도 있어서 이로 인한 착오일 가능성도 있다. 창(瑒)의 아버지를 경(慶)이라고 하는 부분은 더욱 확인할 길이 없다. 훨씬 선대인 21대 개로왕의 이름이 경(慶)이기는 하나, 위덕왕은 개로왕의 증손에 해당할 정도로 시기상 격리가 있다. 백제 왕의 휘 모두 앞에 여(餘) 자를 붙이고 있는 것은 임성태자를 포함하는 계열의 백제왕가의 성씨가 부여(扶餘)이기 때문일 것이다. (<표2> 참조)

<표2> 백제 후기 왕호 및 휘(諱)

왕호	이름(휘)	재위년간
21. 蓋鹵王	慶司, 慶	455-475
22. 文周王	文周, 文園, 牟都, 都	475-477
23. 三斤王	三斤	477-479
24. 東城王	牟大, 摩牟, 麻帝, 大	479-501
25. 武寧王	斯麻, 隆 (근지 또는 개로왕의 아들)	501-523
26. 聖王	明禮, 明, 聖明 (무령왕 아들, 개로왕 손자)	523-554
27. 威德王	昌 (성왕의 장남, 개로왕 증손)	554-598
28. 惠王	季	598-599
29. 法王	宣, 孝順	599-600
30. 武王	璋, 穉童 (위덕왕의 서자 說)	600-641
31. 義慈王	義慈	641-660

(source)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을 참고로 하여 필자 작성

#### IV. 1399년 요시히로의 '세계(世系)확인' 요구의 배경과 목적

##### 1. 시대적 배경 개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오우치씨 측에서는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조선에 사신을 보내 오우치 가문이 7세기 경에 일본에 도래한 백제 왕가의 후예를 선조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요청했다. 즉 1399년 정종 때에 오우치 요시히로(10대 당주), 1453년 단종 때에 오우치 노리히로(13대 당주), 그리고 1485년 성종 재위시의 오우치 마사히로(14대 당주)가 사신을 파견한 당주들이다. 오우치씨 측이 세 차례의 사행에서 개진한 내용은 서로 조금씩 다르고, 조선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배경이나 목적도 서로 다를 수 있겠으나,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볼 수는 없다. 시대를 관통하면서 유지되는 하나의 흐름과 경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요시히로는 요시미쓰와의 통교 주도권 등을 놓고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서 세계확인 문서를 요청했고, 노리히로는 위사(가짜 거추사)가 발호하는 중에 오우치씨의 지위를 확인받는 과정에서 '임성태자 후예설'을 제기했으며, 마사히로는 『경국대전』의 시행으로 거추사의 위치가 추락하는 장면에서 선조 '국사' 정보를 요청했다는 점을 특기할 만하다. 본 제 IV절에서는 이런 일련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1399년에 오우치 요시히로가 백제의 고(高)씨 온조왕에서 연원하는 도래 선조의 후예임을 주장하며 그 확인 문서와 함께 연고지의 토전(土田)을 달라고 요구한 사례에 집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399년 (오에이 6년)은 오우치 요시히로가 무로마치 막부의 제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의 대군과 충돌한 소위 오에의 난에서 전사한 해이다. 막부의 쇼군 요시미쓰는 14세기 말부터 15세기에 걸쳐 교토에 본거지를 두고 중앙권력을 휘두르며 지방 다이묘들을 압박했다. 이에 저항한 오우치 요시히로는 1399년 센슈(지금의 오사카 지역) 사카이에서 막부군과 최후의 결전을 치르고 전사했다. 1399년 12월 21일(양력 1400년 1월 17일)의 일이다.

요시히로의 사자가 조선에 와서 오우치씨 가문이 온조왕의 후예임을 확인해 줄 것과 옛 백제지역의 토전을 요구하여 이를 조정에서 논의한 내용이 정종 1년(1399년) 7월 10일자 실록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요시히로가 전사하기 불과 5개월여 전의 일이다. 오우치씨 측이 조선에 선조 도래 사실 확인과 땅을 요구한 것은 요시히로가 오에이의 난에서 아시카가 요시미쓰 막부측과 최후의 결전을 치르던 사정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우선 가능하다.

무로마치 막부의 제3대 쇼군 요시미쓰와 오우치 요시히로가 대립하면서 쟁패를 위

한 결전을 치르게 되기까지의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시미쓰는 권력의 정점에 있던 오에이 2년(1395) 6월 출가를 단행했다. 그의 출가는 권력을 내려놓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세속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강력하게 권력을 행사하기 위함이었다. 요시히로도 요시미쓰 출가 한 달 후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다. 이 시기까지도 요시히로는 무로마치 정권의 충실한 다이묘 중 한 명이었다.

양자가 본격적으로 대립하게 된 계기는 오에이 4년(1397년)에 요시미쓰가 기타야마의 로쿠온지(鹿苑寺) 조영을 시작하며 전국의 다이묘들에게 노력 공출을 요구하면서부터이다. 많은 다이묘들이 조영 공사에 동원되었지만, 유독 요시히로는 “무사란 활과 화살을 들고 임무를 다하는 것이 본분이다.”라며 무인으로서의 신념을 내세우며 응하지 않아, 요시미쓰의 불만을 샀다.

요시히로는 그해 말에 쇼니 사다요리(少弐貞頼)를 토벌하라는 쇼군의 명을 받고 동생인 미쓰히로(満弘), 모리하루(盛見)와 함께 출진했다. 쇼니씨의 반격으로 고전을 거듭하다가 미쓰히로는 치쿠젠에서 전사했다. 그러나 쇼군 요시미쓰는 이에 대한 은상을 베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은 비밀리에 쇼니 사다요리에게 내통해 오우치를 토벌하도록 음모를 꾸몄다는 소문마저 돌았고, 요시히로는 이에 격분했다.

요시히로는 오에이 5년(1398년) 드디어 쇼니씨를 쳐부수고 전사한 동생 미쓰히로의 원수를 갚았다. 유력 다이묘의 약체화를 피하고 있던 쇼군 요시미쓰는 요시히로의 세력 확대를 두려워하며, 쇼니씨 평정을 끝낸 요시히로에게 교토로 상경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압박했다. 쇼군의 속셈을 의심한 요시히로는 당연히 이에 응하지 않았다. 쇼군의 압박을 견디다 못한 요시히로는 궁지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거병하여 요시미쓰 막부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고 결심하고 세력 규합에 나섰다. 오우치 요시히로는 결국 오에이 6년(1399년) 10월 중순경 군세를 이끌고 사카이를 향해 진군하기에 이르렀다. 소위 오에이의 난 전투가 시작된 것이다.

오우치씨의 사자가 조선 정종을 알현하고 자기들 선조에 관한 기록과 토전을 요구한 1399년 여름은 요시히로에 대한 쇼군의 압박이 계속되고, 이에 대항하여 요시히로가 반막부 세력의 결집을 진행하던 바로 그 시기에 해당한다. 건곤일척의 대회전을 앞두고 전운이 짙어가던 이 시기에 오우치 요시히로가 조선에 사자를 보냈으므로, 일단은 그 사절의 목적이 오에이 난 전투 준비와 관련이 깊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이 점을 언급하고 있다. 요시히로가 막부 측의 공격을 받거나 최종 패전하는 경우, 요시히로가 조선 내에 확보한 땅을 퇴각지나 망명 근거지로 삼고자 했다는 해석이다.<sup>23)</sup>

필자가 우선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오우치씨 측에서 하사해 달라고 요구한 두 가지 즉, 가문의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와 백제의 땅은 별개의 사안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1453년에 노리히로의 ‘琳聖太子入日本之記’ 요구,

23) 송중호, 강상운, 사토 신이치(佐藤進一), 한윤희, 나가무라 히데타카(中村栄孝) 등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송중호는 「정종 원년(1399) 등시라로 왜구 집단 투항과 오에이의 난」(『한일관계사연구』 84, 한일관계사학회, 2024)에서 “... 1399년 7월 10일, 그는 아시카가 요시미쓰에 대한 모반을 염두에 두고 조선 조정에 본관과 토전을 요구하고 있다. ... “이 중 토전을 요구했던 것은, 오우치 요시히로가 막부에 대한 모반이 실패했을 때 퇴각하여 머물 근거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어 1485년 마사히로의 ‘國史’ 요구로 이어지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오우치 가문의 지속적인 요청 사항이었지만, 후자의 토지 건은 1399년 요시히로의 요구 이후 다시 재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오우치 가문의 연고지라고 주장하는 지역의 땅을 달라는 요청은 1399년 당시의 상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오우치씨의 ‘백제후예’ 확인 문서는 당시의 사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이다. 그리고 오우치씨에 있어서는 가문의 출자 기록이 땅의 확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항이었다. 그래서 요시히로의 사신으로 온 사승도 “사사(使司)에서 … 토전을 준다는 일을 말하니, 만일 세계(世系)를 명시(明示)하여 주시면 전지를 주지 않더라도 또한 좋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1399년 5월<sup>24)</sup>~7월의 외교 사안은, 오우치씨의 토전 하사 요구가 오에이의 난과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오우치 가문의 출자 확인 문서 요구의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가의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 2. 요시히로의 토전 하사 요구와 오에이의 난의 관련성

정종1년 (1399년) 오우치 요시히로는 조선에 사신을 보내, 요시히로가 가계와 출자(出自)를 표기한 문서와 땅(土田)의 하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선왕조실록』의 해당 기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義弘請云“我是百濟之後也.日本國人不知吾之世系與吾姓氏, 請具書賜之.” 又請百濟土田<sup>25)</sup>

의홍이 청하기를, "나는 백제의 후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나의 세계(世系)와 나의 성씨(姓氏)를 알지 못하니, 갖추어 써서 주시기를 청합니다." 하고, 또 백제(百濟)의 토전(土田)을 청하였다.

즉 자신의 가계인 오우치씨가 백제 도래인의 후예라는 점을 들어 백제의 토전을 하사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가문의 전승을 근거로 연고지의 땅을 달라고 하는 요구는 매우 특이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다. 조선 조정의 신하들도 우리의 땅을 외국인에게 주는 것은 불가하다(“以我之土田, 與彼之人, 一不可也”)는 등 소위 ‘칠불가론(七不可論)’으로 극력 간언하여 토지 하사 건은 결국 불발에 그쳤다.

오우치씨 측이 ‘백제의 토전’을 얼마만큼 요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조정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 박석명(朴錫命) 등이 상소한 글에서, “지금 육주목(六州牧) 의홍(義弘)이 적을 토벌한 공이 있고, 백제(百濟) 고씨(高氏)의 후손이라

24) 요시히로의 토전 하사 요청이 언제 최초로 이루어졌는지는 특정할 수 없다. 1399년 5월 박돈지(朴惇之)가 일본(日本)에서 돌아올 때 요시미쓰 및 요시히로가 보낸 사자도 동행했으나, 그때의 일을 전하는 실록 기록(『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5월 16일 을유 3번째 기사)에도 토전에 대한 언급은 없다. 스다 마키코가 『中世日朝關係と大内氏』(39쪽의 <표1>)에서 5월에 요시히로의 사신이 ‘토전 등의 하사를 요청했다.’고 한 내용은 오류이다. 토전 요구에 관한 어전회의 기록은 정종1년 7월 10일이 처음이다.

25)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7월 10일 무인 6번째 기사 (1399년)

고 칭한다 하여, 전지 3백 결(結)을 주어 채지(采地)를 삼게 하니…” 라고 하고 있어 논의 대상이 된 땅의 규모가 300 결인 것을 알 수 있다. 300 결이라는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확인해 보자.

토지 1 결은 어느 정도의 넓이일까? 결(結)은 농토의 넓이를 나타내기 위한 단위이지만, 세금을 거두기 위해 토지면적을 재는 단위로서 토지의 비옥하고 척박한 정도에 따라 실지의 면적은 달라진다. 시대에 따라 정확한 넓이는 변화하였는데, 대략 농가 한 가구에 나누어 줄 정도의 면적으로서 300두를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었다.<sup>26)</sup> 정종 때 오우치씨 측에 공여하고자 논의했던 토전의 넓이가 300결이었으므로 대략 300만 m<sup>2</sup> 정도의 땅을 염두에 두었던 듯하다. 1등전 기준으로는 약 100만 평, 하등전이라면 약 200만 평 정도에 해당한다.

완산에 약 100~200만 평의 토지를 하사받는 경우 오우치씨 일파가 퇴각해 자리를 잡고 반격을 도모할 만한 위치와 규모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 단, 요시히로가 요시미쓰와 대립하거나 군사행동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조선으로의 퇴각이나 망명지 활용을 염두에 둔 듯한 언동은 사료상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오에이키』에서 스에 히로나가(陶弘長)가 패색이 짙어진 요시히로에게 “이 자리를 피해 밤을 기다려 주고쿠로 돌아가 재기를 노리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하며 권했을 때에도 요시히로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며 적진에 뛰어드는 무장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일본인의 성정상 ‘토지’는 특별한 존재일 수 있다. 잇쇼켄메이(一所懸命)라는 말로 표현되듯<sup>27)</sup> 토지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대상이며, 일본 무가 세계의 주종관계나 군신 관계가 토지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토전을 달라는 뜻은 당신을 주군으로 모시겠다는 의미로 확대해석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요시히로 측의 토전 하사 요청을 그렇게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오에이의 난을 치르는 요시히로가 한반도 내의 고지(故地) 확보를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선에 사신으로 온 사승이 토전을 주는 일에 대해 그다지 연연해하지 않는 것을 보아도 그것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에서 수락하면 좋고 안 돼도 무방하다는 정도가 아니었을까?

오히려 오우치 요시히로가 사신을 보낸 더 큰 속내는 자신이 백제 왕족의 후예임을 나타내는 문서를 받기 위함이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문서 요구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

### 3. 요시히로의 ‘이미지메이킹’ 전략

우선 요시히로가 조선 조정에 사자를 보내 ‘백제후예설’을 주장하며 그 확인 문서 하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해 보자.

26) 고려 문종 때는 상등전, 중등전, 하등전으로 나누었고 중등전1결 = 하등전1결의 25/36, 상등전 1결 = 하등전 1결의 16/36에 해당하였다. 조선 세종 26년(1444년)에는 6등급으로 세분화했는데, 1등전1결의 넓이는 고려 하등전1결의 2/3로서 9,859.7 m<sup>2</sup>이었다. 인조 12년(1634년)부터는 1등전1결의 넓이가 10,809 m<sup>2</sup> (3,268평)이 되었다.

27) 중세 일본의 무사들이 자신의 영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던 것에서 유래하여, ‘영지 하나를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뜻이었으며, 현대적 의미로는 ‘평생 한 가지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일본 좌경 대부(左京大夫) 육주목(六州牧) 의홍(義弘)이 구주(九州)를 쳐서 이기고 사자(使者)를 보내어 방물(方物)을 바치고, 또 그 공적을 말하였다. 임금이 의홍(義弘)에게 토전(土田)을 하사하고자 하다가, 첨서중추원사(簽書中樞院事) 권근(權近)과 간관(諫官)의 의논으로 그만두었다. 의홍이 청하기를, “나는 백제의 후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나의 세계(世系)와 나의 성씨(姓氏)를 알지 못하니, 갖추어 써서 주시기를 청합니다.” 하고, 또 백제(百濟)의 토전(土田)을 청하였다. 임금이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 내려 그 가문의 세계를 상고하게 하니, 세대가 멀어서 징험할 수가 없었다.<sup>28)</sup>

요시히로는 조선에 보낸 사신의 말을 통해, “일본 사람들이 나의 세계(世系)와 나의 성씨(姓氏)를 알지 못하니, 갖추어 써서 주시기를 청합니다.(日本國人不知吾之世系與吾姓氏, 請具書賜之)” 라고 하여, 주변에서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상황을 답답해 하며 개선하고자 하는 의향을 내보였다. 요컨대 일본에 있는 사람들(日本國人)이 알아주지 않으니 증거가 될만한 문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다. 그러면 요시히로는 자신이 백자 왕가의 후손임을 일본의 누가 알아주기를 바랐던 것일까?

몇 가지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설1】 요시히로의 사신이 왕래하던 1399년 여름 당시는 막부군과의 결전을 목전에 둔 시기였다. 천하를 놓고 겨루는 상대이자 ‘일본국왕’을 자처하는 쇼군 요시미쓰에게 자신이야말로 백제 왕족의 후예임을 드러내고 싶어했을 수 있다. 【가설2】 또는 쇼군과의 최후의 일전을 앞두고 주변 호족이나 유력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는 대 조선 통교상의 우위 유지를 위해 자신의 가격(家格)과 위세를 높이고자 했을 수도 있다. 【가설3】 그리고 조선과의 교섭이나 무역권을 놓고 경합관계에 있었던 규슈탄다이에 대해 자신의 우위를 드러내고 싶어했을 수도 있다.

과연 거기에 그치는 것일까? 요시히로의 ‘백제후예’ 주장에 대해 검토할 때 당시 그의 입장과 활동 환경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우선적으로 그와 경합관계에 있던 인물이나 기관을 살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무언가 필요에 의해 절체절명의 시기에 조선에 사신을 보내고 출자확인 문서를 요청했을 것이고, 그 문서를 통하여 자신의 유무형 이익을 얻으려 했을 것이다.

필자는 요시히로의 그 전략을 ‘이미지메이킹(image-making)’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려 한다. 이미지메이킹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미지를 환경, 직위, 관계 등 상황에 맞게 변화시킴으로써 자신에 대한 상대의 호감을 높이고, 자신이 지닌 가치를 강조하는 전략이다. 요시히로가 조선에 대하여 오우치씨의 ‘백제후예설’을 주장하고 확인 문서를 요구한 것은 누군가 상대에 대하여 자신의 호감과 가치를 어필하기 위한 전략 하에서 취한 행동일 것이다. 궁극적으로 요시히로의 ‘이미지메이킹’은 누구를 주 대상으로 한 것이었을까?

28) 日本左京大夫六州牧義弘伐九州克之, 遣使來獻方物, 且言其功。上欲賜義弘土田, 以簽書中樞院事權近及諫官之議乃止。義弘請云: “我是百濟之後也。日本國人不知吾之世系與吾姓氏, 請具書賜之。”又請百濟土田。下都評議使司考其家世, 世遠無徵。(정종실록2권, 정종 1년 7월 10일 무인 6번째 기사)

앞서 필자는 I.머리말에서 오우치씨의 ‘백제후예설’에 관한 대표적인 선행 연구로 스다 마키코(須田牧子)와 이토 고지(伊藤幸司)를 들었다. 스다는 요시히로가 조선 조정에 대하여 오우치씨 선조가 백제 왕가의 후손임을 주장한 것은 규슈탄다이 및 일본 서국(西國)의 호족들에게 조일 수교 중개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부각시키고 설명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였다. 『중세 조일관계와 오우치씨』(東京大學出版會, 2011)에서 스다 마키코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이 시기에 규슈탄다이인 시부카와 미쓰요리도 조선 통교를 하고 있었고 그럴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설사 규슈탄다이에 실제로 그럴 만한 힘이 없다 하더라도 요시히로는 직제상으로는 그 근거를 댈 수 없는 자신의 특수한 지위를 규슈탄다이 및 자신과 같은 입장에 있는 슈고들, 즉 쇼니씨(少弐氏), 시마즈씨(島津氏), 오토모씨(大友氏) 등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는 요시히로가 “나는 백제의 후손이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내 세계와 성씨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백제의 후예인데도 일본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주장한 사실에 단적으로 드러난다. 즉 요시히로의 요구는, 자신이 조선 도래계의 일족임을 조선이 정식으로 증명해 주면, 자기의 지위를 경합하는 세력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키고자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sup>29)</sup>

스다는 요시히로가 오우치씨 선조의 백제후예설 확인 문서를 요청한 데 대해, 규슈탄다이와 주변 슈고다이묘들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키기’ 위해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요시히로가 막부의 일원도 아니고, 규슈에 있어서 막부의 권한의 권한을 대행하는 규슈탄다이도 아니면서 조선과의 국교교섭 중개역할을 하고, 대 조선 통교에 있어서도 특별대우를 받는지를 주변 ‘일본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이의를 제기하니 ‘문서’로 받아 보여주며 설명하고 싶다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의 문면에 충실한 분석이라고 생각되며 그 시야는 다분히 일본 국내를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오에이의 난 동향과는 전혀 관련짓지 않고 있다.

한편 이토 고지는 요시히로의 조선 조정에 대한 주장과 요청은 아시카가 요시미쓰에 대한 암묵의 견제였다고 분석하며 스다 마키코 위 견해를 비판한다. 조일 통교의 이니시어티브를 조선 조정이 쥐고 있었으므로 서국 호족에게 자신의 위치를 부각시키고자 한들 그 의도가 주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또한 1399년 7월 당시에 요시히로의 사신과 함께 요시미쓰의 사신도 동행하고 있었으므로 다분히 그를 의식했을 것이라는 정황도 근거로 든다.

스다와 이토는 공히 요시히로의 ‘이미지메이킹’ 표적을 일본 국내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같은 시좌에서 그들은 1453년의 노리히로와 1485년의 마사히로도 일본 국내에서의 권력 약화와 영국(領國) 지배력 보강 필요성 때문에, 일본 ‘국내’에 오우치씨의 가격을 어필하기 위해 조선에 대해 ‘백제후예설’을 제기했다고 분석하고

29) 『中世日朝關係と大内氏』(須田牧子, 東京大學出版會, 2011) P.218

있다. 이토 고지의 주장은 필자가 장정적으로 세운 『가설1』에, 그리고 스다 마키코의 주장은 『가설2』 및 『가설3』에 각각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우치 요시히로의 ‘이미지메이킹’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그 과정은 선행 학설인 『가설1』~『가설3』이 일본 국내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조일 통교 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요시히로의 ‘이미지메이킹’ 표적을 파악함에 있어서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선행 연구에서 도외시켰거나 간과했던 측면을 포함하여, 1399년 당시의 요시히로가 의도했던 ‘이미지메이킹’의 궁극적 표적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 4. 요시히로의 ‘이미지메이킹’ 대상에 관한 고찰

요시히로가 자신의 출자를 명확히 하고 가문의 격을 높이려 한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였을까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추구하는 바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 일본 국내 그리고 동북아 삼국 관계상에서 오우치 요시히로가 점하고 있던 특수한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4세기 후반의 중국(원→명), 한반도(고려→조선), 일본(남북조 분립→합일)의 관계는 왜구 금압이라는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일본의 막부 정권 측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일본국왕’으로 공인을 받으며 조공책봉 체제에 편입되기를 원했으나, 남북조의 내란기에 남조 세력권에 있던 일부 지방세력들이 해적화하여 한반도와 중국 연해안을 침략하는 문제가 걸림돌이 되었다. 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을 압박하며 소위 ‘표전문제’<sup>30)</sup>와 ‘종계변무문제’<sup>31)</sup>를 들고 나왔다. 조선은 처음에는 막부에 왜구금압을 요구했으나, 일본 사회 내부의 모순이 국내에서 통제되지 못하자, 점차 규슈탄다이 이마가와 사다요(今川貞世)나, 오우치 요시히로 등 서일본의 현실적 실력자에게 왜구 금압을 요구했다.

조선은 항복하여 귀순하는 왜인(向化倭人)이나 평화적 통교자로서 찾아오는 왜인(使送倭人, 興利倭人)들을 우대하는 한편, 노략질을 자행하는 왜구 무리에게는 군사적 조치를 통하여 제압하는 양동작전을 취했다. 조선이 평화적인 통교자는 기본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본국왕’을 포함한 누구라도 교섭의 대상이 될 수

30) 조선 개국 초기에 조선에서 명 황제 측에 전달한 외교문서에 피휘(避諱)해야 할 내용이나 글자가 들어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찬문자를 명으로 압송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며 신생국 조선을 외교적, 군사적으로 압박한 사건. 표전문제에 관한 상세 내용은 『명초 조선관계사 연구』(박원호, 2002) 참고.

31) 고려 공양왕 2년(1390년) 5월, 명나라에 사신으로 간 순안군 왕방(王昉)과 동지밀직사 조반이 귀국하면서 알려진 사건으로서 파평군 윤이와 중랑장 이초가 반 이성계 세력을 배경으로 명나라를 방문하여 이성계에 대해 무고를 한 사건이다. 그들은 “공양왕은 왕씨가 아니라 이성계의 인척이며 이성계는 역적 이인임의 아들이다. 이성계가 명나라를 공격하려는 것을 말리다가 많은 사람이 죽고 귀양갔다. 군사를 이끌고 이성계 무리를 토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무고를 했고, 이 내용이 홍무제의 『황명조훈』에 실렸다. 명나라는 이 내용이 무고임이 밝혀진 후에도 이성계가 이인임의 아들이라는 기록을 『大明會典』에 전재했고, 조선이 기록 수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조선에서는 수차 사신을 보내 기록 정정을 요구하는 난제에 봉착했고 명은 이를 빌미로 조선에 여러 가지 외교적 압박을 가해 왔다. 종계변무에 관한 상세 내용은 「종계변무와 조선 사신들의 명나라 인식」(이혜순) 참고.

있었다. 즉 중국-일본 간 관계는 조공을 유일한 교섭으로 하는 일원적 관계였던 데 반해, 조선-일본 간 관계는 다면적, 다원적이었다. 조선과의 무역통상은 이익이 남는 사업이었고, 왜인의 조선내 상경비용이나 귀로의 비용은 모두 조선측이 부담했던지라, 많은 왜인이 앞다투어 쇄도하는 상황이었다.

중국(명)과 일본이 조공책봉 관계를 수립하는 과정, 조선과 일본간의 통교 상황 및 거기에 장애물로 가로놓인 왜구 금압 문제에서 오우치씨가 어떤 입장과 위치에 있었는가를 알아야 1399년에 요시히로가 조선 조정에게 자신의 세계(世系) 확인 문서를 요청한 이유가 명확해진다. 뒤집어 말하면, 요시히로의 세계 확인 문서 요구 건을 살펴보면, 당시의 동북아 삼국간 관계 수립과정이 더 확연해진다. 역사상 한 때의 해프닝일 수 있는 이 사안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1) 【가설1】 (요시히로의 ‘이미지메이킹’은 쇼군 요시미쓰를 향한 것)에 대하여

중국에서는 일본 통치자를 ‘왜왕’이라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당나라 이후에는 ‘일본국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당나라나 원나라에서 ‘일본국왕’이라 칭할 때에는 모두 천황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 남북조시대에는 남조의 가네요시 친왕(懷良親王)이 왜구 금압을 조건으로 명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아 ‘일본국왕’의 칭호를 받는 일이 있었다. 1368년 명을 건국한 태조 홍무제는 일본 국왕에게 조서를 보내 왜구에 대한 강한 항의와 함께, 일본이 명에 신속(臣屬)하고 조공을 하라고 요구했다. 명의 사신들은 남조의 정서장군(征西將軍) 가네요시 친왕에게 국서를 전달했다.<sup>32)</sup>

정서장군부에서는 처음에는 국서 내용에 대해 격분했으나, 결국 1371년 답례사를 명에 파견하여 표전을 바치고 말을 비롯한 예물을 헌상했다. 명에서는 1372년 가네요시 친왕에게 대통력(大統曆)을 전달함으로써 명과 일본의 국교가 수립되었다. 명의 사신은 그 이듬해인 1373년 5월경까지 규슈에 머무르다 교토로 상경하여 무로마치 막부의 제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와도 면담했다. 요시미쓰는 명 사신을 접견한 이듬해인 1374년(홍무7년) 자신의 명의로 사신을 보냈지만, 일본 국왕 명의의 공식 표문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가네요시 친왕 세력이 구축된 후에도 막부나 규슈의 다이묘들이 ‘日本国王良懷’라 칭하며 대명무역을 행하는 변칙상태가 계속되었다.<sup>33)</sup> 그러던 중 1386년 명에서 호유용(胡惟庸)의 반란사건<sup>34)</sup>을 조사하다가 과거 모반사건 당시에 일본이 호유용에게 내응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명 태조는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일본과의 통교를 단절하는 한편, 해금(海禁)을 엄중히 하고 왜구의 창궐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했다.

32) 이에 앞서 막부 측은 1367년 이마가와 사다요(今川貞世)를 규슈탐다이(九州探題)에 임명하여 가네요시 세력을 다자이후로부터 몰아낸 바 있었지만, 명나라 사자가 가네요시의 정서장군부가 일본의 공식 대외외교 창구인 다지이후(太宰府)의 후신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가네요시 친왕을 일본을 대표하는 권력이라고 인식하였다.

33) 명에서는 ‘良懷’라는 표현으로 가네요시를 책봉한 것이 기정사실화 하였으므로, 북조나 사쓰마의 시마즈(島津)씨 등이 사절을 보내는 경우 ‘良懷’ 명의를 사칭하였기 때문이다.

34) 1380년에 명의 좌승상 호유용이 모반을 기도했다는 혐의가 드러나 호유용의 측근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였다.

아시카가 요시미쓰로서는 정이대장군(征夷大將軍)이라는 무가(武家)의 최정점, 태정대신·준삼후(太政大臣·准三后)라고 하는 공가(公家)의 최정점에 이르렀으나, ‘일본국왕’이라는 칭호를 공인받지 못함에 따라 명이나 조선과의 외교관계 수립의 당사자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호유용 사건의 여파로 명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되어 좀처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입장에서 왜구 금압의 요구를 받고 있었다.

요시미쓰는 1395년(応永2년) 6월 출가를 단행하고 호를 도의(道義)라 했다. 그의 출가는 세속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됨으로써 보다 강력하게 세속을 지배하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사사세력(寺社勢力)을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기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동년 11월에는 규슈탐다이(九州探題)로서 독자의 권력을 구축하고 있던 이마가와 사다요(今川貞世)가 파면되었다. 이미 1392년에 남조를 사실상 평정하여 남북조 합체를 이루었으므로, 이제 요시미쓰에게는 유력 다이묘인 오우치 요시히로만이 눈엣가시로 남아 있는 형국이 되었다.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은 유력 슈고다이묘의 연합에 의해 옹립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 권력은 취약했다. 제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는 쇼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노고쇼를 조영하여 권세를 과시하고 직할군인 부교슈(奉公衆)를 증강했다. 그리고 유력 슈고다이묘를 약체화시키기 위해 1379년(康暦元年)에 호소카와씨(細川氏)와 시바씨(斯波氏)의 대립을 이용해 간레이(管領) 호소카와 요리유키(細川頼之)를 실각시켰다(고라쿠의 정변). 1389년(康応元年)에는 도키 야스유키(土岐康行)를 도발하여 거병하게 만든 후 이를 토벌했다.

그리고 1391년(明德2年), 11개 구니의 슈고가 되어 「육분의일 도노(六分の一殿)」라 불리던 야마나씨(山名氏)의 분열을 획책, 야마나 도키히로(山名時熙)와 우지유키(山名氏之) 형제를 일족인 우지키요(山名氏清)와 미쓰유키(山名満幸)로 하여금 토벌하게 하여 몰락시켰다. 나아가 도키히로와 우지유키를 사면하여 우지키요, 미쓰유키를 도발함으로써 거병하게 만들어 결국 멸망시켰다. 이로써 야마나씨에게는 3개 구니만을 남겼다(메이토쿠의 난). 이제 남은 것은 오우치 요시히로 뿐이었다.

요시미쓰는 출가를 단행함으로써 천황의 신하라고 하는 입장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천황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졌으므로, 마음놓고 ‘일본국왕’을 자칭하며 인국과의 외교 교섭에서 명실공히 일본을 대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요시미쓰는 출가를 할 때 자신의 수계 의식을 법황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자신이 거처하는 기타야마테이(北山第)를 센토고쇼<sup>35)</sup>라 칭하고, 관백이 요시미쓰에게 보내는 서장도 모두 상황의 예에 준하게 하는 등 자신의 일가를 천황가와 동격에 두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 남아있는 장애물인 오우치 요시히로는 쇼군에 버금갈 정도의 위세와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요시히로에게 있어, 요시미쓰가 ‘일본국왕’이 되어가는 과정은 곧 자신의 몰락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1397년 요시미쓰가 로쿠온지(鹿苑寺) 조영 작업에 전국 각 다이묘의 무사들을 동원하고자 차출을 명했을 때 요시히로

35) 센토고쇼(仙洞御所)란 太上天皇, 法皇 등 주로 퇴위한 천황이 거하던 御所를 말한다.

가 이를 거부한 사건도 ‘일본국왕’이 되어가는 요시미쓰에 대한 반감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1399년 여름에 요시히로가 조선 조정에게 “나는 백제의 후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나의 세계(世系)와 성씨(姓氏)를 알지 못하니, 갖추어 써서 주시기를 청합니다.” 라고 요구했을 때, 그 문면 중의 ‘일본 사람들’이 쇼군 요시미쓰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는 분석은 어찌하면 일리가 있고 일견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오우치씨의 ‘백제후예설’이 조선의 확인으로 ‘공인’된다고 해서 그것이 요시미쓰를 견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요시히로의 ‘이미지메이킹’이 쇼군 요시미쓰를 향한 것이었다고 분석하는 대표적인 논자는 이토 고지이다. 이토는 당시 조일 통교의 이니셔티브를 조선이 쥐고 있어 규슈탄다이나 서국의 슈고다이묘들에게 요시히로의 위상 과시가 먹히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표현된 ‘일본 사람들’ 중에서 규슈탄다이와 서국 유력 호족을 제외하면 그 ‘이미지메이킹’의 대상은 쇼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같은 논리를 왜 유독 요시미쓰에게는 적용시킬 수 없는가 하는 설명 전개상의 모순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토는 1399년 요시히로의 사신이 조선을 방문했을 때 요시미쓰가 보낸 사신도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는 점도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요시미쓰의 사신이 보는 앞에서 오우치씨의 고귀한 가계(家系) 확인을 조선 조정에게 요청함으로써 그 내용이 쇼군 측에 전달되기를 바랐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사실 그 이전의 국교수립 교섭 과정이나 대장경 하사 요청 과정<sup>36)</sup>에서도 쇼군의 사신과 요시히로의 사신은 자주 조선 사행에 동행했다. 1399년 7월 당시에 쇼군의 사신이 동행했다는 사실 만으로, 그를 의식해 대 조선 ‘퍼포먼스’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요시미쓰의 사신뿐만 아니라, 대마도 도총관 소 사다시게(宗貞茂)의 사신도 별도로 조선을 방문하고 있었다.<sup>37)</sup> 일본의 각측에서 보낸 사신들이 각각 조선에 대해 통교와 우의를 경합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하겠다.

정종1년(1399년) 여름은 일본 정국의 쟁패와 가문의 운명을 걸고 쇼군 요시미쓰와 벌이게 되는 최후의 결전(오에이의 난)을 불과 수개월 앞둔 시기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 시기가 시기이니만치 당시 요시히로의 행보는 당연히 요시미쓰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요시히로 측은 조선 조정에게 오우치씨 세계 확인 문서와 함께 연고지의 토전을 함께 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토전은 앞에서 별도로 검토한 바 있듯이, 미구에 닥쳐올 요시미쓰와의 충돌에 대비한 것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다지 절박한 요청 사항도 아니었다. 오우치가 선조의 ‘백제후예설’을 입증하는 문서

36) 조선 초기에 일본 측에서 팔만대장경이나 그 판목을 조선에 요청한 사례는 많다. 태조~태종 시기에만 보아도 일본 측에서 사자 등을 통해 대장경을 요구해 온 사례는,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기록 기준으로 무려 20여 회에 달한다. 대장경을 요청해 온 측은, 일본국왕(쇼군) 측이 4회, 규슈탄다이측이 2회, 불교계(사찰, 승려)에서 2회, 기타 지방 호족이나 수령이 총 12회이다. 호족·수령의 12회 중에서 절반(6회)은 오우치씨가 차지하여 압도적인 비중을 점한다. 『조선왕조실록』의 총 20여 회의 대장경 요청 사례 중에서 실제 하사, 전달이 이루어진 경우는 대략 절반 정도로 보이는데, 유독 오우치씨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장경 하사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온다. 오우치 요시히로는 1398년(태조7년) 12월에도 상국대부인(相國大夫人, 요시미쓰의 어머니나 부인을 높여 부르는 말)의 명이라고 하며 팔만대장경 목판을 달라고 요청했다.

37) 『조선왕조실록』 「정종실록」 정종1년 7월 1일 기사

하사를 요청한 것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오우치씨의 고귀한 가격을 확인받으면 요시미쓰의 막부군과의 충돌시 손해될 것이야 없겠지만, 그렇다고 사태의 향방을 바꿀 만한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요시히로가 조선에 요구한 오우치씨 ‘세계 확인 문서’는 결국 손에 넣을 수 없었다. 정종의 명령에 따라 국내의 역사서를 두루 상고해 보아도 그 기록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설사 오우치씨가 백제 온조왕의 후손이라고 증명하는 문서를 조선으로부터 받았다고 해도, 그 이후의 상황 전개로 볼 때, 요시히로가 이를 요시미쓰 측에 제시할 계제나 방도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다.

결국 오우치씨 가문의 출자 확인이라는 것은 쇼군 요시미쓰보다는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향한 ‘이미지메이킹’의 측면이 더 크다. 요시미쓰와 건곤일척의 대결을 앞둔 상황에서 “당신이 일본 국왕을 자처하지만 정작 나아말로 진짜 왕족이다. 우리 조상은 백제 온조왕의 후예로서 나는 그 피를 이어받은 고귀한 인물이다. 당신에게 절대로 굽힐 수 없다.” 라는 자기최면이나 자존심 고취용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38)</sup>

## (2) 【가설2】 (요시히로의 ‘이미지메이킹’은 다른 경합호족들을 향한 것)에 대하여

필자는 앞에서 오우치씨의 ‘백제후예’ 주장이 쇼군을 향한 것일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요시히로 자신을 향한 ‘이미지메이킹’이 것이라는 점에 대해 논했다. 지금부터는 요시히로가 과연 규슈 등 서일본을 비롯한 일본 전국의 여타 유력 다이묘들이나 무가 세력들에게 자신의 고귀한 가격(家格)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백제후예’ 확인 문서를 입수하려 했을까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오우치씨(大内氏) 가문은 스오(周防)에 자리를 잡고 나서 곧 가마쿠라 막부 고케닌(御家人)의 일원이 되었다. 남북조 쟁란에서는 남조에 동조하기도 했으나 나중에 북조에 귀순하고 규슈의 기쿠치씨(菊池氏)와 싸워, 막부로부터 스오(周防), 나가토(長門), 이와미(石見)의 슈고에 임명되었다. 요시히로는 규슈탐다이(九州探題)인 이마가와 사다요(今川貞世)에 종군하여 규슈의 남조 측과 다년간에 걸쳐 싸우고 부젠(豊前) 슈고직이 추가되었다. 이어 요시히로는 메이토쿠의 난에서 크게 전공을 세우고 그 공훈으로 이즈미(和泉), 기이(紀伊)의 슈고직을 받았다. 이로써 오우치씨는 무려 6개 구니(国)를 영지로 장악하는 압도적인 힘을 자랑하게 되었고, 규슈탐다이도 오우치씨의 힘을 빌어 겨우 쇼니(少弐)·기쿠치(菊池)의 반란을 물리칠 정도였다.

요시히로가 요시미쓰와 가까워지게 된 것은 1389년(고안 원년) 경으로 알려져 있다. 쇼군 요시미쓰가 고랴쿠의 정변(康暦의 政變) 후의 지방 동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아키(安芸) 이츠쿠시마(巖島) 참배를 갔는데 그 귀로에 요시히로가 스오(周防)에서 요시미쓰를 접대했다. 그 후 폭풍이 불어 규슈로 돌아가지 못하고 요시미쓰와 함께 교

38) 이와 관련하여, 송종호의 언급이 주목된다. 그는 한 논문에서 “또한 백제 왕가의 본관을 요청한 것은 오우치 요시히로가 모반을 일으키는 경우 오우치씨 역시 막부 쇼군 가문인 아시카가씨 못지않은 명문 혈통이라는 명분을 갖게 되는 효과를 기대했던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송종호, 「정종 원년(1399) 등시라로 왜 구 집단의 투항과 오에이의 난」 『한일관계사연구』 84, 한일관계사학회, 2024)

토로 동행한 후 그대로 교토에 남아 재경 다이묘(在京大名)의 일원이 되었다. 요시히로는 남북조 합일을 위한 평화교섭에서 큰 공을 세웠다. 남조의 지배지역인 가와치(河内), 야마토(大和)에 인접하는 영지를 가진 데다, 요시미쓰의 신뢰도 두터워 남북 양조의 교섭을 중재하기에 적합한 인물이었다. 또한 1392년 10월 남조로부터 삼종의 신기가 교토로 돌아올 때, 요시히로가 그 호위를 담당했다.

1393년(메이토쿠 4년) 12월에는 요시미쓰가 직접 필을 들어, 요시히로를 장군가의 일족에 준하여 대우한다는 고나이쇼(御内書)를 주었다. 요시히로는 1379년(고라쿠원년) 사쿄곤노다이부(左京權大夫), 1386년(至德3年) 종4위 다타라노아손(多々良朝臣)을 거쳐 1392년(메이토쿠 3년)부터 1394년(오에이 원년)에는 종4위 고교사쿄곤노다이부(上行左京權大夫)라는 직명을 사용했다. 남북조 합일기로부터 조일 수교 수립기 사이에 요시히로와 목숨을 걸고 경합했던 상대는 다른 슈고다이묘들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급(級)’이 달랐던 것이다.

요시히로가 아무리 서일본 최강의 군세를 자랑한다 해도 요시미쓰의 막부군과 쟁패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이 사실을 아는 요시히로는 가능한 한 많은 반막부군의 동참을 이끌어내야만 했다. 혹시 이와 같은 상황과 요시히로의 ‘백제후예’ 주장이 상관있는 것을 아닐까?

요시히로는 자신의 강성한 힘을 눈엣가시로 여기는 요시미쓰와 건곤일척의 쟁패를 앞두고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준비를 했다. 몰릴 대로 몰린 요시히로는 가마쿠라 구보 아시카가 미쓰카네(足利滿兼)와 밀약을 맺었다. 나아가 요시히로는 도키 야스유키의 난으로 몰락해 있던 미노(美濃)의 도키 아키나오(土岐詮直), 메이토쿠의 난으로 몰락한 야마나 우지키요(山名氏清)의 장남 도미타 도키키요(宮田時清), 오미(近江)의 교코쿠 히데미쓰(京極秀滿, 이즈모슈고 교코쿠 다카노리의 동생), 미야타 도키키요(宮田時清), 히에이잔 고후쿠지(比叡山·興福寺)의 승병(衆徒), 예전 남조 측의 구스노키씨(楠氏, 구스노키 마가카쓰와 그 아들들), 기쿠치씨, 아키의 고다마(児玉) 일족, 요시카와 쓰네히루(吉川経見) 등에게도 거병을 요청했다.

오우치 요시히로는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거나 인연이 있었던 세력들, 그리고 쇼군에 반감을 가진 무가들을 총동원하여 사카이(堺)에 진을 치고 요시미쓰를 압박하면서 최종 협상에 임했으나 결국 화해에 이르지 못했다. 사카이를 향해 요시미쓰의 추토군이 밀어닥치고, 요시히로는 분전했으나 결국 성이 함락되어 최후를 맞았다. 각지에서 거병한 반란세력도 모두 막부군에 의해 섬멸되고 반란은 실패로 끝났다. 요시히로가 반막부 세력을 규합하는 데 있어, 자신의 선조가 과거 백제계 왕족의 후예라는 사실을 증거를 들어 밝혔다면 그것이 과연 세를 불리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 즉 요시히로가 굳이 백제계 도래인의 후손이라고 자칭하는 것에 무슨 이점이 있었을까 하는 점에 대해 검토해 보자.

당시 일본의 다른 다이묘 가문 중에서도 유력 우지를 참칭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대표적인 예가 겐페이도키쓰(源平藤橘)를 가져다 쓰는 것이었다. 고대로부터 헤이안 시대에 이르기까지 천황가에서 신하에 하사한 우지카바네(氏姓)가 이 대표적인 네 성씨, 즉 미나모토(源), 다이라(平), 후지와라(藤原), 다치바나(橘) 씨이다. 요시히로가 만약

가문 분식(粉飾)을 통해 가문의 격을 높이려면 이런 유력 우지를 참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sup>39)</sup>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요시미쓰의 기타야마 저택 조영 공사예의 무사 동원 문제, 쇼니 사다요리 토벌 작전과 관련한 배후 음해 소문, 논공행상의 불만 등을 계기로 양자간의관계는 급격히 대결구도를 향해 치달아갔다. 1399년 10월 요시히로는 사카이에 군세를 집결시키고 진격이나 농성이냐를 고민하고 있었고, 뒤이어 벌어진 전투에서 그는 장렬하게 전사했다. 요시히로는 전사를 각오하고 전투 돌입 전에 자신의 장례를 미리 치렀다고 한다. 그가 사망한 날은 음력으로 1399년 12월 21일이었다.

요시히로가 조선에 대해 백제 왕족의 후예임을 증명하는 기록과 토지를 요청한 1399년 여름은 아시카가 요시미쓰와의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거병을 준비하는 시기였다. 요시히로가 사신을 파견하여 자신의 요청사항을 전한 시점이 1399년 여름(5월~7월)이더라도 그런 요청을 하겠다는 의사결정은 그 이전에 내려졌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운명의 결전을 수개월 앞에 둔 시기에, 쇼니씨(少弐氏), 시마즈씨(島津氏), 오토모씨(大友氏) 등 경쟁 슈고들에게 자신의 특수한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선조에 관련 증거기록을 조선에 요청했다고 보는 것은 타이밍이라는 점에서도 아무래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 (3) 【가설3】 (요시히로의 ‘이미지메이킹’은 규슈탄다이를 향한 것)에 대하여

무로마치 막부의 제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는 1370년 무렵 이마가와 사다요리를 규슈탄다이에 임명했다. 간노노쥬란(觀応の擾乱) 이후에 남조측의 기쿠치 다케미쓰(菊池武光)가 가네요시 친왕을 옹립하여 세운 정서부(征西府), 다카우지의 서자(다다요시의 양자) 아시카가 다다후유(足利直冬) 등이 난립하고, 정서부가 치쿠젠의 쇼니 요리히사(少弐頼尚)를 격파하여 다자이후(大宰府)를 점령하는 등 남조 세력이 팽창하고 있던 규슈를 평정하는 것이 그에게 맡겨진 임무였다.

이마가와 사다요가 규슈탄다이가 되어 서하하자 고려로부터 금구 요구가 본격화했다. 이마가와 사다요는 규슈의 남조 세력이 왜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왜구를 단속하는 일은 결국 남조 미야가타를 평정하는 것과 동일한 일이었다. 규슈탄다이는 규슈 지역의 통치와 함께 한반도와의 외교 창구 역할도 담당했기 때문에 사다요는 고려에 사자를 보내고 왜구금압 요청을 받거나 막부의 대외 무역에도 관여하게 되었다. 이마가와 사다요의 등장은 서일본에서 오래전부터 확립하고 있던 오우치씨의 기득권과 군사력, 그리고 오우치의 왜구금압 능력에 주목하는 조선의 높은 평가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된 것이 사실이었다.

오우치씨는 오래전부터 스오(周防)에 정착한 가문이었으며 그 소령은 스오의 해안 부나 도서를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 즉 간몬해협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선편의 상업 루트를 지배함으로써 외래 무역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그 중에는

39) “당시의 일본 유력자 대부분이 ‘源平藤橘’에서 뿌리를 구한 것과 비교하면, 독자적으로 ‘多々良’ 성을 자칭하며 국외에서 뿌리를 찾은 오우치씨의 자세는 대단히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토 코지(伊藤幸司, 「오우치씨의 국제전개 - 14세기 후반 ~ 16세기 전반의 야마구치 지역과 동아시아 세계 -」)

왜구와 관련된 물품도 많았을 것이다. 스스로 왜구 활동에 참가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소령 요충을 지나는 해적선을 단속하면서 재화를 상납받는 일이 많았다.<sup>40)</sup>

왜구가 노리는 것은 주로 식량과 사람이었다. 마쓰라토 같은 해적들을 지배하던 사다요는 피로인을 송환함으로써 은혜를 베풀며 그 사례를 받거나 고려측과의 교역을 시도했다. 사다요는 기쿠치씨를 다자이후로부터 몰아내고 규슈를 평정하고 나서는 규슈 지역에서의 금구 활동을 담당하고, 오우치 요시히로에게는 세토내해의 해적을 단속하는 역할을 맡겼다.

오우치 요시히로는 이마가와 사다요의 형제인 나카아키(今川仲秋)의 사위이기도 하다. 요시히로는 사다요를 도와 규슈에서 남조 공략에 나섰다. 그 강성한 힘으로 왜구를 단속하는 데에서도 공적을 세웠다. 왜구 금압을 둘러싸고 고려가 처음으로 교섭을 진행하던 단계에서 이마가와 사다요는 오우치 요시히로와 공동으로 대응했고, 고려 측에서도 이 두 사람에게 병행하여 대처했다. 원래 고려에서는 왜구 금압에 협력한 오우치씨의 활동에 사례를 하며, 양국간 통교의 편의를 제공하곤 했는데, 오우치씨가 주로 장악하고 있던 그런 독점권리가 이마가와 사다요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고려 및 그 뒤를 이은 조선 측과의 교섭은 그후 전적으로 이마가와 사다요에 의해 진행되어, 요시히로의 통교 관여는 단절되다시피 했다.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되는 양자의 대 고려·조선 교섭 건수를 비교하면 그와 같은 이권의 편중 상황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사다요는 1377년 이래 총 11차례나 고려 및 조선에 사신을 파견한 반면, 요시히로는 1379년 사신 파견 이후 한번도 그 기회를 얻지 못한 채 1395년에 이르렀다.

아시카가 요시미쓰는 1395년 (오에이2년) 돌연 이마가와 사다요를 규슈탄다이 직에서 해임했다. 사다요가 돌연 해임된 배경으로는 우선 남북조 합일을 달성하고 쇼군 권력을 확립한 요시미쓰가 사다요의 규슈에서의 권력 확대와 독자적 외교권을 위협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게다가 오우치 요시히로가, 규슈탄다이 이외의 제 다이묘가 조선과 직접 통교하는 것을 규제하는 사다요와 대립하여, 그 해임을 위해 모종의 공작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마가와 사다요가 나중에 저술한 『난태평기』에 따르면, 자신의 파면은 오우치 요시히로와 오토모 치카요(大友親世)의 참언에 따른 것으로서, 요시히로는 그 스스로가 후임 탄다이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요시히로는 사다요의 후임이 될 것으로 기대했겠지만 정작 후임에 임명된 것은 시부카와 미쓰요리(渋川満頼)였다. 규슈탄다이 취임 여부와 관계 없이 이미 서일본 지역에서 힘을 기른 요시히로는 조선과의 무역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다. 조선도 그런 요시히로의 능력을 인정했다. 1395년 윤7월에 사다요가 규슈탄다이에서 해임된 직후 그해 12월 요시히로는 사자를 조선에 보내 토산물을 바치고 수호를 요청했으며 그이후 1399년까지 매년 조선 측과 교섭했다.

40) 오우치 요시히로의 아버지인 히로요는 그렇게 모은 재화, 특히 왜구들이 약탈해 온 고가의 물건들을 손에 넣고 이를 교토의 유력자들에게 선물로 뿌려 인기를 얻고 그 보답으로 영지를 받은 일도 있었다.

조선이 평가하는 오우치씨의 가치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를 하나 들어 본다. 1398년(태조 7년)에 조선은 박돈지(朴惇之)를 일본에 사신으로 보내 삼도(三島)의 왜구 공략을 요구했다. 그 이듬해 박돈지가 일본에서 돌아왔는데, 그 때의 일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남아 있다.<sup>41)</sup> 이성계가 사신을 통해 요시미쓰에게 왜구 금압을 요구하여 요시미쓰가 토벌에 나섰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오우치를 보내 공격하게 하여 항복을 받아냈다는 내용이다.

과인이 군관과 사졸의 희망에 따라 군사를 일으켜 죄를 토벌하고자 하나, 대장군이 오랫동안 병권을 장악하여 평소에 위엄과 덕망이 있어 삼도지경(三島之境)에 미치지, 감히 군사를 가만히 행하여 지경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대장군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하시었습니다. 대장군이 흔연히 명령을 듣고 말하기를, “제가 능히 제어하겠습니다.” 하고, 곧 군사를 보내어 토벌하게 하였으나 여섯 달이 되어도 이기지 못하였다. 대장군이 대내전(大內殿)으로 하여금 군사를 더하여 나가서 공격하게 하니, 적이 무기와 갑옷을 버리고 모두 나와서 항복하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는, 일본에서 요시히로가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 특히 왜구를 제압할 수 있는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이다. 쇼군의 군사만으로 불가능했던 삼도의 왜구 정벌이 오우치의 가세로 비로소 가능했다는 것이다. 오우치의 이와 같은 업적에 조선에서는 매우 고무되었을 것이고 일본에서의 왜구 행위 금압에 오우치의 협력이 불가결함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마가와 사다요의 후임으로 시부카와 미쓰요리가 취임한 것은 1396년 (오에이3년)이었다. 미쓰요리(滿頼)는 쇼군 요시미쓰로부터 편휘를 받아 이름을 지었다고 하며 또한 막부 실권자인 간레이 시바 요시유키(斯波義將)의 사위이기도 했다. 단다이가 되고 나서 미쓰요리는 쇼니씨, 기쿠치씨, 아소씨(阿蘇氏) 등 반막부 세력을 평정하고자 노력했다. 조선과의 교역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스스로를 규슈제독(九州都督), 진서절도사(鎭西節度使)라 칭하며 조선 국왕으로부터 무역허가증에 해당하는 도서(圖書)를 받아 수도서인(受圖書人)이 되었다.

그러나 규슈에서 남조군의 세력이 쇠퇴하고 중앙에서는 남북조 합체가 성공하고 나서 막부의 규슈 통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따라서 규슈탄다이의 역할과 성격도 크게 달라졌다. 전임 이마가와 사다요의 시대와는 판이하게 다른 위상이 요구되었다. 마쓰오카 히사토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그것은 군사행동을 중심으로 하는 단계에 맞추어 단다이가 대폭적인 권한을 일신에 집중시켜 온 종래의 방식으로부터, 정치적 제기능이 막부에 집약되고, 행정적 기능을 제일의 적으로 하는 지방직제로의 전환이다. 군사행동 전개기에 사다요가 만들어낸 사적 지배는 그 역할을 마치고, 이제는 오히려 방해물이 되었던 것이다.<sup>42)</sup>

41) 『조선왕조실록』 (정종 1년 5월 16일자)

이마가와 사다요가 가지고 있던 대외통교 및 무역의 권한은 군사행동을 중심에 두었던 시기에 사다요에게 허락되었던 일종의 특권이였다. 이 특권을 막부가 흡수하기 위해서도 사다요의 해임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시부카와 미쓰요리의 규슈탄다이 취임에 맞추어 요시히로는 오토모 치카요(大友親世)를 규슈부교(九州奉行)에 추천했다. 오토모 치카요는 오우치 히로요(大内弘世, 요시히로의 아버지)의 딸과 결혼했다. 즉 요시히로와 치카요는 처남·매부 사이인 것이다. 형식상 규슈는 막부 측과 요시히로가 공동책임으로 다스리는 곳이 되었다.

그러나 규슈탄다이와 규슈 부교는 그저 이름뿐인 직책이었고 사다요가 물러간 이후 북규슈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요시히로였다. 명, 조선과의 외교는 물론, 통상면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로 되돌아온 것이다. 새로운 권력구도 하에서 요시히로와 막부측, 다시 말해 요시미쓰와의 경합 관계가 두드러지게 되었을 뿐, 당시의 규슈탄다이는 요시히로에게 필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요시히로의 소위 ‘이미지메이킹’은 규슈탄다이를 염두에 두었다고 보기 어렵다.

백제의 후손임을 자칭하는 것이 일본 내에서 스스로를 이질적인 존재로 보이게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일본의 유력 영주들은 오우치 가문에 대해 ‘본국 사람이 아닌 고려 사람이다’ 라며 이단세력시하고 하대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일본 내에서 지명도나 위세가 별로 높지 않고, 스스로를 이질적인 존재로 각인시킬 수도 있음에도, 요시히로가 다타라(多々良)라는 백제계 조상의 후예임을 강조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않았을까?

물론 일차적으로는 실제로 오우치씨가 백제 왕가의 후손인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거나, 적어도 스스로를 그렇게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백제의 왕족으로서 일본에 도래한 임성태자가 오우치씨의 시조가 되었다는 기록의 역사적 사실성 여부를 떠나, 요시히로가 그 사실을 극구 문서로까지 확인받으려 한 데에는 무언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 필자는 오우치씨의 ‘백제후예’ 주장이 일종의 ‘이미지메이킹’의 일환이라고 했고, 지금까지의 검토를 통해 그것은 아시카가 요시미쓰나, 규슈탄다이 및 일본내 경합호족이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요시히로 그 자신일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오우치씨 측이 백제왕가 출신 도래인의 후손임을 ‘일본 사람들’에게 밝히고 싶다고 했지만, 그 단어에만 의존하여 되면 요시히로가 진정으로 의도했던 바의 일부만을 언급하는 데 그치고, 결과적으로 핵심에서도 벗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요시히로가 말한 ‘일본 사람들’은 그의 ‘이미지메이킹’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제시되었을 뿐 근본적인 대상은 아닌 것이다. 요시히로가 자기 가문의 이미지를 드높이고 또는 윤색해 가면서까지 내보이고자 했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표적이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 (4) 오우치씨의 ‘이미지메이킹’은 조선을 향한 것이었다

42) 『大内義弘』, 마쓰오카 히사토, 戎光祥出版, 2013, P.118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조선이었다. 요시히로가 조선에 오우치씨 선조의 세계 확인 문서와 토전 지급을 요구한 진짜 목적은 조선에 자신의 가치를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요시히로가 조선에 대하여 주장하는 자신의 가치란 무엇이며, 왜 그것을 조선이 인식하고 평가하도록 만들고자 노력했을까?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일 수교과정, 당시의 양국간 교역 상황, 왜구 금압 문제와 관련하여 요시히로가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당시 오우치 요시히로는 스오(周防), 나가토(長門), 부젠(豊前), 지쿠젠(筑前), 4주를 총관하고 6개국 슈고(守護)를 겸하는 서일본의 대표적 다이묘였다. 이마가와 사다요의 뒤를 이어 쇼군의 신임을 얻은 오우치는 대외 교섭의 창구로 인정되었으며, 왜구를 금압하라는 쇼군의 특명을 받기도 했다. 명나라와의 수교를 바라던 요시미쓰는 그 전단계로 조선에 사신을 보내 국교를 청했다. 그 사절교환 역할을 요시히로가 담당했고 이에 대한 조선의 반응도 호의적이었다.

요시히로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조선, 명과의 국교 수립, 대륙과의 무역권을 놓고 요시미쓰와 요시히로의 경합이 시작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오우치가 무역 이권을 독점하고 세력을 확대하자 요시미쓰는 이를 견제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오에의 난으로 발전해 갔다. 대 조선 외교교섭권과 통상권을 놓고 경합하던 이마가와 사다요를 물리치고, 이제 요시미쓰의 도전을 받으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던 요시히로로서는 조선으로부터의 신망을 얻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했다. 그 가치란 바로 왜구금압 능력이었고 그 물적 기초는 조선과의 무역이권이였다. 한반도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남다른 내용의 ‘이미지메이킹’은 이 무역독점권의 사수를 위해 오우치씨 측에서 고안해 낸 비장의 무기였던 것이다.

오우치씨는 일찍부터 조선과의 통교에 참가하고 있었고, 일본 국왕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다. 이런 특별한 우대의 배경은 왜구를 금압할 수 있는 군사력이였다. 그리고 그 무력의 중요한 원천 중 일부는 다름 아닌 조선과의 무역 이권이였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파탄에 직면한 상황에서 오우치 요시히로는 누구를 향하여 자신의 ‘이미지메이킹’을 해야 했을까를 생각하면, 당연히 그 대상은 요시미쓰나 규슈탄다이, 경합 호족들이 아닌, 조선일 수밖에 없다.

1399년에 요시히로가 조선 조정에게 대해 요구한 토지와 호적은 서로 관련이 있으면서도 또한 분리하여 검토해야 할 대상이다. 토지는 정종 1년 당시 단 한번 공여를 요청한 반면, 오우치씨 가계 확인 요청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 이후에도 대를 이어가며 반복된 청구 사항이였다. 따라서 단발성으로 그친 백제 연고지의 토지 지급 요청은 1399년 당시의 오에이의 난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호적 확인 문서는 오우치씨 가문 누대에 걸친 지속적 필요의 소산이였고, 토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다. 백제 왕가 출신이라는 오우치씨의 ‘이미지메이킹’ 필요를 요시히로 당시의 1399년에만 한정해서 살펴보면 오에이의 난이라는 인식의 틀에 갇힐 수가 있다. 적어도 이 문제는 통시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사안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중국-일본 간 관계는 조공을 유일한 교섭으로 하는 일원적

관계였던 데 반해, 조선-일본 간 관계는 다면적, 다원적이었다. 조선은 일련의 군사, 외교적 조치를 통하여 왜구를 단속하는 한편, 왜구 금압에 협조적이거나 평화적인 통교를 청하는 왜인들은 기본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었다. 일본 호족 세력들에 있어, 조선과의 통교에 필요한 것은 일본 국왕(室町殿, 무로마치 도노)의 허가가 아니라, 조선국왕의 허가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정종 1년(1399년) 여름, 요시히로 측 사신이 조선 조정에 대해, 오우치 가문이 백제 왕가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문서와 연고지의 토전을 하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자신에 대한 호감과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이미지메이킹’이라고 판단된다. 스다 마키코나 이토 고지 등의 선행 연구에서는 요시히로가 일본내 유력 호족 세력 및 규슈탄다이 또는 쇼군에게 자신의 고귀한 가치를 내보이기 위하여 출자확인 문서를 확보하려 했다고 하고 있으나, 당시의 정세와 맥락을 볼 때 그의 ‘이미지메이킹’은 오히려 자기자신(자기최면, 자존감 고취)과 조선 조정(통교이권보호)을 향한 것이었다.

오우치씨가 자신의 가치를 조선에 어필할 수 있는 요소는 왜구금압 능력(군사력)이었고, 이를 발판으로 조일통교상의 이권을 독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요시히로 이래 오우치씨가 조일통교에 있어서의 우위를 유지하여 경합 호족들을 능가하는 물적 토대를 온존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이미지메이킹’ 전략이 바로 조선에 대해 백제왕가 후예설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 V. 결론

오우치 요시히로는 14세기말 조(고려, 조선)·명·일 동북아시아 삼국이 새로운 외교 관계를 정립해 가는 장면에서 매우 특별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삼국이 각각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고 동아시아의 조공책봉 체제라는 국제관계의 틀이 짜여지는 과정에서 요시히로의 존재를 도외시하고 전반적인 국면의 추이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그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세계(世系)에 대해 ‘백제 온조왕의 후예’라는 주장을 하여 주목을 받았다.

이 글의 목적은 오우치 요시히로가 제기한 ‘백제후예’ 주장에 대해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일견 단순해 보이고 어느 한 개인에 의해 돌출된 일시의 해프닝으로 보이는 이 사안도 실은 다양한 측면과 상호 관련성 하에서 드러나는 한 단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안의 전후 맥락을 밝히는 일은 14세기 말 동북아시아의 국제 관계, 특히 명 중심의 조공책봉 체제 성립, 국가간 정식 외교관계의 수립, 그리고 당시의 최대 현안이었던 왜구 금압 문제를 살피는 하나의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오우치 요시히로가 제기한 오우치씨 선조의 ‘백제후예설’에 대해 기존 논의 상황과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점검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오우치씨의 선조가 되었다고 하는 백제 출신 도래인 임성태자(琳聖太子)가 『일본서기』에 나오는

아좌태자(阿佐太子)와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필자는 제기했다. 또한 학계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임성태자의 ‘가야후예설’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떨어짐을 논증하였고, 오우치씨 가문에서 필요에 따라 자신들이 주장하는 선조의 세계(世系)에 대해 일종의 분식(粉飾) 작업을 해 왔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러나 오우치씨 ‘백제후예설’의 진위 여하를 밝히는 것은 이 글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다. 요시히로를 포함한 오우치씨 측에서 왜 스스로에 대해 ‘백제후예’라고 믿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왜 조선 조정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는가 더 중요하다. 요시히로가 1399년에 조선에 대해 가계 관련 확인 문서와 토전의 하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를 당시에 진행되고 있던 오에의 난에 주로 관련지어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특히 요시히로의 가계 관련 문서 요구는 그 이후에도 수차 반복된 것이었음을 고려할 때, 15세기로까지 이어지는 보다 넓은 통시적 관점의 고찰이 필요하다.

필자는 본 연구에서, 크게 나누어 세 차례에 걸쳐 오우치씨 측 사신이 조선 조정에 사신을 보내 스스로의 가계에 대한 문서와 정보를 요구했는데 이는 다분히 오우치 가문의 가계(家格)를 높이려는 ‘이미지메이킹’의 일환이었음을 논증했다. 그리고 그것은 소위 거추사(巨酋使)의 필두로서 오우치씨가 처한 입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필자는 조선 조정이 시행한 대 일본 통상 통제책의 추이와 거추사 오우치씨 측의 일관된 대응 모습을 개관해 볼 때, 1399년 요시히로의 ‘이미지메이킹’은 쇼군 요시미쓰나 기타 일본내 호족 세력 또는 규슈탄다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바로 조선 조정을 향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밝혔다.

요시히로가 자신을 백제 왕족의 후손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가문의 격을 높이고 일본내 슈고다이묘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했다는 선행 연구 내용만으로는 실상을 잡아낼 수가 없다. 당시의 쇼군 요시미쓰와의 운명을 건 대결, 조선 조정과의 줄다리기를 통해 유지하고자 했던 국제교역 이권, 그 이권을 물질 토대로 한 일본내 정치·군사력 및 왜금금압 능력 등과의 관련성 하에서 이 문제를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제 측면은 조·명·일 삼국 중의 어느 한 나라나 양국관계의 틀 만으로는 제대로 그려낼 수가 없다.

오우치 요시히로가 제기한 ‘백제후예’ 주장을 연결고리로 하여, 14세기 말 조·명·일 삼국의 이런 중첩적, 입체적인 관계의 일단을 풀어 보았다. 한정된 시기의 일부 사안에 집중해 검토한 탓에 조선과 명나라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요동 문제, 홍무제가 왜구 금압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며 조선에 제기한 표전문제와 종계변무문제, 요시히로가 조선에 수차 요청한 대장경판 관련 사항 등을 검토 범위에 많이 넣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이는 차후의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끝>

## 참고문헌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박원호, 『명초조선관계사연구』, 일조각, 2002

鄭樸生, 『明代の倭寇』, 汲古選書, 2013

강정만, 『명나라 역대 황제 평전』, 주류성, 2017

나행주, 「한반도제국과 왜국의 사신외교」(초출:2017) 『동아시아 해역과 교류의 역사 (이영 편)』, 올샘, 2024

松岡久人, 『大内義弘』, 戎光祥出版, 1966

須田牧子, 『中世日朝關係と大内氏』, 東京大学出版会, 2011

藤井崇, 『大内義隆』, ミネルヴァ書房, 2019

한문종, 「조선전기 왜인통제책과 통교위반자 처리」, 2003

민덕기, 『조선시대 일본의 대외교섭』, 경인문화사, 2010

윤성익, 『명대 왜구의 연구』, 경인문화사, 2007

민덕기, 『조선시대 일본의 대외교섭』, 경인문화사, 2010

이영 외, 『왜구·위사 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이영 외, 『부산과 대마도의 2천년』, 부경대학교대마도연구센터(국학자료원), 2010

송종호, 「고려말-조선초 대마도와의 통교 공백기(1369-1397)의 배경 및 양상」, 2003

송종호, 「정종 원년(1399) 등시라로 왜구 집단의 투항과 오에이의 난」 『한일관계사연구』 84, 한일관계사학회, 2024

이영, 『왜구와 고려·일본 관계사』, 혜안, 2011

伊藤幸司, 「大内氏の国際展開 - 14世紀後半 ~ 16世紀前半の山口地域と東アジア - 」, 2004

伊藤幸司, 「中世西国諸氏の系譜認識」, 2008

鹿毛敏夫, 『アジアの中の戦国大名』, 吉川弘文館, 2015

【토론문】

## 「정종1년 (1399년) 오우치 요시히로의 ‘백제후예’ 확인 문서 및 토전(土田) 하사 요구에 관한 고찰」에 대한 토론문

윤성익 (경희대학교)

<총평>

이현섭 선생님께서는 정종 1년(1399) 오우치 요시히로(大内義弘)가 자신의 집안이 ‘백제후예’라는 증거 문서와 백제 지역의 토지를 조선에 요청한 사건의 역사성과 관련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내용 및 결론은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이런 요구를 하게 된 배경, 맥락, 목적을 살펴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오우치씨의 선조인 琳聖태자와 관련한 논란 및 ‘임성태자=아좌태자’라는 견해, 오우치씨의 선조인 다타라(多々良)씨의 유래 등에 대해 논하고 이후 본 주제인 오우치씨의 ‘세계(世系)’ 확인의 경과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발표에서 가장 핵심이랄 수 있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다른 가능성과 비교하며 자기 자신 및 조선 조정을 향한 ‘이미지메이킹’이었다는 주장 및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시히로를 비롯한 오우치씨가 백제후손이었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이를 한일관계사학회를 비롯해 한국 역사학계에서 전문적으로 살펴본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이현섭 선생님의 노고와 열정이 잘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논문의 구성, 기본적인 문제 제기, 선행 연구 및 사료의 이용, 논리 전개 등에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로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오늘 발표하신 논문의 질적 향상 및 이후 이현섭 선생님의 연구 작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1. 논문의 구성

이현섭 선생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발표의 주목적을 생각하면, 발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2장의 ‘임성태자’와 관련된 내용은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내용은 고대사와 관련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본래 이 논문의 목적과도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을 포기하기 어렵다면 별도의 논고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무엇보다도 임성태자라는 인물 자체가 가공의 인물임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논문에 들어있으면 본래 논지를 훼손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3~4장의 내용 중 조선의 왜인 통제책의 추이나 요시히로가 요구하게 되었던 배경에 대한 설명이 너무 길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간략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에이의 난을 전후한 아시카가 요시미쓰와 오우치 요시히로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중복되는 것만이 아니라 모순된 서술이 보이기도 합니다.

중복서술되는 이유로 생각되는 것은 현재의 논리 전개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논지 전개는 1399년의 요구를 그 뒤인 1453년 노리히로(教弘), 1485년 마사히로(政弘)의

요구·주장과 통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목적을 역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이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1399년의 요구에 대한 내용 소개가 거의 없는 가운데 1453·1485년의 요구 내용과 목적을 각각 서술하고 그 다음 1399년을 설명하기 때문에 도리어 개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요시히로의 이미지메이킹의 대상이 누구인가(목적)가 가장 핵심 주제일 것이므로 4장에서 단독으로 이를 다루고 그 논리의 근거를 위해 3장에서 1399년부터 순서대로 각 시기의 요구 내용과 목적을 서술하면 이런 문제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2. 선행 연구 활용의 문제

발표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여러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기존 견해의 문제점을 들어내며 이현섭 선생님의 주장을 펼치셨습니다. 주요한 연구서들을 많이 참조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학계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디만, 오늘 발표에서는 이용하지 않으신 논문들이 있습니다.<sup>1)</sup> 특히 노성환의 논문은 임성태자 전설 및 오우치씨의 요구·주장과 관련해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제 여력 상 토론을 앞두고 읽을 수 있었던 일본의 연구들은 온라인상에서 열람할 수 있는 것 뿐이었는데,<sup>2)</sup> 오우치(다다량)씨의 선조 문제나 임성태자 전승에 대한 연구사의 정리, 전승의 형성 과정 등을 꽤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는 근거의 상당 부분은 이들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연구에 따르면 임성태자의 전승은 후대에 오우치씨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sup>3)</sup> 시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4세기 말에서 15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것<노성환>으로, 구체적으로는 요시히로의 뒤를 이은 모리아키라(盛見)의 창작<平頼直樹>이나 마사히로 때 만들어진 것<金羅喜> 등의 견해가 있습니다. 여하튼 일본에서는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보입니다.

이와 같은 기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임성태자를 실존 인물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임성태자가 가공의 인물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충분히 소개하고 이를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감안한다면, 현재 2장의 내용은 상당 부분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주목되는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김영태의 논문에서는 임성태자라는 이름은 가공의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의 업적이 너무나도 아좌태자와 유사하여 그를 아좌태자와

1) 김영태, 「백제 임성태자와 묘견신앙의 일본전수」, 『불교학보』 20, 불교문화원, 1983.

노성환, 「백제 임성태자의 일본이주전설에 관한 연구」, 『일어일문학』 67, 대한일어일문학회, 2015.

2) 金谷匡人, 「大内氏における妙見信仰の断片」, 『研究紀要』 19, 山口県文書館, 1992-3.

平頼直樹, 「室町期における大内氏の妙見信仰と祖先伝説」, 『史林』 97(5), 史学研究会, 2014.

金羅喜, 「大内義弘の百濟先祖伝承の意義」, 『国文学研究ノート』 第56巻, 神戸大学「研究ノート」の会, 2017.

渡辺 滋, 「古代の多々良氏から中世の大内氏へ—国衙在庁の中央出仕とその後—」, 『山口県立大学学術情報: 国際文化学部紀要』 16, 2023-3.

3) 노성환은 가공의 인물로 본 사례로 다음 연구들도 인용하고 있다.

熱田 公, 『大内義隆 -日本をつくった人々-』 13, 平凡社, 1979, p.4

佐伯有清, 『新撰姓氏録の研究考證編』 5, 吉川弘文館, 1983, p.334.

野口義廣, 「続<防長学>事始め」, 『山口県立大学国際文化学部紀要』 8, 山口県立大学, 2002, p.27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논리 및 결론이 오늘의 발표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런 점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임성태자와 무관하게 「多多良」의 유래에 대해 일본에서는 크게 3가지 설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渡辺 滋>에 정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그는 그 중 출신지의 지명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며 “다대포 주변을 지배하던 금관가야가 신라에 멸망당한 사건(532)에 의해 다다량씨의 선조가 왜국에 이주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3. 사료 이용의 문제

임성태자의 실존 여부를 떠나 2장의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사료 이용에 대한 것입니다. 임성태자가 누군지에 대해 논할 때 제시한 사료는 「多多良姓大内氏家譜」 뿐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사료의 신빙성과 다른 오우치씨의 계보, 기타 임성태자 관련 사료들과의 비교 등이 필요합니다. 발표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사료에 따라 임성태자가 일본에 온 시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보 중 『大内多々良譜牒』(내각문고, 일본 국립공문서관 청구번호 157-0102)은 추고 20년(612), 「鷲頭山旧記」 추고 6년(598), 「妙見縁起」 민달(敏達) 천황시기(573~585) 등으로 후대 성립된 문헌일수록 도래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도 지적하셨지만, 사료에 따라 부친이 누구인지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제시한 「多多良姓大内氏家譜」 만을 가지고 임성태자의 부친이 누구인지 나아가 아좌태자와 동일인이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것은 무리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 4. 오우치가 백제 왕자의 후손이 된 것은 어느 시점인가?

발표문에서는 1399년(정종1) 요시히로가 자신이 “백제 왕손(왕족)의 후손”인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요구하였다고 반복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p.3, p.11, p.17, p.19, p.22, p.31, p.34, p.36) 그리고 그 흐름에서 “요시히로는 자신이 백제 왕가의 후손임을 일본의 누가 알아주기를 바랐던 것일까?”(p.23)라는 문제 제기와 “천하를 놓고 겨루는 상대이자 ‘일본 국왕’을 자처하는 쇼군 요시미쓰에게 자신이야말로 백제 왕족의 후예임을 드러내고 싶어했을 수 있다.”(p.23)는 추정 및 “요시미쓰와 건곤일척의 대결을 앞둔 상황에서 “당신이 일본 국왕을 자처하지만 정작 나야말로 진짜 왕족이다. 우리 조상은 백제 온조왕의 후예로서 나는 그 피를 이어받은 고귀한 인물이다. 당신에게 절대로 굽힐 수 없다.”라는 자기최면이나 자존심 고취용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p.29)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렇지만, p.21에 인용한 것처럼 요시히로의 요청은 “나는 백제의 후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나의 세계와 나의 성씨를 알지 못하니, 갖추어 써서 주시기를 청합니다.”로 왕손의 후손임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정종 1년의 경우에는 요시히로 측에서 자신들의 시조가 백제 온조왕의 후손인 고(高)씨인데, 난(難)을 피하여 일본으로 도래했다고 주장”(p.17)했다고 서술했지만, “온조왕의 후손으로 고씨”라는 조선의 회답은 ‘假’-임시 혹은 가짜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요시히로 및 오우치씨의 요구 사항과 더불어 고려해야 할 것이 그들의 출자에 대해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를 시간순으로 배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新撰姓氏錄』: “**임나 출신**”

『고려사』 권114, 「열전」 27, ‘하을지(河乙沚) 전’, “처음에 일본의 대내의홍(大內義弘)이 조상이 **백제(百濟)**에서 나와서 <고려를> 자기의 종국(宗國)으로 여겼다.”

『정종실록』 1399년(정종 1) 7월 10일 : “**백제의 후손**” **요시히로의 요청**

『세종실록』 1441년(세종 23) 11월 21일 : “옛적에 **신라의 후예가 다대포(多大浦)에** 가서 놀다가 장가들어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의 대내전이 바로 그 후손”

『단종실록』 1453년(단종 1) 6월 24일 : “**백제국왕의 태자 임성, 임성은 대내공**” **노리히로의 요청**

『성종실록』 1473년(성종 4) 9월 10일 : “다다량정홍(多多良政弘)의 사자 원주덕(源周德)에게 말하기는 ‘너희 대내전은 족계(族係)가 **우리나라(我國)**에서 나갔으므로”

『성종실록』 1475년(성종 6) 8월 14일 : “대내전의 선조는 본래 **백제의 공족(公族)**. 한 **왕자(王子)**가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서 다다량포(多多良浦)에 정박하였다가 마침내 그곳에 거주”

『성종실록』 1485년(성종 16) 10월 7일 : **마사히로의 ‘國史’ 확인 요청**

#### <‘임성태자’ 관련 일본 문헌>

(初見)

-1404년(応永 11) 興隆寺(大內氏の 氏寺) 본당 낙성 공양 때 오우치 모리아키라(大內盛見)의 기원문.

\*『鹿苑院西國下向記』: 성립년도 1389년(康応 元)? 書寫연대는 무로마찌중기 무렵으로 추정. 1389년 아시카가 요시미쓰의 지방 순방기.

단, 임성태자 관련 부분은 1475년 이후<伊藤幸司>내지 15세기 후반(마사히로 시기) 이후 성립되었을 것<平頼直樹>

-1486년(文明 18) : 마사히로가 興隆寺를 勅願寺로 하기 위해 천황에게 『大内多々良氏譜牒』를 제출<金羅喜>

즉, 처음에는 오우치씨는 자신들의 선조들에 대해 한반도 출신의 도래인이라는 정도 외에 확신은 없었다고 보입니다. 오우치씨가 백제왕자의 후손임을 주장하게 된 계기는 1399년 조선이 만들어준 임시(가짜) 방편의 회답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일본의 사적들을 참조로 임성태자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내어 조선에 재차 확인을 요청하고 그 계를 확정했다고 보입니다.

#### 5. 이미지메이킹의 여러 가능성

백제의 후손, 혹은 왕손이라는 주장이 이미지메이킹이었다는 점은 분명할 것입니다. 다만, 그 목적을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일반 상식적인 차원에서 당시 일본의 무사, 특히 상급 무사의 가계(家格)을 위해 그들의 선조를 조작하는 사례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발표에서는 일본 국내를 향한 이미지메이킹이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데, 요시히로를 비롯한 오우치씨가 아시카가 요시미쓰를 비롯한

천황의 핏줄인 겐지 출신의 다이묘들을 상대하면서 자신들의 가격을 드러낼 필요성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오우치씨가 반복해 조선에 자신들의 출자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통시적으로 보면 조선과의 통교권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의 활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시히로 때는 확인이 쉽지 않지만, 『応永戦覧』 「北辰尊星供之事」에는 1398년 2월 13일에 요시히로가 氷上山에 올라가 친족·가신은 물론 일반 백성들까지도 모두 모아 놓고 백제국의 왕법이라는 北辰祭祀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1486년의 사례처럼 마사히로는 특히 오우치씨의 백제 선조에 대한 전승을 중앙으로 발신(發信)하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金羅喜> 이처럼 조선에 요청해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백제의 왕손이라는 증명을 받아낸 것은 대외관계나 개인적인 면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의 지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大内 3대 사원’의 하나로 임성태자 공양탑이 있는 乘福寺의 발굴조사에서 14세기 후반~15세기 초의 조선식 기와가 대량으로 출토되었습니다. 요시히로는 여러 차례 寺領을 기진했는데, 이로 미루어 요시히로 때 당우를 조선식으로 정비했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지에 조선식 건축물을 세운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권위를 높이고 세력을 결속시키는 데, 조선으로부터 공인 받은 백제의 후손(왕손)이라는 간판은 매우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노성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소기 목적인 가계의 기원을 밝히는 동시에 공적으로 조선과의 무역을 할 수 있는 특권을 획득한 것이었다. 이처럼 그들에게 백제국 임성태자의 전승은 조선과의 통교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백제왕손이라는 고귀한 혈통을 계승한 가문이라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할 수 있었다.(p.264)”

“막연히 자신들이 백제인의 후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1389년 오우치 요시히로의 대에 이르러 상당한 수준까지 발전된 임성태자의 전승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신빙성 있는 역사적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 몇 차례나 조선 측에 자신의 세계와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고, 그 때마다 조선 측은 최대한 성의를 기울여 공식적인 문건을 만들어 건네주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그들은 1453년과 1486년을 두 차례를 거쳐 대폭 첨삭을 가해 시조신화를 만들었다... 중앙의 역사를 의식하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현실에 맞추어 신화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임성태자의 일본이주전승은 14세기 말에서 15세기 후반에 걸쳐 완성된 시조신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조전승으로 그들은 국내적으로는 고귀한 신분의 가문이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했고, 국외적으로는 조선과의 통교와 교역에 적극 활용했다... 그들의 시조신화인 임성태자의 전승은 조선과의 교역 및 우호관계를 성립에 크나큰 공헌을 하였던 것이다.”(p.266~267)

## 6. 작지만 중요한 부분들

### 1) 제목

토전(土田) 하사 요구는 크게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고 주 목적은 ‘이미지메이킹’의 대상과 목적을 밝히는 것에 있으므로 「정종1년(1399년) 오우치 요시히로의 ‘백제후예’ 확인 문서 요구의 배경과 목적」은 어떨지요?

## 2) 문제 제기와 관련된 서술(p.3)

“요시히로는 일본의 정국을 공식적으로 주도하던 무로마치 막부의 대표가 아니었다. 그리고 당시 무로마치 막부의 공식 기관으로서 규슈 지역을 통치하고 대외 교섭과 통교를 담당하는 창구로서 규슈탄다이(九州探題)가 있었는데, 요시히로는 그 규슈탄다이에 속해 있지도 않았다. 오우치 요시히로는 서일본 지역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었지만, 여러 슈고다이묘 중의 한 명에 불과했다.”

-오에이의 난 발생 과정에서 요시히로에 대한 본문의 서술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슈고다이묘 중의 한 명”이라고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규슈탄다이가 대외 교섭과 통교활동을 했었지만, 다자이후에게 인정되었던 것과 같은 독점적 권한이 막부로부터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시히로는 豊前の 슈고직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규슈탄다이하와 무관한 관계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본문 중 몇 가지 예시를 들면 “오우치씨는 무려 6개 구니(國)를 영지로 장악하는 압도적인 힘을 자랑하게 되었고, 규슈탄다이도 오우치씨의 힘을 빌어 겨우 쇼니(少弐)·기쿠치(菊池)의 반란을 물리칠 정도였다.”(p.29) “남북조 합일기로부터 조일 수교 수립기 사이에 요시히로와 목숨을 걸고 경합했던 상대는 다른 슈고다이묘들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금(緞)’이 달랐던 것이다.”(p.30) “규슈탄다이하와 규슈 부교는 그저 이름뿐인 직책이었고 사다요가 물러간 이후 북큐슈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요시히로였다.”(p.34) 등의 서술 내용도 고려하면 현재 서론에서의 문제제기는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오우치 요시히로와 아시카가 요시미쓰와의 관계

앞서 지적한 것처럼 오에이 난이 발생하기까지의 과정 설명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특별히 인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내용을 좀 더 정리하고 정밀하게 확인해 서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시히로는 요시미쓰와의 통교 주도권 등을 놓고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서 세계확인 문서를 요청했고,”(p.19)

“양자가 본격적으로 대립하게 된 계기는 오에이 4년(1397년)에 요시미쓰가 기타야마의 로쿠온지(鹿苑寺) 조영을 시작하며 전국의 다이묘들에게 노력 공출을 요구하면서부터이다. 많은 다이묘들이 조영 공사에 동원되었지만, 유독 요시히로는 “무사란 활과 화살을 들고 임무를 다하는 것이 본분이다.”라며 무인으로서의 신념을 내세우며 응하지 않아, 요시미쓰의 불만을 샀다.”(p.20)

“유력 다이묘의 약체화를 꾀하고 있던 쇼군 요시미쓰는 요시히로의 세력 확대를 두려워하며, 쇼니씨 평정을 끝낸 요시히로에게 교토로 상경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압박했다. 쇼군의 속셈을 의심한 요시히로는 당연히 이에 응하지 않았다.”(p.20)

“(1395년 11월) 이마가와 사다요(今川貞世)가 파면되었다. 이미 1392년에 남조를 사실상 평정하여 남북조 합체를 이루었으므로, 이제 요시미쓰에게는 유력 다이묘인 오우치 요시히로만이 눈엣가시로 남아 있는 형국이 되었다.”(p.27)

“유력 슈고다이묘를 약체화시키기 위해 1379년... 야마나씨에게는 3개 구니만을 남겼다 (메이토쿠의 난). 이제 남은 것은 오우치 요시히로 뿐이었다.”

“마지막 남아있는 장애물인 오우치 요시히로는 쇼군에 버금갈 정도의 위세와 실력을 가지고 있었

다. 그런 요시히로에게 있어, 요시미쓰가 ‘일본국왕’이 되어가는 과정은 곧 자신의 몰락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1397년 요시미쓰가... 차출을 명했을 때 요시히로가 이를 거부한 사건도 ‘일본국왕’이 되어가는 요시미쓰에 대한 반감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pp.27~28)

“요시히로는 메이토쿠의 난에서 크게 전공을 세우고 그 공훈으로 이즈미(和泉), 기이(紀伊)의 슈고직을 받았다. 이로써 오우치씨는 무려 6개 구니(國)를 영지로 장악하는 압도적인 힘을 자랑하게 되었고... 요시히로가 요시미쓰와 가까워지게 된 것은 1389년 (고안 원년) 경으로 알려져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요시미쓰의 기타야마 저택 조영 공사예의 무사 동원 문제, 쇼니 사다요리 토벌 작전과 관련한 배후 음해 소문, 논공행상의 불만 등을 계기로 양자간의 관계는 급격히 대결구도를 향해 치달아갔다.”(p.31)

요시히로와 요시미쓰의 관계가 악화되고 오에이의 난이 발발하는 계기로는 보통 1397년의 鹿苑寺 조영이 언급되는 데, 메이토쿠의 난 이후 시점 혹은 1395년 요시미쓰가 출가한 직후에 이미 요시미쓰가 요시히로를 제거 대상으로 삼았다거나 요시히로가 요시미쓰에 대해 위기감을 가졌다고 서술하는 등 내용이 일정치 않습니다.

“통교 주도권 등을 놓고 사투를 벌이는 와중”이라는 표현도 그다지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요시미쓰는 1395년 출가 전에 쇼군직을 아들인 요시모찌에게 양도하고 태정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요시미쓰에 대해 쇼군이라는 호칭을 쓰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4장의 1. 시대적 배경 개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요시미쓰와의 관계 및 오에이 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개괄하여 후반부의 이미지메이킹의 목적을 서술할 때는 굳이 이를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2발표

조선 세조(世祖) 대의 상서(祥瑞) 축하사  
연구

발표 : 김동우(부경대학교)  
토론 : 송종호(방송통신대학교)

【제2주제】

# 조선 세조(世祖) 대의 상서(祥瑞) 축하사 연구

김 동 우\*

목차

- I. 머리말
- II. 세조의 왜인 통제
  - 1. 계해약조(癸亥約條)의 성립
  - 2. 세조의 대응
- III. 상서 축하사의 성격
  - 1. 쓰시마(對馬)와 하카타(博多)의 접촉
  - 2. 상서 축하사의 모습
- IV. 맺음말

## I. 머리말

세조(世祖) 8년(1462) 상원사에 거동할 때 관음보살이 현상(現相)하자<sup>1)</sup> 백관들이 전(箋)을 올려 진하(陳賀)하고, 세조는 교서(敎書)를 내려 대역죄 및 살인·강도를 범한 외에는 사면케 하였다. 이후로 세조 14년 말년까지 불교 관련 32회의 이적(異蹟)이 나타나고 21회의 사유(赦宥)와 은전(恩典)이 있었다. 세조 12년(1466) 세조는 일본국 히젠슈 카미마쓰라(肥前州 上松浦) 나쿠야(那久野=名護屋) 노토노카미(能登守) 후지와라노 요리나가(藤原賴永)가 보낸 승려(僧) 주린(壽蘭) 서기(書記)에게 일본 국왕에게 보내는 글을 부탁하였다.<sup>2)</sup>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에 따르면 그해 치쿠젠슈(筑前州) 노부토시(信歲)가 내조하여 관음보살이 현상한 것을 치하한 것이 가장 이른 축하사였다.<sup>3)</sup> 노부토시를 시작으로 축하사(祝賀使) 68명과 주린이 조선을 떠난 뒤 교토(京都)에 들려오는 길에 주린을 호송하거나 접대를 이유로 내조한 사신이 12명, 그리고 주린과 함께 온 일본 국왕(日本國王) 미나모토노 요시마사(源義政=足利義政)기 보낸 사신 신엔 동당(心苑東堂)까지 포함하여 81명이 세조의 상서와 관련한 사절이었다. 그리고 축하사 68명 중 1명은 세조 14년(1468) 류큐 국왕(琉球國王)의 아우 민의(閔意)이고,<sup>4)</sup> 34명은 원래 접대하지 않았으나 쓰시마 도주 소 사다쿠니(宗貞國)의

\* 부경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1) 『世祖實錄』 29권, 세조 8년 11월 5일 을미 1번째 기사.

2) 『世祖實錄』 36권, 세조 12년 윤3월 28일 기해 3번째 기사.

3) 『海東諸國記』 「日本國紀」 信歲 條.

4) 『世祖實錄』 46권, 세조 14년 6월 22일 경술 1번째 기사.

류큐 국왕의 아우 민의(閔意)의 축하사 기록은 『해동제국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조실록』에 기록이 있을 뿐이다. 다만 『해동제국기』 「류큐국기(琉球國紀)」에 류큐국 중평전대도 평주수 등민의(琉球國中平田大島平州守等閔意)라는 자가 기축년(1469)에 내조한 기사가 있다. 『中宗實錄』에 등민의의 이름에 等閔意, 等閔意가 같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세조실록』과 『해동제국기』의 인물을 동일인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청(請)으로 접대를 허락한 인물들이다.

이 상서(瑞祥) 축하사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나카무라 히데다카(中村榮孝)는 일본에서 큰바람과 홍수의 재해로 인하여 기근이 들고, 특히 세조 13년(1467)에 오닌의 난이 일어나 이를 기회로 삼아 조선으로 도해하여 온 축하사 및 소 사다구니의 요청에 의한 인물들은 진사(眞使)로 보고 있다. 다만 주린과 함께 온 왕성대신사(王城大臣使) 신엔 동당과 주린의 호송을 근거로 도해한 사절들에 대해서는 위사(僞使)로 보고 있다.<sup>5)</sup>

다나카 다케오(田中健夫)는 기서(奇瑞)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전후에 유례없는 수에 달하는 통교자가 도항하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면서, 그 배경으로 소씨(宗氏) 내지 주린과 서일본 각지의 크고 작은 호족(豪族)과의 사이에는 상당히 긴밀한 연락이 이 시기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은 조선과의 통교를 배경으로 지탱하는 상업권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고 바꿔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오닌(應仁)의 난이 여러 호족의 관심은 어떤 요인으로든 조선과의 통교로 향한 것이고, 소 사다모리의 요청으로 접대한 경우에는 소 사다모리의 조선에서의 특별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사실이 일본 국내의 사람들로 부터 충분히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일련의 사절들을 모두 진사로 보고 있다.<sup>6)</sup>

다카하시 키미야키(高橋公明)는 일본 국왕사(日本國王使)의 경우 명의인의 의지와 사절과의 관계를 확신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조선 국왕 세조 왕권의 성격과 조선 견사 붐을 연결하며, 일본인들의 「조선대국관(朝鮮大國觀)」이라는 인식을 가진 다른 축하사들은 진사로 보고 있다.<sup>7)</sup>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는 다카하시 키미야키의 의견에 대하여 조선 견사 붐을 설명할 때 「조선대국관」을 상징할 필요는 없으며, 좀 더 경제적 요인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8)</sup>

이노우에 히로시(井上寛司)는 81명의 인물 중에 서일본해 연안부의 15명을 확인하여, 조선과의 교류는 경제적인 이익의 추구뿐만 아니라 조선과의 결합을 배경으로 하여, 지역 지배, 영주(領主) 권력의 안정화를 지향하는 정치적인 성격을 강하게 띤 것이라 하였다.<sup>9)</sup>

하시모토 유(橋本雄)는 왜인 사절의 대부분은 세조 왕의 덕을 필요 이상으로 찬양하여, 세조 왕대에 일어난 불교 기서를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보내온 위사라고 하며, 그 주체를 쓰시마(對馬)와 하카타(博多)의 연합으로 본다.<sup>10)</sup> 이는 오사 세쓰코(長節子)의 위사의 주체가 쓰시마인으로 보는 견해와는 의견이 갈린다.

오사 세쓰코(長節子)는 견사자 대부분이 조선 측의 축하 일본 국왕사의 도래를 대망(待望)하는 조선 왕조의 정치적 상황을 쓰시마 도주 소씨가 천재일우의 호기로서 교묘히 이용한 위사라고 하면서, 쓰시마 소씨(宗氏)가 상서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조직적으로 파

5) 中村榮孝, 「歲遣船定約の成立」 『日鮮關係史の研究』 下 (東京:吉川弘文館, 1969) pp.41~53.

6) 田中健夫, 「第四章 明および朝鮮との通交貿易の展開」 『中世對外關係史』 (東京:東京大學出版會, 1975) pp.182~188.

7) 高橋公明, 「朝鮮遣使ブームと世祖の王權」, 田中健夫 編 『日本前近代の國家と對外關係』 (東京:吉川弘文館, 1987) pp.361~363.

8) 村井章介 『동아시아 속의 중세 한국과 일본』 손승철·김강일 역 (서울:경인문화사, 2008) pp.437~438.

9) 井上寛司, 「中世西日本海地域の水運と交流」 網野善彦 他編, 『日本海と出雲世界 海と列島文化2卷』 (東京:小學館, 1991) pp.373~375.

10) 橋本雄 「中世日朝關係における王權大臣使の僞使問題」, 『史學雜誌』 106編 2号, 1997년. pp.70~71, 동저 『偽りの 外交使節』 (東京, 吉川弘文館, 2012) pp.138~144.

견한 것으로 본다.<sup>11)</sup>

세조 대의 불교 상서 현상과 관련한 일본의 사인(使人)들을 진사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 축하사 대부분이 지금까지 조선과 통교를 한 번도 맺은 적이 없는 명의인으로 갑자기 축하를 명분으로 조선으로 짧은 기간에 집중하여 온 점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사로 보는 견해로는 위사 기획 세력이 쓰시마의 단독으로 보는 견해와 쓰시마와 하카타 연합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는데, 많은 축하사를 기획하고 창출하는데 하나의 세력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 II. 세조의 왜인 통제

### 1. 계해약조(癸亥約條)의 성립

고려말부터 성행하던 왜구는 조선 초기 회유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대신에 통교를 이유로 도해하는 왜인이 급증하였다. 세종 21년(1439) 예조에서 쓰시마 태수 소 사다모리(宗貞盛)에게 보낸 글에 의하면 근년 도항한 왜인이 수가 1만에 가깝고, 지출된 급량료(給糧料)가 거의 10만 석에 달한다고 하였다.<sup>12)</sup> 하지만 그동안 왜인 규제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태종, 세종 대부터 도항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수도서제(授圖書制)와 일본인들이 도항할 수 있는 내이포(乃而浦=薺浦)·부산포(富山浦)·염포(鹽浦)를 지정하여 이곳을 제외한 다른 포소(浦所)로는 기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서계(書契)·행장(行狀)·노인(路引)·문인(文引) 등 일종의 증명 문서로 확인을 한 후에 통교를 허락한 방법도 있었다. 특히 문인의 경우에는 세종 8년(1426) 소 사다모리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중략) 여러 곳에서 잡인들이 범람하여 각처에서 횡행하고 있으므로, 사신의 배와 무역하는 배는 모두 노인(路引)을 주었으니, 금후로는 노인을 갖지 않은 자는 접대하지 말 것입니다....<sup>13)</sup>

이 요청은 세종 20년(1438)에 의정부의 검토를 통해 확립되었다.<sup>14)</sup> 일본 국왕사와 일부 거추사(巨酋使)를 제외한 모든 통교자는 쓰시마 도주가 발행하는 문인을 가져야만 접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여러 지역의 호족들에게도 허용되었던 문인 발행권을 쓰시마 도주로 일원화하는 것이었다. 조선 정부로서는 통교 일원화로 효과적인 통제책이 되었고, 쓰시마 도주로서는 이를 이용하여 쓰시마 내의 지배력을 장악하였고, 문인 발행에 따른 수수료의 수취, 교역 물품에 대한 과세 등을 통해 조선 무역의 독점적 권한과 이익을 가지게 되었다.<sup>15)</sup>

그러나 문인 제도라도 왜인의 도항 수가 줄어들지 않고 비용도 과도하게 지출되었다. 조선 조정은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빈번하게 도항하던 쓰시마의 선수(船數)를 제한

11) 長節子, 「朝鮮前期朝日關係の虚像と実像」 『年報朝鮮學』 九州大學朝鮮學研究會 編 (通号 8) 2002. pp.36~38.

12) 『世宗實錄』 87권, 세종 21년 10월 21일 병신 2번째 기사.

13) 『世宗實錄』 32권, 세종 8년 5월 21일 갑인 2번째 기사.

14) 『世宗實錄』 82권, 세종 20년 9월 18일 기해 2번째 기사.

15)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 조선 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77, (서울:동북아역사재단, 2018) pp.171~172.

하기로 한 것이다. 이것이 세종 25년(1443)에 맺어진 계해약조(癸亥約條)이다. 계해약조의 내용은 이렇다.

①세견선은 50척으로 한다.

②삼포에 머무르는 자의 체류 기간은 20일로 하고, 상경한 자의 배를 지키는 간수인(看守人)은 50일로 하며, 이들에게 식량도 배급한다.

③세사미두(歲賜米豆)는 200석으로 한다.

④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특송선(特送船)을 파송할 수 있다.

⑤고초도(孤草島)에서 고기잡이하는 자는 지세포만호(知世浦萬戶)의 문인을 받아야 하고, 어세(漁稅)를 내어야 한다.

세견선은 쓰시마 각지에서 조선으로 무역을 위하여 오는 선박으로 계해약조에 따른 세견선의 제한은 조선과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쓰시마 측으로는 매우 엄중한 내용이었다. 쓰시마 도주 소 사다모리가 쓰시마에 불리한 약조를 맺은 이유는 무엇일까? 1443년 신숙주가 조선통신사 서장관(書狀官)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쓰시마 도주 소 사다모리를 만났다.

우리나라(조선)가 도주(島主)와 더불어 세견선(歲遣船)의 수(數)를 약정(約定)하려고 하는데 도주가 아랫사람들에 오도(誤導)되어 의위(依違)하게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듣고, 신숙주가 도주에게 말하기를, '배의 수가 정해지면 권한이 도주에게 돌아갈 것이요, 아랫사람들에게 이익되는 바가 없을 것이며, 수를 정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할 것인데, 무엇 때문에 도주에게 의뢰하겠습니까? 그 이롭고 해로운은 지혜로운 자를 기다리지 아니하더라도 뒷날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도주가 드디어 약속을 정하였다.<sup>16)</sup>

쓰시마 도주는 세견선 수를 정약하는 불리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도내의 장악력(掌握力)을 키우기 위해서 약속한 것이다. 즉 조선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도주의 할당을 받지 않으면 통교할 수 없게 되어 문인제도의 활용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쓰시마 내에서의 통제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sup>17)</sup> 이에 대해 하시모토 유(橋本雄)는 소 사다모리가 조선에 순순히 복종하는가는 걸치레일 뿐이고, 진심으로 신숙주의 설득에 응한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그런 것은, 어떻게든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sup>18)</sup>

## 2. 세조의 대응

1452년 부왕 문종(文宗)의 뒤를 이어 어린 단종(端宗)이 즉위하였다. 그리고 쓰시마에서는 도주 소 사다모리가 그해 6월 22일에 죽고, 아들 소 시게모토(宗成職)가 새로운 도주가 되었다.

다음 해 10월 10일 세조가 수양대군(首陽大君)이었던 시절 김종서(金宗瑞)·황보인(皇甫仁)

16) 『成宗實錄』 56권, 성종 6년 6월 21일 무술 1번째 기사.

17) 長節子, 『中世日朝關契と對馬』(東京:吉川弘文館, 2017) pp.181~182

18) 橋本雄 『偽りの 外交使節』(東京, 吉川弘文館, 2012) p.36.

등을 죽이고 정권을 잡았다. 이것이 바로 계유정난(癸酉靖難)이다. 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영경연서운관사(領經筵書雲觀事) 겸판이병조사(兼判吏兵曹事)가 되어 권력의 정점에 섰다. 그러므로 정난 이후의 일본에 대한 대응은 세조의 뜻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소 사다모리의 뒤를 이은 소 시게모토는 세견선 정약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고심 했을 것이다. 그 해결책으로 고안한 것이 위사의 창출과 세견선 선수에 특송선을 산입시키지 않으려는 시도이다.

대표적인 예가 단종 2년(1454) 8월의 일이다. 소 시게모토가 보낸 삼보라도로(三甫羅都老)·우계사야문(于桂沙也文) 등이 탄 배 12척이 제포(薺浦)에 이르렀는데, 변장(邊將)은 약정한 50척이 다 왔으므로 접대를 거절한다. 그래도 삼보라도로 등은 돌아가지 아니하였고, 소 시게모토가 다시 특별히 보낸 무라야마로(無羅也麼老)와 삼마로수계(三麼老愁戒)가 오자, 도주(島主)가 우리를 위하여 저들을 특별히 보낸 것이라고 하면서 조선에서 수계(愁戒)의 접대 여부(與否)를 기다려서 돌아갈 것인지 머무를 것인지 정하겠다고 한다. 이 때문에 조정은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 원효연(元孝然)을 포소로 보내면서 사목(事目)을 주었는데, 내용 중에 ‘선왕(先王=세종) 때에 소 사다모리(宗貞盛)와 「매년 50척을 보내되, 비록 우리나라에서 벼슬을 받았거나 도서(圖書)를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두 50척 내로 하고, 또 비록 삼착(三着)을 찍어 특별히 보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1년에 5척에 불과(不過)하며, 이 역시 50척 내에 든다」라고 하며, 지금 소 시게모토(宗成職)는 선부(先父)를 계승한 지 겨우 2년여 동안에 선수(船數) 외에 보낸 배가 심히 많다고 지적하였다.<sup>19)</sup> 즉 이번에도 12척이 특송선임을 주장하며 정약 선수 50척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삼보라도로 등의 주장이고, 조선에서는 사다모리 사후 시게모토의 쓰시마 치세 동안에 세견선 정약수보다 많은 배가 도항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셈이다. 그해 말에 조선 조정은 원효연을 대마주 경차관(對馬州敬差官)으로 삼아 쓰시마로 보내어, 도주 계해약조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자 하였다. 원효원이 가져간 사목의 주요 내용으로는 삼착 도서(三著圖書)로 특별히 보내는 사람도 50척 수 내에 포함되는 것이며, 전례(前例)로 약정한 수 외이더라도 상경한 경우는 성상께서 특별히 명하여 상경한 것이다. 수직인(受職人)에 대해서는 약조에 특별히 칭하지는 않았으나, 호군(護軍)의 벼슬을 받은 자는 연변(沿邊) 제읍(諸邑)에서 예대(禮待)하기를 조선의 조사(朝士)와 같은 의미므로 약정한 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쓰시마는 인근(隣近)의 번리(藩籬)인데 수를 정하면서도 심처왜(深處倭)의 사선(使船)은 정한 수[定數]가 없이 접대(接待)하는가에 대해서는, 심처왜는 사선(使船)의 수가 드물어 1년에 한 척 혹은 1, 2년 또는 3, 4년을 걸러서 보내므로 일찍이 그 수를 정하지 않았지만, 근년(近年)에 이키(一岐) 내의 4, 5곳에서 사람이 빈번히 사선을 보내어서, 조선에서도 장차 구처(區處) 하겠다는 것이다.<sup>20)</sup>

다음 해 4월 원효원의 치계(馳啓)의 내용 중에 후루가와(侯樓加臥=古河)가 말하길 「이 섬에서 육지 사람에게 노인(路引)을 발행한 때에, 그 수세(收稅)가 작은 것은 5, 60필에 내려가지 않고, 많은 것은 4, 5백 필에 이르니, 오로지 그 이(利)에 의존합니다. 지금 만약 본도(本島, 쓰시마)에서 이처럼 약속을 어기어 호군직을 받은 자를 수외(數外)로 계산하면, 우리나라에서 육지 사람의 배에 대해서도 지대(支待)하기가 어려워 장차 반드시 접대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같이 말하면, 노인(路引)의 이(利)를 잃을까 염려하여, 답사(答辭)를 고칠 것입니다.<sup>21)</sup>」라고 하였지만 그 이후의 가부 여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전 답사가 조

19) 『端宗實錄』 12권, 단종 2년 8월 6일 을유 2번째 기사.

20) 『端宗實錄』 12권, 단종 2년 12월 7일 계미 3번째 기사.

선의 뜻에 반하는 내용이었던 점은 짐작할 수가 있다.

이후 세조는 강맹경(姜孟卿)에게 조선 내에 들어오는 왜선(倭船)의 척수를 정하는 등의 일을 의논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우참찬(右參贊) 황수신(黃守身)이 경상도 관찰사로 있을 당시 제포에 있는 왜인이 호수(戶數)로는 92호이고, 인구(人口)는 4백 16명인데, 노약자(老弱者)를 제외한 장용(壯勇)한 자는 1백 14명이었다. 또 일본 여러 지역에서 와서 포구(浦口)에 머무르는 자가 2천 11명이며,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또한 많다고 말하였다.<sup>22)</sup> 이해 말 예조는 삼포에 사인으로 와 있는 왜인이 6,116명으로 보고하고 있다.<sup>23)</sup> 이 인원들에게 들어가는 접대 비용은 조선의 입장으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양이었을 것이고, 만약에 접대에 소홀하다 하여 왜인들이 폭도로 돌변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선으로 도해하는 왜선의 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라 보고 척수를 정했을 것이다. 급기야 쓰시마 도주를 거추(巨酋)의 예에 따라 접대하기는 하지만, 정약 50척은 여러 섬의 사인의 예(禮)로써 접대(接待)하기로 하고, 별례(別例)로 특별히 보내오는 사람만 거추의 예로 접대하기로 하였다.<sup>24)</sup> 또한 세조 2년(1456)에는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와 좌우도 절제사(左右道節制使)·좌우도 처치사(左右道處置使)에게 ‘도왜(島倭)들이 배의 숫자를 정액(定額)한 데 감정을 품고 변방을 침략하려고 한다.’ 하여, 방비(防備)에 더욱 삼가도록 하라며 유시(諭示)하였다.<sup>25)</sup> 세조 13년(1467)에는 소 히코쿠로 마시히데가(宗彦九郎貞秀) 세간 상선(歲遣商船)의 숫자를 늘리도록 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sup>26)</sup>

이렇듯 세조 초기부터 말기까지도 조선으로서는 도해한 왜인들에 대한 접대 비용은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다가왔고, 쓰시마 입장에서도 줄어든 정약 수에 따른 불만이 없을 수 없었다. 특히 세조의 입장으로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북쪽으로 국력을 집중해야 할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더욱이 남쪽에 관심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 III. 상서 축하사의 성격

#### 1. 쓰시마(對馬)와 하카타(博多)의 접촉

소 사다모리(宗成職)는 1431년(세종 13, 永享 3) 11월 오우치 모치요(大內持世)의 북부 규슈의 진공에 맞선 쇼니 요리요리(少貳嘉賴)의 출진 요청을 받고 이듬해 3월 4일 이전에 치쿠젠에 도해하여 하카타를 장악하였다. 이는 하카타-쓰시마-조선이라는 주요 유통 경로를 확보한 것을 의미한다.<sup>27)</sup> 당시 하카타는 물산의 집산지로서 쓰시마 입장에서는 조선 통교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으며, 하카타의 입장으로도 조선 통교에 서계 발행권을 가진 사다모리와 관계를 맺어 조선의 통교권을 확보하려고 했을 것이다.

21) 『端宗實錄』 14권, 단종 3년 4월 7일 임오 1번째 기사.

22) 『世祖實錄』 1권, 세조 1년 7월 18일 신묘 1번째 기사. 『世祖實錄』 1권, 세조 1년 7월 22일 을미 1번째 기사.

23) 『世祖實錄』 2권, 세조 1년 12월 8일 기유 2번째 기사.

24) 『世祖實錄』 33권, 세조 10년 7월 15일 병인 2번째 기사.

25) 『世祖實錄』 4권, 세조 2년 6월 20일 무오 1번째 기사.

26) 『世祖實錄』 43권, 세조 13년 7월 21일 갑신 4번째 기사.

27) 伊藤幸司 「日朝関係における偽使の時代」 『韓日歴史共同研究報告書・第2分科篇』 (韓日歴史共同研究委員会, 2005) pp.142~144.

특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국왕사와 일부 거추사(巨酋使)를 제외한 모든 통교자는 쓰시마 도주가 발행하는 문인을 가져야만 했기 때문에 하카타 상인들로서는 소 사다모리와 의 관계는 조선과의 무역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였다. 하지만 세종 21년(1439) 4월에 조선으로 온 사인이 무려 1천 3백여 인으로 접대하기에 곤란하다는 논의가 있었다.<sup>28)</sup> 이에 대한 이에(李藝)가 아뢰기를

"왜인(倭人)으로서 종정성(宗貞盛)·종언칠(宗彦七)·종무직(宗茂直) 등의 서계(書契)를 받아서 오는 자들을 신이 자세히 살펴보니, 모두 대마도 사람만이 아니오며, 간혹 농업을 일삼지 아니하고 도독질로 업을 삼다가 대마도의 배에 부탁하여 오는 자가 있습니다. 만약 좌지전(佐志殿)·지좌전(志佐殿)·살마주(薩摩州)·석견주(石見州)·대우전(大友殿) 등의 서계를 받은 자도 혹 위조하여 오면, 간사한 무리들이 여러 방법으로 연고를 칭탁하여 연달아 올 것이오니, 이로 인하여 공궤하기가 번거로울 것입니다..... 하건대, 종정성과 소이전(小二殿)에게 후하게 하사하여 그 폐를 금단(禁斷)하게 하옵고, 지좌전·좌지전·살마주·석견주·대우전 등지에서 받은 서계와 문인으로서 위조한 것은, 청하건대, 별도로 대내전(大內殿)에게 사절을 보내어 적당하게 금단시키도록 하소서."<sup>29)</sup>

라고 하였다. 쓰시마 도주의 문인제도가 성립한 이후에도 서계와 문인을 위조하여 온 사인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은 그해 10월 위조된 문서로 온 자들에 대한 대우에 대하여 다음 해 정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그 뜻을 소 사다모리에게 통보하였다.<sup>30)</sup> 조선으로 오는 왜인들에 대한 서계와 문인의 발행을 담당하는 쓰시마 도주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의미인 셈이다. 한편 서계나 문인을 위조하여 온 왜인들이 모두 하카타 출신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시 조선과의 무역에 공을 들이고 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세력으로 하카타 상인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하카타 상인은 이전부터 서계에 의한 통제 회피책으로서 규슈 탄다이(九州探題) 시부카와씨(澁川氏) 명익와 오토모씨(大友氏) 명의·소 사다모리 명의의 위사나 명의를 발려 통교를 전개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위조 서계의 명의로써 소 사다모리와 함께 이름이 알려져 있는 소 모리쿠니(宗彦七盛國)와 소 시게나오(宗茂直)는 소씨가 치쿠젠에 진출했을 때, 적극적인 하카타 지배를 전개해 하카타 상인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었다.<sup>31)</sup>

하지만 1436년(세종 18, 永享 8) 북부 규슈는 다시 오우치 모치요의 진출로 분쟁으로 빠졌고, 이듬해 5월 오우치 세력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후 1440년(세종 22, 永享12) 막부의 쇼니 요시요리(少貳嘉賴)의 사면으로 다시 하카타는 쇼니씨와 쓰시마 소씨 세력이 지배하게 된다. 이후 하카타는 소씨와 오우치씨에 의해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지배가 계속되지만, 1447년(세종 29, 文安 4) 오우치 노리히로(大內教弘)가 치쿠젠(筑前) 슈고(守護)에 보임(補任)되면서, 쇼니씨·소씨의 체제는 약화 되었고, 소 사다모리 자신도 쓰시마로 돌아갔다. 1469년(세조 15, 應仁 3)에 아시카가 요시마사(足利義政)가 쇼니 요리타다(少貳賴忠)에게 명령하여 그의 옛 땅을 회복하도록 하고, 소 사다쿠니(宗貞國)는 요리타다를 도와 하카타로 출병하였다. 그해 7월에 다자이후(宰府)에 이르러 옛 영토를 모두 회복하였다. 요리타다는 사다쿠니에게 하카타를 지키게 하였는데, 이때 자신은 하카타의 서남쪽 반 리 거

28) 『世宗實錄』 85권, 세종 21년 4월 17일 갑오 1번째 기사.

29) 『世宗實錄』 85권, 세종 21년 4월 18일 을미 6번째 기사.

30) 『世宗實錄』 87권, 세종 21년 10월 20일 을미 2번째 기사.

31) 伊藤幸司 「日朝関係における偽使の時代」 『韓日歴史共同研究報告書・第2分科篇』 (韓日歴史共同研究委員会, 2005) p.145.

리 수미요시(愁未要時=住吉)에 머물러 있고, 휘하를 보내어 하카타를 지키게 하였다. 요리타다는 사다쿠니에게 히젠슈(肥前州)의 치바씨(千葉氏)를 치게 하였는데, 사다쿠니가 이를 어렵게 여겼으나 요리타다는 강제로 보냈다. 그런데 큰 눈이 내려 패전하고 돌아왔으며, 쓰시마 군사 1천 명도 추위로 몸이 얼고 손발이 터져 죽은 자가 많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사다쿠니는 1471년(성종 2, 文明 3) 조선의 선위관(宣慰官) 전양민(田養民) 등을 맞이한다는 이유로 쓰시마로 돌아갔다.<sup>32)</sup>

사에키 코지는 오키노하마(息浜)와 함께 중세의 하카타를 구성했던 구 하카타부(舊博多部)의 변천을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sup>33)</sup>

<표 1. 지역 권력에 의한 博多의 지배 상황>

연대	서기	舊 博多部	息濱
元弘 3· 8·28	1333	?	大友貞宗
貞和 2· 8·11	1346	一色範氏	一色範氏
康安 元· 8·28	1361	征西府?	征西府?
應安 5	1372	今川了俊?	今川了俊?
應永 3	1396	澁川滿賴	澁川滿賴
永享 元	1429	?	大友持直
永享 3	1431	大內盛見	大友氏?
永享 4	1432	宗貞盛	大友氏?
永享 9	1437	大內持世	大友氏?
永享 12	1440	宗盛國	大友氏?
嘉吉 3	1443	大內教弘	大友氏?
文安 2	1445	宗盛家	大友氏?
文安 4 무렵	1447	大內教弘	大友氏?
文明 元	1469	宗貞國	大友親繁
文明 20	1478	大內政弘	大友親繁

\* 佐伯弘次 『조선 정기 한일관계와 博多·對馬』 손승철·김강일 편역에 있는 표이다.

<표 1>에 의하면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 중기에 구 하카타부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많은 변천이 있었다. 특히 1431년(세종 13, 永享 3)은 오우치 모치요(大內持世)의 부젠(豊前)·치쿠젠(筑前) 진공에 맞선 쇼니 요리요리(少貳嘉頼)의 출진 요청을 받은 사다모리가 이듬해 3월 4일 이전에 치쿠젠에 도해하여 하카타를 장악한 해로서, 그 이후로 구 하카타부는 쓰시마 소씨(쇼니씨)와 오우치씨가 번갈아 가며 지배하게 되었다.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인물이 1466년(세조 12, 文正 1)년 카미마쓰라(上松浦) 나쿠야(那久野=名護屋)의 후지와라노 요리나가(藤原頼永)가 보낸 승려(僧) 주린(壽蘭)이다. 주린은 중국인 양길(楊吉)의 쇄환(刷還)을 위하여 조선으로 도해하여 온 자이다. 그러다가 세조가 강원도를 순행했을 때 금강산(金剛山)에서 있었던 기서 현상에 대하여 일본 국왕에게 보내는 글을 주린에게 부탁하게 된다.<sup>34)</sup> 당시 세조는 일본 국왕에게 통신하기를 의논하고 있었는데, 풍파가 험하고 수로가 먼 관계로 제주(諸酋)의 사신을 통하여 통문(通問)하고자 하였다.

32) 신숙주 『海東諸國記』 『日本國紀』 筑前州 少貳殿 條.

33) 佐伯弘次 『조선 정기 한일관계와 博多·對馬』 손승철·김강일 편역 (서울:경인문화사, 2010) pp.81~82.

34) 『世祖實錄』 38권, 세조 12년 윤3월 28일 기해 3번째 기사.

이때 관(館)에 있던 자로서는 주린(壽蘭)이 그중에서 조금 사리를 이해하므로 주린에게 명령하여 국서(國書)와 예물을 주어서 국왕에게 보내고, 또 예조(禮曹)에 명하여 오우치도노(大內殿)와 요리나가(賴永)를 서장(書狀)으로 개유(開諭)하고 호송하여 사물(賜物)을 함께 보내게 된 것이다. 주린은 1466년 5월 명령을 받고 돌아갔는데, 4년 후인 1470년(성종 1, 文明 2)에 돌아온 것이다. 주린은 1446년 6월에 카미마쓰라로 돌아가서 배를 수리하고 행장을 준비하여 1467년(세조 13) 2월에 교토로 떠났다. 그때 수도에서 병란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오닌의 난(應仁の亂)이다. 오닌의 난으로 해적(海賊)이 사방에 가득하고 세토나िका이(瀬戶內海)의 길이 막혔으므로, 북해(北海)로 하여 4월이 되어서야 와카사(若狹)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적이 종횡하므로 혹은 샛길을 따라서 가고, 혹은 머물러 지체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 겪고 60일 만에야 교토에 도착하여 서장과 예물을 일본 국왕에게 전달하고 도후쿠지(同福寺)에 묵었다. 일본 국왕 아시카가 요시마사(足利義政)는 이때 호소카와도노(細川殿) 진중에서 야마나도노(山名殿)와 서로 겨루고 있는 정황으로 답서를 써서 줄 경황이 없었으므로 1468년(세조 14) 2월에 와서야 답서를 받았고, 또한 요시마사는 답사(答使)가 없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다시 의논토록 한 뒤에 호소카와 가쓰우지(細川勝氏)에게 명하여 방물을 준비하고 사신을 보내게 하였다는 것이다. 가쓰우지는 자기가 서장을 만들어 신엔동당(心苑東堂)을 보내고, 그때 주린도 함께 왔다. 그런데 주린은 오우치도노(大內殿)의 서신과 사물(賜物)은 사람을 시켜 전송하도록 하였는데 그만 해적(海賊)에게 약탈당하였다고 한다. 조선 조정은 주린의 말에 진실성이 결여되어 믿을 수가 없다는 기사가 『해동제국기』에 실려 있다.<sup>35)</sup>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조선 국왕 앞으로의 국서 집필에 관해, 1472년(文明 4) 8월, 즈이케이 슈호(瑞溪周鳳)가 펴낸 『멘코쿠데츠젠지교조(綿谷颯禪師行狀)』에 다음과 같은 기사(記事)가 있다.

(전략) 8월 병술년(丙戌歲, 1466), 고려 서를 만들어 보냈다. (製遣高麗書) 난 이후 또 고려에 보내는 답서를 만들라는 명이 있었다. (亂後又有可製高麗報書之命) 여러 차례 사양하였다. (再三辭之) 이 시기 고려서를 전하는 자는(此時伝高麗書者) 도호쿠지 문하 승려이다. (東福門下僧也) 이런 까닭에 가가쿠 오쇼가 글을 맡기를 권하였지만, (故華岳和尚勸書勸之) 그러나 듣지 않았다. (而不聽焉) 경인년(庚寅歲, 1470) 또 그 명이 있어(又有此命) 전과 같이 사양하였다. (辭之如前) 그러나 소신 슈소가 부중에 출입하여(然宗箴首座出入府中) 앞으로의 약속으로 이 일로 번거롭게 해서 안 한다하여 (約以自今後不可以此事煩) 그래서 살펴봄을 신중히 하였는데(而重督之) 강요하여 마지못해 명을 따른 것이다. (迫于不獲已從命) 비록 이 일이 자질구레한 일로써(此雖細事) 겸양으로 나타내지만(出於謙讓) 또 나쁜 평판의 한면이다. (又不好名一端也) 두 글을 나의 보국기에 실는다. (兩書載之予寶國記)<sup>36)</sup>

멘코쿠(綿谷)는 1466년(세조 12, 文正 1)에 고려에 보내는 글을 만들었다. 난(亂) 후에 다시 고려에 보낼 답서(高麗報書)를 만들라는 명이 있었지만 멘코쿠는 여러 차례 거절하였다. 이때 고려서를 전하는 것은 「도호쿠지(東福寺) 문하 승」이었기 때문에 가가쿠 오쇼(華岳和尚)가 멘코쿠에 쓰도록 권하였지만 듣지 않았다. 1470년(성종 1, 文明 2)에 다시 「이명(此命)」이 있었는데 거절하는 것이 전과 같았다. 그러나 소신 슈소(宗箴首座)를 통한 엄명

35) 신숙주 『海東諸國記』 「日本國紀」 山城州 細川殿 條.

36) 瑞溪周鳳 撰, 『綿谷颯禪師行狀』 文明 4(1472) 8월.

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을 따랐다는 것이다. 멘코쿠가 제조한 2통의 조선 앞 국서는, 즈이케이 슈호(瑞溪周鳳)가 기록 하였듯이, 『선린국보기(善鄰國寶記)』에 실려 있으며, 1466년의 것은 2월 28일 일부(日付)에 야쿠시지(藥師寺) 재흥(再興)의 조연(助緣)을 청했고, 1470년의 것은 8월 28일 일부에, 무소식(無音)을 사죄하며, 조선 국왕의 즉위를 축하하고, 옛 인장(旧印)을 창고 화재로 잃어버렸으므로 새로운 인장(新印)을 쓸 뜻을 밝혔다는 내용이다.<sup>37)</sup>

오사 세쓰코는 우선 후지와라노 요리나가는 일본 사료에 찾을 수 없고, 나쿠야는 13세기 이후 무토(武藤, 본성 藤原)씨 일족이 영유했다고 한다. 그리고 요리나가가 실제 인물이었다고 해도 그의 조부가 조선의 사신단을 교토까지 호송하였다는 점은 애매한 이야기이며, 만약 정말로 교토까지 호송했다면, 조선 측에 엄청난 편의를 공여한 것이므로, 그것을 계기로 조선과의 교역에 나설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주린은 세조가 일본 국왕에게 국서를 일본에서 도항 중의 사절에 맡기려고 할 때, 왜관 체제 중의 사절 가운데, 가장 일을 이해하는 자로서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뽑힌 인물이다. 즉 기사에 나오는 1470년 「고려 답서」를 가지고 조선으로 향하는 「도후쿠 문하의 승려」를 주린으로 보고, 주린은 교토 오산(五山)의 하나인 도호쿠지(東福寺)에서 수행한 외교승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었다고 보았다. 벽지의 소영주(小領主)에 불과한 요리나가는 이처럼 우수한 인물을 사절로 고용하여도 연출도 사례를 할 자력(資力)도 없다고 보았다. 즉 쓰시마 도주는 주린을 고용할 자력은 물론, 연출도 충분했는데, 당시 쓰시마에는 1463년(세조 9, 寬正 4)에 일본 국왕사의 부사로 조선에 사행한 코우시 반고(仰之梵高)가 귀로에 도주 소 시게모토의 청에 응하여, 쓰시마에 머물면서, 쓰시마의 외교를 관장하고 있었다. 반고(梵高)는 교토 텐류지(天龍寺) 묘치인파(妙智院派)의 승려로, 오산계(五山系) 선승(禪僧) 사이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주린은 쓰시마에 의한 위사(僞使)라고 보고 있다.<sup>38)</sup>

하시모토 유에 의하면 김종직(金宗直)의 『점필재집(佔畢齋集)』 문집 권1 「송린상인환일본서(送蘭上人還日本序)」에 나오는 주린의 출생지가 장주도(長州島) 즉 나가토노쿠니(長門國) 출신<sup>39)</sup>인데 나가토는 오우치씨(大内氏)의 영국(領國)이라는 것이다. 또한 주린이라는 법휘(法諱)의 계자(系字) 「壽」는 린자이슈(臨濟宗) 쇼이치파(聖一派) 또는 린자이슈 무소파(夢窓派), 쇼몬파(靈松門派) 쥬네이몬파(壽寧門派) 등 많은 법통이 검출되지만, 실은 즈이케이 슈호(瑞溪周鳳)의 무소파 다이지몬파(夢窓派大慈門派)의 법통이나 그 주변에서 많이 확인된다고 한다. 주린이 만일 무소파 다이지몬파의 승려라면, 같은 문류(門流)의 멘코쿠가 국서 기초를 거부하여, 조일 외교에 공백 지대가 생겼다는 정보는 곧 전해져 왔을 것이고, 주린이 멘코쿠의 동향을 살피고 「도후쿠 문하의 승려」 신엔(心苑)과 공모하여 위일본국왕사를 창출했다는 것이다.<sup>40)</sup>

주린과 관련된 『성종실록』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중략) 그 후 약조(約條)를 정하여 50척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자(使者)들이 서로 넘겨다보고

37) 長節子, 「朝鮮前期朝日關係の虚像と実像」 『年報朝鮮學』九州大學朝鮮學研究會 編 (通号 8) 2002. pp.25~26.

38) 長節子, 「朝鮮前期朝日關係の虚像と実像」 『年報朝鮮學』九州大學朝鮮學研究會 編 (通号 8) 2002. pp.21~24.

39) 金宗直 『佔畢齋集』文集 卷1 「送蘭上人還日本序」 條.

40) 橋本雄 「博多商人の關與とその背景」, 『偽りの 外交使節』(東京, 吉川弘文館, 2012) p158~163.

사행(使行) 가려고 하므로, 도주(島主)도 또한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생각하고 보냈으니, 이것은 대개 도량(度量)이 커서 후하게 대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의례적으로 50척을 보내려고 하였는데, 사자들이 굳이 사양하고 가려고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꾸짖어 보낸 것이 겨우 1, 2척의 배뿐이요 나머지는 사양하고 가지 아니하였으니, 매우 태만(怠慢)하게 되었습니다. 무릇 사자들이 가지 아니하려는 것은 귀국의 대우가 예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선악(臧否)을 도외시(度外視)하고 박애(博愛)하던 옛 규칙을 회복하여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특별히 사신을 보내어 마음 속을 선포(宣布)합니다."

또 서계에 이르기를, "삼보랑고라(三浦郎古羅)는 존명(尊命)에 따라 이미 쇄환(刷還)하여 바쳤으며, 또 글을 아는 간인(姦人)과 중들을 체포하여 와서 그 죄를 따져 포(浦)에서 죽여 포의 사람으로 하여 그 죄를 징계시키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포에 보냈으니, 귀국의 변장(邊將)이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저는 천품(天稟)이 어리석고 노둔하여 항상 간인(姦人) 등에게 미혹(迷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귀국이 만약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이와 같이 개유(開諭)하겠습니까마는 실로 두 나라의 틈을 내는 조짐이 되는 것이니, 어찌 삼가지 아니하겠습니까? 또 중미오랑(中尾五郎)이 올 때에 삼가 서계를 받았으므로 수린(壽藺)이 바로 귀국의 존명을 받아서 부상 전하(扶桑殿下)에게 전달하였고, 또 그 회답한 서계를 귀국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서계를 받고 보낼 뿐이요 가부(可否)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그러하나, 존명(尊命)을 나쿠야(那久野)에 전달하였습니다. 불선(不宣)합니다."<sup>41)</sup>

위 기사의 밑줄 그은 부분을 보면 예전에 세견선 50척을 보내려고 할 때는 사자들이 서로 가려고 했는데, 지난해에는 서로 사양하여 가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로 조선의 접대가 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조의 글을 주린을 통하여 일본 국왕에게 보내는 일에 대하여 소 사다모리는 나카오 고로(中尾五郎)가 가져온 서계에 따라 행동할 뿐이었다는 것이다. 즉 앞의 기사는 전반적으로 조선에 대한 사다모리의 섭섭함을 보여주는데, 이전보다 조선으로 보내는 사다모리의 사신에 대하여 접대가 소홀해지는 점에 불만을 보여준다. 또한 조일 외교에서 쓰시마가 아닌 무명의 카미마쓰라의 후지와라노 요리나가의 사자 주린에게 일본 국왕에게 보내는 글을 맡긴 일에 대하여 지금까지 조선과 일본의 외교 사이에서 중간자로서 역할을 하여 온 쓰시마의 지위가 약화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도 보여준다. 더하여 서계의 내용이 『해동제국기』 호소카와 가쓰우지(細川勝氏) 조에 나오는 조선 조정이 가진 주린의 말에 대한 불신이나, 성종 1년 주린과 함께 온 신엔 동당(心苑東堂)이 가지고 왔다는 아시카가 요시마사(足利義政) 글에서 보이는 「금인(金印)」<sup>42)</sup>과 관련하여 쓰시마 도주에게 주린의 행적을 묻는 것이라면, 소 사다쿠니의 입장으로는 국왕사와 주린에 대한 조선의 의심을 알고, 책임 회피 또는 주린과의 무관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위의 기사와 같이 조선으로 회답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오사 세쓰코의 논리라면 하카타 상인 경우도 주린을 고용할 충분한 연줄과 자력

41) 『成宗實錄』 19권, 성종 3년 6월 5일 경오 2번째기사

42) 『成宗實錄』 7권, 성종 1년 8월 25일 경오 3번째 기사, 동권 성종 1년 9월 27일 임인 3번째 기사. 아시카가 요시마사가 보냈다는 글에는 환란으로 인하여 조선에서 사급한 「금인」을 손실하여, 재사급(再賜給)을 청하고 있으나, 이세노카미(伊勢守) 마사치카(政親)에게 보내는 답서에서는 「요사이 호소카와 가쓰우지의 글에, 「국왕의 인장이 병화(兵火)에 타버렸으니 다시 보내기를 요구한다」고 하였었는데, 옛 문서를 다 상고하여 보아도 일찍이 인장을 보낸 적이 없다는 내용이다. 즉 금인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선 조정은 신엔 동당을 일본국왕사인지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다. 더불어 8월 25일의 기사에는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글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9월 27일 답서에는 호소카와 가쓰우지의 글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신엔 동당에 대하여 의심을 넘어 확신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신증을 기하기 위하여 쓰시마 도주 소 사다쿠니에게 주린의 행적을 물을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이 충분하다고 본다. <표 1>에서 본 바와 하카타는 오우치씨와 소씨가 번갈아 가며 지배하고 있었다. 오우치씨의 영국인 나가토 출신인 주린이 도후쿠지에서 수행한 이후에 오우치씨가 지배하던 시기에 하카타로 이동하여 활동하다가 하카타 상인과 맺어진 것은 아닐까. 당시 하카타 상인들은 조선의 왜인 통제책으로 인해 조선과의 무역에 힘든 시기였으므로, 쓰시마와는 별개로 후지와라노 요리나가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었고, 중국인 양길을 쇠환한다는 명목을 만들어 주린을 사자로 하여 조선과의 무역을 꾀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다면 주린을 하카타가 보낸 위사로 생각하면 세조의 상서와 관련하여 내조하여 온 축하사 등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상서 축하사의 모습

### 1) 축하사(祝賀使)·소 사다쿠니(宗貞國) 청(請)

축하사와 관련하여 『해동제국기』의 하리마(播磨)의 요시이에(吉家) 조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정해년(1467, 세조 13)에 사신을 보내어 와서 관음보살(觀音菩薩)이 현상(現象)한 것을 치하하였다. 서장에는, 번마주 실진대관 등원 조신 길가(幡摩州室津代官藤原朝臣吉家)라 일컬었다. 상원사(上院寺)에 관음보살이 현상하고 원각사(圓覺寺)에 우화 불사리(雨花佛舍利)가 쏟아진 영이(靈異)가 있는 뒤부터 여러 주(州)에서 사신을 보내와서 치하한 자가 매우 많았으니, 비록 그전에는 사신을 보내지 않았던 자일지라도 모두 접대하기를 허락하였다. 아래도 모두 이와 같다. (丁亥年. 遣使來朝. 賀觀音現象. 書稱幡摩州室津代官藤原朝臣吉家. 自上院寺有觀音現象. 圓覺寺有雨花舍利之異. 以後諸州遣使來賀者甚多. 雖前不遣使者. 皆許接待. 下並同)<sup>43)</sup>

1467년(세조 13년, 文正 2, 應仁 元)에 하리마 무로쓰(室津)의 요시이에가 상서 축하를 이유로 조선으로 도해하였고, 『해동제국기』에 다른 축하사의 경우도 요시이에와 같은 접대를 하였다고 한다.

<표 2> 상서 축하를 이유로 도해한 축하사

도항일시	출발지1	출발지2	도항자	도해사유
世祖 13	山陽道	幡摩州	吉家	觀音現相
世祖 14	山陽道	幡摩州	盛久	觀音現相
世祖 13	山陽道	備前州	貞吉	觀音現相
世祖 14	山陽道	備前州	廣家	觀音現相
世祖 13	山陽道	備後州	吉安	觀音現相
世祖 14	山陽道	安藝州	教實	觀音現相
世祖 14	山陽道	安藝州	公家	觀音現相
世祖 13	山陽道	周防州	藝秀	雨花
世祖 13	山陽道	周防州	義就	觀音現相
世祖 14	山陽道	周防州	正吉	觀音現相
世祖 14	山陽道	周防州	盛祥	觀音現相
世祖 13	山陽道	長門州	弘氏	觀音現相
世祖 13	山陽道	長門州	忠秀	觀音現相

43) 『海東諸國記』 「日本國紀」 山陽道 吉家 條.

世祖 13	山陽道	長門州	忠重	舍利分身
世祖 14	山陽道	長門州	義長	觀音現相
世祖 14	山陽道	長門州	國茂	觀音現相
世祖 14	南海道	阿波州	義直	觀音現相
世祖 13	山陰道	但馬州	源國吉	舍利分身
世祖 13	山陰道	出雲州	公順	觀音現相
世祖 13	西海道	筑前州	親慶	觀音現相
世祖 13	西海道	筑前州	氏俊	舍利分身
世祖 12	西海道	筑前州	信歲	觀音現相
世祖 13	西海道	豐後州	國光	觀音現相
世祖 13	西海道	肥前州	源貞	觀音現相
世祖 13	西海道	肥前州	源義	觀音現相
世祖 13	西海道	肥前州	源茂	雨花舍利
世祖 13	西海道	肥前州	源貞	觀音現相
世祖 13	西海道	肥前州	源重俊	舍利分身
世祖 14	西海道	肥前州	源信吉	觀音現相
世祖 13	西海道	肥後州	政重	觀音現相
世祖 13	西海道	肥後州	武教	觀音現相
世祖 13	西海道	薩摩州	源忠國	觀音現相
世祖 13	西海道	薩摩州	藤原忠滿	觀音現相
世祖 14	琉球	平州	等閑意의 사자 古都老·而難灑毛	觀音現相·舍利分身 等

\*순서는 『해동제국기』의 순서에 따른다.

『해동제국기』에 나오는 33명의 명리와 세조 14년 6월 22일 『세조실록』의 기사에 나오는 류큐의 등민(等閑意)을 포함하면 상서 축하사 명목으로 조선으로 도해한 명리자는 모두 34명이 된다. 1466년(세조 12)에 1명 그리고 1467년에 22명, 1468년에 11명 등 총 34명이다. 그중에 치쿠젠의 노부토시(信歲)는 1466년 가장 일찍 조선으로 도해하였는데, 이는 주린이 세조의 글을 들고 일본으로 돌아올 때, 주린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하카타나 쓰시마에서 이를 기회로 삼아 시범 삼아 보냈던 것 같다. 이에 접대가 통하자, 축하사를 보낸 것이다. 이들 축하사 중에 세견선 약정자는 사쓰마의 미나모토노 타다쿠니(源忠國)이다. 타다쿠니는 1457년(세조 3)에 사신을 보내어 내조하였는데, 1467년에 관음현상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온 것이다. 이외 67명은 조선에 처음으로 도해한 사자들인 셈이다.

소 사다구니 청에 대해서, 『해동제국기』 야마시로슈(山城州), 쇼교(昌堯) 조에 보인다.

1468년(세조 14, 應仁 2)에 사신을 보내어 내조하였다. 서장에는, 경성동산 청수사주지 대선사 장요(京城東山清水寺主持大禪師昌堯)라 일컬었다. 종정국(宗貞國)의 청으로 대우해 주었다. 일본이 나라가 시끄럽고 흉년이 들어 우리나라에 빌붙어 먹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전에 사신을 보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모두 접대를 허락하지 않자, 사신들은 삼포(三浦)에 억지로 머물면서 돌아가지 않았다. 종정국(宗貞國)이 사람을 보내어 접대해 주기를 청하므로 그제야 접대를 허락하였다. 아래도 이와 같다. (戊子年. 遣使來朝. 書稱京城東山清水寺住持大禪師昌堯. 以宗貞國請接待. 日本國亂年饑. 寄食於我者甚多. 故前不遣使之. 皆不許接待. 使人等強留三浦而不還. 宗貞國. 爲遣人請之. 乃許接待. 下並同)<sup>44)</sup>

1468년(세조 14, 應仁 2) 교토 히가시야마 키요미즈데라(東山清水寺) 주지 쇼교가 조선

44) 『海東諸國記』 「日本國紀」 畿內 山城州 昌堯 條.

으로 도해하고, 이후에 소 사다구니의 요청으로 접대를 받았다. 일본에 난이 일어나고 흥년으로 조선으로 들어와 포에 머무는 자가 많아, 접대를 불허하였다가 소 사다구니의 요청으로 접대를 허락하였다는 내용이다.

<표 3> 소 사다구니 청에 의한 접대를 받은 축하사

도항일시	출발지1	출발지2	도항자
世祖 14	畿内	山城州	昌堯
睿宗 1	畿内	山城州	用書記
世祖 14	畿内	攝津州	源吉光
世祖 14	畿内	攝津州	昌壽
世祖 14	東山道	信濃州	善峯
世祖 14	山陽道	備後州	政良
世祖 14	山陽道	備後州	光吉
世祖 14	山陽道	備後州	家德
睿宗 1	山陽道	備後州	忠義
世祖 14	山陽道	長門州	正滿
睿宗 1	山陽道	長門州	貞成
世祖 14	南海道	伊豫州	盛秋
世祖 14	南海道	伊豫州	貞義
世祖 14	北陸道	若狹州	義國
世祖 14	山陰道	丹後州	家國
睿宗 1	山陰道	伯耆州	義保
睿宗 1	山陰道	出雲州	義忠
睿宗 1	山陰道	隱岐州	秀吉
世祖 14	西海道	筑前州	道京
世祖 14	西海道	筑前州	繩繁
睿宗 1	西海道	筑前州	成直
世祖 14	西海道	豊前州	邦吉
世祖 14	西海道	豊前州	俊幸
世祖 14	西海道	豊後州	茂實
世祖 14	西海道	肥前州	源宗傳
世祖 14	西海道	肥前州	源泰
睿宗 1	西海道	肥前州	貞茂
睿宗 1	西海道	肥前州	藤原盛
睿宗 1	西海道	肥前州	清男
世祖 14	西海道	薩摩州	只吉
世祖 14	西海道	薩摩州	久重
世祖 14	西海道	薩摩州	國久
睿宗 1	西海道	薩摩州	吉國
睿宗 1	西海道	薩摩州	持永

\*순서는 『해동제국기』의 순서에 따른다.

『해동제국기』에 따르면 소 사다구니 청에 의해 접대를 받은 사절 명의인은 34명이다. 1468년(세조 14, 應仁 2)에 22명, 1469년(예종 1년, 應仁 3, 文明 1)에 12명이다. 소 사다구니 청에 관하여 실록에는 성종 1년 9월의 1일 기사에 있다.

대마주 선위관(對馬州宣慰官) 사역원 첨정(司譯院僉正) 전양민(田養民)이 하직하였다. 그가 가고 가는 글에 이르기를, (중략)

지나간 1455년(세조 1년)에 본조(本曹)에서 삼가 주상의 뜻을 받들어 선도주에게 유시해 약정하기를, ‘모든 주(州)의 사선 회수(回數)는 1년에 한두 번을 초과하지 말고, 먼 곳의 사선은 혹 1년에 한 번 오거나 혹 해를 건너 한 번 오거나 하고, 일찍이 통신하지 않은 자는 문인을 발행하지 않는다.’ 하였고, 선도주도 ‘약조와 같이 지키어 여기지 않겠다.’고 회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468년(세조 14)에 본래 통신하지 않고 포(浦)에 이른 것이 무려 수십 척이나 되었습니다. 으레 접대하지 않을 것이나, 족하가 위임해 보낸 진강 육랑 좌위문(津江六郎左衛門)이 와서 보고하기를, ‘만일 새로 오는 자를 두절하고자 하면 어찌하여 전에 편지로 그 뜻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옆드려 원하건대 이미 도착한 자는 그대로 허락해 주고, 이다음에 새로 오는 자는 거부하소서.’ 하므로, 이 뜻을 선왕께 아뢰었더니, 선왕이 ‘족하(足下)가 새로 도의 일을 주관하기 때문에 선례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하고, 잠깐 접대할 것을 허락하므로, 이 전지를 받들어 족하에게 알리고 다시 약정하기를, ‘먼 곳의 사람으로서 처음 통신하는 자는 긴급한 관계가 있는 일 외에는 문인(文引)을 주지 않는다.’ (후략)<sup>45)</sup>

위의 기사는 1468년 이전에 통신하지 않고 있던 견사자를 접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소 사다쿠니가 쓰에 로쿠로자에문(津江六郎左衛門)을 보내어 항의하는 내용이다. 즉 1455년 예조에서 보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도(貴島)는 우리나라의 문호(門戶)이며, 여러 섬에서 왕래하는 관문(關門)으로서 여러 섬의 사객선(使客船)이 반드시 귀도의 문인(文引)을 얻은 연후에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전에 족하(足下)의 선부(先父=宗貞盛)가 우리나라를 공경히 섬겨 시종 한결같은 성의로 여러 곳의 사자(使者)가 오는데도 역시 쌍방의 폐단을 다 알아서 그 왕래를 절제하였기 때문에 (중략) 깊은 먼 곳의 사객선이 혹은 1년에 한 번 오기도 하고, 혹은 한 해를 걸러서 한 번 오기도 하여, 정성을 다할 따름이었는데, 근년에 와서는 왕래하는 데 절제가 없어서 1년 중에 많으면 혹 10여 차례 이르기도 하여, 다만 역로(驛路)의 조폐(凋弊)뿐만 아니라, 관(館)에서의 지대(支待)도 계속하기 어려우니, 사자(使者)의 번삭(煩數)함은 역시 영구히 행할 수 있는 계책(計策)이 아니며, 더욱이 물길이 험하고 멀어서, 왕래에도 어찌 어려움이 없겠는가?

족하(足下)는 거듭 선부(先父)의 구례를 지켜서 각처 사객선에게 문인(文引)을 주되, 1년에 한두 차례를 지남이 없도록, 이에 신중하게 이를 항식(恒式)으로 삼고, 겸하여서 이 뜻을 여러 곳에 효유(曉諭)하여, 피차가 서로 편리하게 하여, 길이 인국(隣國)의 정호(情好)를 보전(保全)함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sup>46)</sup>

하여, 앞선 쓰시마 도주 소 시게모토와 여러 주 사선의 수를 한두 척으로 하고, 일찍이 통신한 적이 없는 자에게는 문인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약정하였는데, 1468년에 이전에 통산한 적이 없는 자가 포소에 머무는 것이 수십 척이 되었다. 규정에 따라 조선 조정은 접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소 사다쿠니는 1468년 이전의 새로운 견사자는 접대하다가, 지금 포소에 있는 새로운 견사자를 접대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지 않아도 해하여 머물게 되었으니, 앞으로 오는 견사자는 거부하더라도 이미 도해한 자들은 접대를 바란다는 것이다. 조선 조정은 현 쓰시마 도주 소 사다쿠니가 도주가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아<sup>47)</sup> 선례를 알지 못하여 일어난 일이므로, 소 사다쿠니의 청을 이번에는 받아주되

45) 『成宗實錄』 7권, 성종 1년 9월 1일 병자 5번째 기사.

46) 『世祖實錄』 2권, 세조 1년 11월 9일 경진 2번째 기사.

47) 『世祖實錄』 14년(1468) 1월 17일 기사에 따르면, 쓰시마 사자 승려 세이조(淸藏)에게 소 시게모토(宗成職)의 부음(訃音)을 들었으며, 『成宗實錄』 1년 9월 11일 기사에서는 소 사다쿠니(宗貞國)의 서계에서 본인이 1467년에 새롭게 지위를 이어받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소 시게모토 1467년 말에 사망하고 이어서 소 사다

다음부터는 새로운 견사자는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소 사다구니의 요청으로 접대를 받은 사자들에게 대하여 축하사의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일본에서 조선으로 도해하기 위해서는 쓰시마 도주의 문인이 있어야 한다. 이전까지 1455년의 약조를 기본으로 새로운 견사자들에게 대해서는 쓰시마 조정이 문인을 발행하지 않는 점이 원칙인데, 근년에 새로운 견사자들이 쓰시마 도주의 문인을 받고 조선으로 도해하였고, 특히 1468년에 그 수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에 쓰시마 도주는 1466년부터의 상서 축하사는 새로운 명의를 견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접대를 하였기 때문에, 이후에도 상서와 관련한 사자는 새로운 명의로 온 자들이라도 문인을 발행한 것 같다. 이와 관련한 기사가 1470년(성종 1년) 9월 1일의 기사로 소 사다구니가 지금 포소에 있는 견사자들도 상서 축하사여서 문인을 발행하였으므로, 이전 축하사들과 같은 접대를 바라는 세계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 사다구니의 청에 의한 견사자들도 축하사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 『해동제국기』에는 왜 「축하사(祝賀使)」와 「소 사다구니(宗貞國) 청(請)」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을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1468년 9월 8일 세조의 사망이다. 세조의 체면을 생각하여 상서 축하사로 온 일본의 사신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가정이다. 다음으로 조선이 북방과 관련된 사건이 마무리 단계가 되어 더 이상 축하사를 접대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조선 조정이 판단한 것이다. 북방에 집중하기 위해서 남방의 소란을 피하기 위해 서라고 볼 수 있다. 즉 『해동제국기』에 「축하사」로 기재된 견사자들이 도해한 해가 1467~1468년이고, 『소 사다구니 청』으로 기재된 견사자들이 도해한 해가 1468~1469년이며, 실제로 접대한 해가 1470년이다. 즉 1468년 어떤 기점을 통하여, 축하사로 온 견사자들이더라도 더 이상 접대할 필요성이 사라졌는데, 쓰시마 도주의 청으로 들어주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표 2>과 <표 3>의 축하사 및 소 사다구니 청으로 도해한 68명은 기나이(畿内)에서 온 사자가 4명, 토산도(東山道)가 1명, 산요도(山陽道)가 22명, 사이카이도(西海道)가 30명, 산인도(山陰道)가 6명, 난카이도(南海道)가 3명, 호쿠로쿠도(北陸道)가 1명, 류큐(琉球)가 1명이다. 그리고 1466년에 온 사자가 1명, 1467년 22명, 1468년 33명, 1469년은 12명이다.

## 2) 주린 호송(壽蘭護送)

주린은 1466년(세조 12, 文正 2) 6월에 카미마쓰라로 돌아가서 배를 수리하고 행장을 준비하여 1467년(세조 13, 應仁 1) 2월에 교토로 떠났다. 그때 오닌의 난으로 인해, 남해 항로 즉 세토나िका이(瀬戸内海)를 지나는 항로를 사용하지 못하고, 북해 항로 즉 혼슈(本州)의 산인도(山陰道) 해안을 따라 항해하였던 것이다. 주린은 북해를 이용해 2개월 만에 와카사(若狹州)에 도착하였다고만 하였으나, 「일본본국지도(日本本國地圖)」에는 와카사에 오바마노츠(小濱浦)가 보인다. 이곳은 현재 오하마(小浜)라고 표기하며, 국도 27번, 지방도 33번과 367번을 이용하여 바로 교토(京都)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전체 거리는 약 80km이다. 주린이 와카사에 도착하여 국도로 들어갔다면, 바로 이 오바마노츠를 이용하였을 것이다.<sup>48)</sup> 주린 호송과 관련하여 『해동제국기』 야마시로슈 노리미치(教通) 조에 있다.

쿠니가 바로 쓰시마 도주로 오른 것으로 보인다.

48) 이근우 『『해동제국기』의 일본국·유구국 지도에 대하여』, 『韓日關係史研究 제59집』, 2018. pp.129~130.

1470년(성종 1, 文明 2) 수린(壽藺)의 호송(護送)이라 일컫고, 사신을 보내어 내조하였다. 서장에는, 산성거주사천이여주인하야형부대보 등원조신교통(山城居住四川伊與住人河野刑部大輔藤原朝臣教通)이라 일컬었다. 수린이 병란 중에 왕래한 까닭으로 호송이라 일컫고 온 사람이 많았다. 아래도 이와 같다. (庚寅年. 稱壽藺護送. 遣使來朝. 書稱山城居住四川伊與住人河野刑部大輔藤原朝臣教通. 壽藺往來兵中. 故多稱護送而來者. 下同)<sup>49)</sup>

1470년 야마시로(山城) 거주 이요(伊予)의 가와노 노리미치(河野教通)가 주린 호송이라 일컫고 조선으로 왔다. 주린이 오년의 난으로 인하여 북해 항로를 이용하여 왕래할 때 주린에게 도움을 준 것을 명분으로 하여 조선으로 온 것으로 보인다.

<표 4> 주린 호송 명목의 도항자

도항일시	출발지1	출발지2	도항자	도항사유
成宗 1	畿内	山城州	教通	壽藺護送
成宗 1	畿内	山城州	之種	壽藺護送
成宗 1	畿内	山城州	信忠	壽藺護送
成宗 1	畿内	山城州	勝忠	壽藺護送
成宗 1	畿内	山城州	建胄	壽藺接待
世祖 13	山陽道	長門州	光久	壽藺護送
成宗 2	北陸道	若狹州	忠常	壽藺護送
世祖 13	山陰道	出雲州	盛政	壽藺護送
世祖 13	山陰道	石見州	久直	壽藺護送
世祖 13	山陰道	石見州	正教	壽藺護送
世祖 14	山陰道	石見州	吉久	壽藺護送
世祖 13	西海道	筑前州	正家	壽藺護送

\*순서는 『해동제국기』의 순서에 따른다.

<표 4>를 보면 주린 호송을 명목으로 조선으로 온 명의인은 1467년(세조 13) 5명, 1468년 1명, 1470년(성종 1년) 5명, 1471년 1명이다. 지역별로는 기나이가 5명, 산요도 1명 호쿠리쿠도 1명, 산인도 4명, 사이카이도가 1명이다. 『해동제국기』의 주린 행로와 일치함을 보여준다. 특히 주린이 조선으로 돌아온 1470년 경우는 모두 기나이에서 출발한 인원들이다. 야마시로 에니치산(慧日山) 죠키쇼안(常喜祥庵)의 겐츄(建胄)의 견사는 호송이 아니라 주린의 접대를 이유로 조선으로 왔는데, 죠키쇼안은 도후쿠지(東福寺)의 탑두(塔頭)이다. 아마 겐츄는 주린이 교토의 도후쿠지에 머물렀을 때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81명의 견사자 중에 실재하는 인물로, 당시 생존해 있었음을 사료로 알 수 있는 것은, 축하사의 사쓰마(薩摩) 시마즈 타다쿠니(島津國忠), 소 사다쿠니 청의 히젠(肥前) 가미마쓰 우라(上松浦) 하다 미나모토노 야스(波多源泰), 주린 호송의 야마시로(山城) 거주 이요(伊予) 가와노 노리미치(河野教通)·케이쥬(京城) 부교노카미(奉行頭) 이노 유키타네(飯尾之種)·에니치산(慧日山) 죠키쇼안(常喜祥庵) 주지 카가쿠 겐츄(華岳建胄) 등 얼마 되지 않는다. 또한 또한 실재는 하고 있었으나, 견사 당시 이미 사망한 자도 있는데, 1467년 축하사를 보낸 치쿠젠 무나카타(宗像) 우지토시(氏俊)는 1421년(應永 28)부터 1425년(應永 32)까지

49) 『海東諸國記』 「日本國紀」 畿内 山城州 教通 條.

와 1433년(永享 5)부터 1444년(文安 元)까지의 두 차례에 걸쳐 무나카타샤(宗像社) 다이쿠 지시키(大宮司職)를 지낸 실재의 인물이다. 그러나 우지토시는 1446년(文安 3)에 죽었다고 여겨지므로, 1467년의 우지토시 명의의 축하사는 위사라고 보인다.<sup>50)</sup>

즉 주린 호송의 경우에도 실재하는 인물보다 가공의 인물이 많았고, 실재하는 인물이라도 그 명의인이 직접 견사를 보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 또한 81명의 사인 중에 쓰시마나 이키 출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오사 세쓰코는 과해량(過海糧)을 지적하고 있다. 『성종실록』에 과해량에 관한 기사가 있다. 기사에서는 과해량이 세종 20년(1438) 상정한 것으로 나오는데 내용은 이렇다.

<표 5> 일본 사신에 지급하는 과해량

거소	소요일수	과해량
對馬州 北面	1日程	10日
島主居處 佐賀	2日程	10日
一岐州	4日程	20日
佐志殿·志佐殿	5日程	20日
肥前州 源義	6日程	15日
九州 宗金	7日程	20日
石見州 周布兼貞	13日程	30日
薩摩州 藤熙久	15日程	30日
大友殿 豊後州	10日程	30日

하지만 실록에서도 밝히듯이 사인이 오고 가고 거리와 식량을 주는 일수(日數)가 어긋나고, 일수가 정해지지 않은 곳에서 온 통신사(通信使)·객인(客人)들에게는 관리들이 임의로 제급(題給)하여서, 멀고 가까운 것이 뒤바뀌어 매우 혼란스러웠다. 이후로는 과해량(過海糧)을 3등급으로 나누었는데, 쓰시마는 5일 치, 이키시마는 15일 치, 규슈는 20일 치의 양식을 지급하게 하고, 일본 국왕(日本國王)의 사신(使臣)과 교토(京都) 근처의 여러 대신(大臣)의 사인과 류큐국(琉球國) 사인 등은 모두 규슈와 같이 20일 치로 하였다.

하지만 축하사를 보낸 이유를 과해량으로만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해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새로운 세견선 약정을 위한 시도(試圖)이다. 이미 쓰시마로서는 많은 세견선 약정자가 있으므로, 쓰시마가 아닌 지역에서 온 견사자들로 하여 세견선 확대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카타의 입장으로는 세조 대에 들어서 엄격해지는 조선 통교의 확대를 노려볼 만한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이며, 더욱이 쓰시마에 의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는 쓰시마의 소극적인 입장으로 조선으로부터의 세견선 인정의 회피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해약조에 의해 쓰시마 도주의 세견선은 50척으로 한정되어 있다. 혹은 쓰시마에서 온 축하사를 조선에서 세견선으로 포함해 버린다면 쓰시마 입장으로는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다. 이미 조선에서는 수직인과 수도서인 등도 세견선에 포함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 IV. 맺음말

50) 長節子, 「朝鮮前期朝日關係の虚像と実像」 『年報朝鮮學』九州大學朝鮮學研究會 編 (通号 8) 2002. p.18.

이 글에서는 조선과 일본 사이의 통교에서 재정적 부담을 가진 조선이 통제책을 내면서, 통교에서 많은 이익을 누렸던 쓰시마와 심처왜(深處倭)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특히 조선의 통교 통제는 조선으로 가는 쓰시마 안의 사인들뿐만 아니라 일본 심처(深處)에서 오는 사인들에 대하여 문인의 발행 수수료와 교역 물품에 대한 과세를 받던 쓰시마로서는 무역을 통한 이익의 감소와 더불어 이중적인 손해를 안겼다. 하카타 경우도 조선에서 가져온 무역품을 일본 각지에 판매하여 얻었을 이익의 감소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중에 주린이 가져온, 세조가 일본 국왕에게 보내는 글은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세조 대의 불교적 상서를 축하하며 조선으로 온 사인들의 기획자들은 조선과의 통교에 새로운 약정을 시도하거나, 그것이 안 되더라도 조선의 통제책을 벗어날 명분으로 조선에 도해하여 많은 회사품(回賜品)을 챙길 기회라고 여겼을 것이다. 이런 축하사들의 기획자로는 우선 쓰시마를 생각할 수 있고, 하카타도 생각할 수 있다. 거기에 축하사들이 조선으로 갈 때 필요한 물품이나, 출신 지역의 정보 등을 쓰시마와 하카타가 연합하여 보냈을 가능성도 충분히 보인다. 즉 때로는 쓰시마나 하카타가 단독으로 때로는 연합하여 불교 상서의 축하나 주린 호송의 명목으로 보낸 점으로 생각된다. 비록 실재하는 인물의 명의로 있지만 이전에 견사한 시마즈 타다쿠니를 제외하고는 처음 조선으로 온 명의이다. 실재하는 명의의 경우 이들에게 명의를 빌렸을 가능성이 있고, 명의를 도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선행 연구자 중에서는 명의대여는 위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명의인이 직접 보내지 않는 경우도 위사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당시 불교 상서와 관련한 대부분의 견사자는 위사(僞使)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사료

『朝鮮王朝實錄』

『海東諸國記』

『佔畢齋集』

『綿谷颺禪師行狀』

2. 단행본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研究』 下 (吉川弘文館, 1969)

田中健夫, 『中世對外關係史』 (東京大學出版會, 1975)

村井章介, 『동아시아 속의 중세 한국과 일본』 손승철·김강일 역 (경인문화사, 2008)

佐伯弘次, 『조선 정기 한일관계와 博多·對馬』 손승철·김강일 편역 (경인문화사, 2010)

橋本雄 『偽りの 外交使節』 (東京, 吉川弘文館, 2012)

長節子, 『中世日朝關契と對馬』 (吉川弘文館, 2017)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의 대외관계와 조선 편』 (동북아역사재단, 2018) 외교사 -

### 3. 연구논문

- 高橋公明, 「朝鮮遣使ブームと世祖の王權」, 田中健夫 編 『日本國家と對外關係』 (吉川弘文館, 1987) 前近代の
- 井上寛司, 「中世西日本海地域の水運と交流」 網野善彦 他編, 『出雲世界 海と列島文化2卷』 (小學館, 1991) 日本海と
- 橋本雄, 「中世日朝關係における王權大臣使の偽使問題」, 『史學編 2号, 1997년. 雜誌』 106
- 長節子, 「朝鮮前期朝日關係の虚像と実像」 『年報朝鮮學』 九州大學朝鮮學
- 伊藤幸司 「日朝關係における偽使の時代」 『韓日歴史共同研究報分科篇』 (韓日歴史共同研究委員会, 2005) 告書・第2
- 이근우 「『해동제국기』의 일본국·유구국 지도에 대하여」, 『韓日제59집』, 2018. 關係史研究

【토론문】

## 「조선 세조(世祖) 대의 상서(祥瑞) 축하사 연구」에 대한 토론문

송종호(방송통신대학교)

오늘 김동우 선생님이 발표하신 내용은 1467년부터 1471년까지 일본 여러 지역에서 조선으로 파견해 왔다는 사자들에 관한 고찰이었습니다. 이 짧은 시기 동안 일본국왕사, 왕성대신사 등 일본 중앙에서 파견했다는 사자들을 비롯하여, 외형적으로 보면 지역적·계층적으로 폭넓은 범주의 다양한 사자들이 쇄도해 왔습니다. 이 중에는 그 이전까지 조선 조정에 입조하지 않았던 세력들도 많았습니다. 일본 학자들은 이 특이했던 현상에 관해서 ‘조선 견사 붐’(다카하시 기미야키(高橋公明)), ‘서상 경하사(瑞祥慶賀使)’(오사 세츠코(長 節子)) 등으로 이름 붙여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이 시기 현상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기울인 배경에는 1467년 이래로 일본 전역에서 혼란을 야기했던 오닌(応仁)의 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栄孝), 다나카 다케오(田中健夫) 등 초기 연구자들은 이 시기 ‘조선 견사 붐’을 오닌의 난으로 말미암은 일본 국내 혼란상의 여파로 보면서 이들 사자들을 진사(眞使)로 보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부 쇼군과 막부 내 유력 세력들이 파견했다는 사자들이 일본 내 위상과는 균형에 맞지 않게 너무나도 조선을 대국(大國)으로 섬기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 등에서, 이들이 진정한 사자, 즉 진사였는지에 대한 의심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결과 1990년대부터 오사 세츠코, 하시모토 유(橋本 雄) 선생들의 연구를 기점으로 오늘날에는 이들을 위사로 보는 견해가 통설의 위치를 점하게 된 것 같습니다.<sup>51)</sup>

이러한 측면에서 발표자님의 오늘 발표는 ‘위사’ 논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위사’ 논의는 적어도 일본에서는 15~16세기 한일관계사 논의에서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나카무라 히데타카 이래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본 연구자들이 이 논의를 주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관해서는 우선, ‘위사’ 연구의 성격상, 중세 일본사에 관한 심도 있는 이해 및 일본 내 관련 사료들에 대한 폭넓은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그 배경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한국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위사’ 논의에는 난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즉 ①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일본 측 사자들의 명의를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은 그 동안 『실록』 문언을 근거로 고찰했던 연구성과들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점, 그리고 ② 조선 조정이 이러한 ‘위사’들 정체를 대부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접대했다는 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하는 점 등에서 일종의 난제에 봉착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사’ 논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 연구자들의 연구가 부족하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김동우 선생님의 오늘 발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달 한성주 선생님의 ‘1512년 임신약조 체결 과정에서의 위사 문제’ 발표와 함께 오늘 발표는, 그동안 일본 연구자들에 의하여 주도되어 온 ‘위사’ 논의를 우리나라 연구자들에 의하여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51) 伊藤幸司, 「일한관계에서 위사의 시대」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3, 2005, 174쪽 등 참조.

오늘 발표에 관해서 제가 궁금했던 점 몇 가지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발표자님께서 의도하셨던 오늘 발표의 취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선 김동우 선생님의 오늘 발표 속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시도 내지 시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 (1) 1467년 무렵 이른바 ‘조선견사 붐’에 관하여, 한국 연구자의 입장에서 조선 조정의 시각으로 그 과정을 정리하려 하신 점
- (2) 오사 세츠코 선생이 이 시기 ‘조선견사 붐’을 쓰시마의 작용으로 파악하여 서술하는 데 대해서, 발표자님은 이를 하카타 상인의 작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 점(발표문 18쪽),
- (3) 『해동제국기』는 이 시기 일본 사자들을 ㉠ 상서 축하사. ㉡ 대마도주 소 사다쿠니(宗貞國)의 요청에 의한 사자, ㉢ 일본 승려 주린(壽蘭)의 일본 사행을 호송한 세력이 파견한 사자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는데, 『해동제국기』가 이 중 상서 축하사와 소 사다쿠니 요청에 의한 사자를 구분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서술한 점(발표문 24쪽),
- (4) 쓰시마·하카타 측이 다수의 축하사를 파견한 배경을 ㉠ 쓰시마·하카타 측의 새로운 세견선 약정을 위한 적극적 시도 및 ㉡ 세견선 약정을 수용하는 데 대한 소극적 회피로 나누어 설명하려 하신 점(발표문 28쪽),
- (5) 세조대 일본에서 온 사자들에 대한 조선 조정의 대응 양상을 그 시기 북쪽 변경 상황과 연관 지어 고찰하려 하신 점(발표문 9쪽, 24쪽).

향후 이러한 점들에 관해서 각기 사료적·논리적 근거를 통해 더욱 발전된 논의 내용이 추가된다면, 심도 있는 좋은 연구성과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문을 보면, 제1장 서론 및 제4장 결론의 서술은 (위와 같은 점들 대신에) 이 시기 축하사들에 대한 ‘위사’ 여부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는 데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서론 및 결론 부분에서의 서술은 오늘 발표의 의미를 충분히 부각시키지 못한 것은 아닐까 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발표자님이 이번 발표를 통해 주안점을 두신 논제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이번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일본 승려 주린의 위사(僞使) 판단에 관한 사료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발표문에서는 『해동제국기』 기록을 인용하면서, 조선 조정이 주린의 말에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즉 주린을 위사라고 보았다 라는 취지로 해석 및 서술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발표문 14쪽). 또 한편으로 발표문에서는 즈이케이 슈호(瑞溪周鳳)가 저술한 일본 사료에서, 주린이 일본으로 돌아온 시기 동안에 멘코쿠(綿谷)라는 승려가 조선[고려]에 보내는 답서를 작성했다는 점도 서술하셨습니다(발표문 14~15쪽). 그래서 일본 사료 내용만 본다면, 조선이 의뢰한 대로 주린이 일본국왕사 파견 과업을 완수한 진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발표문 중 이 대목 서술은 다소 난해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일본 사료에 관해서 오사 세츠코 선생은, ‘당초 조선은 주린에게 상서를 축하하는 일본 국왕사를 요청하도록 한 것인데, 쓰시마가 주린으로부터 그 내용을 먼저 입수했다. 그래서 쓰

시마는 신속하게 상서를 축하하는 위사들을 만들어 조선에 파견함으로써 이득을 얻었다. 그리고 나서 조선의 국서를 개찬(改竄)하여 막부에는 조선 예종의 즉위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축하하는 일본국왕사를 보내게 한 것이다.’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sup>52)</sup> 이러한 견해에 관해서 발표문 상으로는 특별히 평가하는 말씀이 없으셨는데, 이에 관한 발표자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셋째, 1467년 오년의 난 발발과 이 시기 ‘조선견사 붐’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발표문에서도 언급되었습시다만, 오년의 난과 ‘조선견사 붐’의 시기가 겹친다는 점에서, 하시모토 유 선생을 비롯한 여러 일본 연구자들은 오년의 난 당시의 일본내 혼란상이 ‘조선견사 붐’에 미친 영향이 컸다는 인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사 세츠코 선생은 이 상서 축하사들이 (5건의 사례를 제외하고) 거의 모두가 위사였고 그 막후에 쓰시마의 작용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년의 난의 영향은 그 정도로 크지 않았다는 견해입니다.<sup>53)</sup>

이에 관해서 발표자님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의 주요 근거 사료인 『해동제국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기 축하사들이 조선에 쇄도한 시기는 1467년부터 1471년입니다. 그리고 신속주가 『해동제국기』를 발간한 해 역시 1471년입니다.

그렇다면, 『해동제국기』에 기록된 일본 각 지역별 조선 견사 시기에 관해서는, 신속주가 『해동제국기』를 편찬한 시점에 가장 근접한 최근 입조 시기를 위주로 기록한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의문이 생깁니다. 즉 1467년부터 1471년까지의 이른바 ‘조선견사 붐’이 조선 전기를 통틀어서 이때가 유일한 사례가 아니었고,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에도 또 다른 ‘견사 붐’이 있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 라는 궁금증입니다. 만약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견사 붐’을 일으켰을 세력, 즉 대마도·하카타 등의 정치적·경제적 동기 등에 관하여 더 심도 있고 보편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기존 사료를 통한 직접적인 확인은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동제국기』 등 사료에 기재된 다른 입조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위와 같은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에 관한 발표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 외에 발표문 내용 중에서 ‘축하사’ 용어 및 그 사례 건수에 관한 의견, 선행연구 정리 및 인용에 관한 의견, 기타 사소한 의견들은 발표자님에게 따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김동우 선생님의 발표문을 먼저 읽으면서 저로서도 15세기 위사 논의에 관하여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 점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2) 長 節子, 「朝鮮前期朝日關係の虚像と実像—世宗王代瑞祥祝賀使を中心として—」 『年報朝鮮学』 8, 2002, 25~37쪽 참조.

53) 위의 책, 38쪽 참조.

## 【한일관계사학회 보고사항】

### 1. 2025년 학회 월례발표회

- 제217회 월례발표회 : 2025년 3월 8일(토)
- 제218회 월례발표회 : 2025년 5월 10일(토)
- 제219회 월례발표회 : 2025년 6월 14일(토)
- 제220회 월례발표회 : 2025년 9월 13일(토)
- 제221회 월례발표회 : 2025년 11월 8일(토)

### 2. 《한일관계사연구》 89집 발간

- 《한일관계사연구》 87집이 2025년 2월 28일자로 발간되었습니다.
- 《한일관계사연구》 88집이 2025년 5월 31일자로 발간되었습니다.
- 《한일관계사연구》 89집이 2025년 8월 31일자로 발간되었습니다.
- 《한일관계사연구》 90집은 2025년 11월 30일자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논문 게재를 희망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2달 전인 2025년 9월 30일까지 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논문을 투고하실 때 심사비 6만원(심사자 3인)을 입금해 주시면, 심사비 입금확인 후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논문게재비는 일반논문 10만원, 연구비수혜논문 30만원입니다.

### 3. 회비납부 안내

우리 학회는 선생님들이 납부하시는 소중한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신회비] • 일반회원 : 40만원(15년限) • 기관회원 : 50만원(15년限)

[연회비] • 일반회원 : 3만원 • 기관회원 : 4만원

• 학생회원(학부생&석사과정생) : 1만원

[계좌번호] 카카오뱅크 333333-1207166<예금주> 유채연